

#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Vol. 9.

Published Semiannually by

The Institute for Biblical Text Research of the Korean Bible Society; August 2001

## Table of Contents

### • Paper •

[Kor.] Review of Korean Editions of Study Bibles (1965-1997)	Young-jin Min / 7
[Kor.] Two Study Bibles in Korean: <i>The KRV Study Bible</i> and <i>The Good News Study Bible</i> - with Special Emphasis on OT Notes	Tai-il Wang / 41
[Kor.] A Comparison of Two Study Bibles	Chang-nack Kim / 56
[Kor.] We Need a Study Bible Designed for Korean Readers	Young-bong Kim / 69
[Kor.] Introductory Essay on <i>The Learning Bible</i> , a Study Bible based on <i>Th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i>	Ho-joon Ryou / 83
[Kor.] Harmony of the Word and Life: On " <i>The Learning Bibl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i> "	Ky-chun So / 97
[Kor.] Preparing Study Bibles in Korean: What, Why, and How? - Proposals for the Writing and Editing of Korean Study Bibles	Tai-il Wang / 106
[Kor.] "The Wind of Yahweh Swept Down on the Face of the Waters (Gen 1:2)"	Hwan-Jin Yi / 125

### • Translated Paper •

[Kor.] How Do We Use the Critical Edition of Q?	James M. Robinson (Ky-chun So, trans.) / 142
---	--

#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

민영진\*

## 1. 성서의 본래 형태와 독서를 돕는 장치의 고안

히브리어 구약성서의 경우는 본래 자음으로만 기록되었다. 뿐만 아니라 구두점도 장·절의 구분도 없었다. 그리스어 신약성서 사본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띄어쓰기도 구두점도 억양 부호도 없었다. 다만 본문 내용을 훤히 알고 있거나 암기하고 있는 사람의 기억보조장치(mnemotechnical) 정도의 기능을 가진 것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이다. 사본들은 고대로 올라 갈수록, 전문가 혹은 이미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것, 내용을 모르면 읽기가 무척 힘든 것, 모호한 곳들(ambiguities)이 많은 것, “달리 읽거나 달리 이해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었다.

성서가 기록으로 옮겨지고 얼마 안 있어, 독자의 독서를 돕는 장치가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구약성서의 경우, 기원 후 5-7세기 경에, 마소라 학자들이 히브리어 구약 본문의 안과 바깥에 여러 가지 장치를 고안하여 첨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 본문 안에 붙인 것은 자음 본문에다가 그것의 발음을 알리는 모음 기호를 붙인 것, 그리고 어조나 운율을 알리는 억양부호를 붙인 것이다. 그리고 본문 바깥 난외에는 소(小)마소라와 대(大)마소라와 권말(卷末) 마소라를 붙인 것이다. 어떤 특수 낱말의 빈도수와 그 출처를 밝히는 소마소라와 대마소라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주와 성구어구사전, 그리고 해설 성서<sup>1)</sup>의 효시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주석성서”라는 말도 가끔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석성서”의 한 표본으로서는 유대교의 『미크라오트 그돌로트』<sup>2)</sup>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마소라 본문과 아람어역 타르굼이 대조되어 있고, 라쉬, 이븐 에즈라, 라쉬밤 등, 유대교 랍비들의 정평 있는 주석들이 함께 본문 밑에 제시되어 있다.

루터가 히브리어 구약과 그리스어 신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은, 성서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나 라틴어의 울타리를 넘어 일반 사람들에게 그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계기를 만들었다. 성서가 여러 나라말로 번역됨으로써 언어를 달리하는 세계의 여러 어족의 사람들에게 그만큼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언어로 성서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들의 성서 읽기를 크게 도운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 개신교 일부에서는 “오직 성서(sola scriptura)”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신학적 입장이 확대 해석되어, 성서에는 본문 이외에 어느 것을 첨가하는 것을 삼가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성서 자체가 성서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설서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가톨릭 쪽에서는 일찍부터 “해설을 단 성서 (annotated edition of the Bible)”가 발전되었

\* 대한성서공회 부총무.

1) 이런 종류의 성서를 일컫는 데는, 우리말로나 다른 나라말로나, 그 이름이 여러 가지이다. 우리말로로는 “해설 성서” “연구용 성서” “주석 성서” “주해 성서” 등 여러 가지로 불린다. 영어에서는 Annotated Bible, Study Bible, Commentary Bible, The Bible with Explanation 등 여러 가지로 불린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이름이 “주석 (Commentary)”이라고 해도, 낱권으로 나오는 주석과는 그 양에 있어서나 성격에 있어서 다르다.

2) 문자대로의 뜻은 “큰 성서”라는 말이다.

다. 성서 본문에는, 본문 이외에 아무 것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철저히 지키게 되면, 히브리어 구약성서의 경우에는, 본문 형성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장 절 구분 표시는 물론이려니와 모음 기호마저도 없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성서는, 구약은 물론이려니와 신약도, 그 출생이 먼 과거로 소급해 올라가는 고대의 문헌이다.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본다면, 성서야말로 “낡은 (out of date)” 책일 수밖에 없다. 이미,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대화(행 8:26-40)에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확인한다. 내시는 이사야서 58:7-8절을 읽고 있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빌립이 다가가서 묻는다.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시가 대답한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묻는다. “예언자가 여기에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그러면서, 빌립은 이 구약 본문에서 출발하여 예수를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아마도 해설 성서의 한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다. 독자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독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해설 성서의 중요한 기능임을 알 수 있다.

## 2. 우리말 해설 성서의 종류와 특징

여기에 열거하는 해설 성서는 대한성서공회의 성서학문헌정보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해설 성서가 다 열거되지는 않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거의 망라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래 목록에 열거된 해설 성서는 주로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대한성서공회, 1961)을 기본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제가톨릭성서공회에서 나온 것은 『공동번역 성서』(대한성서공회, 1977)를, 그리고 서강대학교신학연구소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나온 것은 새로 번역된 본문에 해설을 단 것이다. 가톨릭 쪽에서 낱권으로 나온 것과 개신교 쪽에서 신약이나 구약 혹은 성경전서로 나온 것을, 출판 연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65

장시화 편, 『백과 신약전서』(서울: 세계복음화운동본부출판부, 1965)<sup>3)</sup>. 관주, 약주, 부표, 대의, 장명, 삽화, 연대, 서언이 제시되어 있고, 부록에는 총론, 사전, 지리, 성구, 목록, 지도, 화보, 도표 등이 제시되어 있다.

1977

서인석 역주, 『호세아 미카』(서울: 서강대학교신학연구소, 1977)<sup>4)</sup>. 역자의 사역을 제시하고, 예언서 각 권의 서론에서 그 책의 문학적 신학적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각주에서는 번역상의 문제, 본문비평과 관련된 문제, 본문의 편집과 관련된 문제, 해당 본문과 관련된 신학적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 등을 밝힌다. 역사적 비평적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수용하는 점에

3) *Encyclopedia of New Testament*, edited by Rev. Shi Hwa Chang. Published by World Evangelization Movement Head Quarters, 1965.

4) *Hosea Micah* newly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and notes by In Syek Paul Sye, S. J. (Institute for Theological Research Sogang University, 1977).

있어서 개신교 계통에서 나온 해설 성서와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런 현상은 비단 200주년 성서 총서뿐 아니라, 가톨릭 계통에서 나온 해설 성서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서인석 역주, 『스파니아 나훔 하바꾹 오바디아 요나』 (서울: 서강대학교신학연구소, 1977)<sup>5)</sup>

1979

서인석 역주, 『요엘 아모스 하깨 말라기』 (서울: 서강대학교신학연구소, 1979)<sup>6)</sup>

1981

장엘마로 역주, 『사목서간: 디모테오에게 보낸 편지, 디도에게 보낸 편지』 (서울: 서강대학교신학연구소, 1981)

정양모 역주, 『마르코 복음서』 (왜관: 분도출판사, 1981)<sup>7)</sup>. 해제에서 저자는 마르코 복음서의 필자, 독자, 집필 장소와 연대 및 범위, 전승과 양식, 편집 사상, 의의와 현실성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문 해설은 단순히 독자의 독서행위를 돕는 스터디 노트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주석이다. 주석 성서의 경지를 보여주는 표본을 제시하고 있다.

진토마스 역주,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편지』 (왜관: 분도출판사, 1981)<sup>8)</sup>. 주석으로서의 성격은 정양모 교수의 『마르코 복음서』 (1981), 그의 『루가복음서』(1983) 등과 같다.

장엘마로 역주, 『디모테오 전후서, 디도서』 (왜관: 분도출판사, 1981)<sup>9)</sup>.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신약성서 총서 중에 하나인 이것 역시 그 성격이 위에서 언급한 다른 총서의 경우와 같다.

1982

장시화 편, 『백과 구약전서』 (서울: 세계복음화운동본부출판부, 1982). 1965년에 나온 『백과신약전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는 관주, 약주, 부표, 대의, 장명, 삽화, 연대, 서언 등을 제시하고, 부록에서는 총론, 사전, 지리, 성구, 목록, 지도, 화보, 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신성종 편, 『엠마오 주석 구약성경』 (서울: 정음출판사, 1982)

1983

5) Zephania Nahum Habakkuk Obadiah Jonah newly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and notes by In Syek Paul Sye, S. J. (Institute for Theological Research Sogang University, 1977)

6) Joel Amos Haggai Malachi newly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and notes by In Syek Paul Sye, S. J. (Institute for Theological Research Sogang University, 1979)

7)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newly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and notes by Yang-Mo Jeng (Waegwan: Benedict Press, 1981)

8) *1 and 2 Thesalonians* newly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and notes by Thomas Timpte (Waegwan: Benedict Press, 1981)

9) *1 Timothy, 2 Timothy* newly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and notes by Elmar Lang (Waegwan: Benedict Press, 1981)

정양모 역주, 『루가복음서』 (분도출판사, 1983)<sup>10</sup>. 이것은 단순한 해설 성서라기보다는 주석에 가까운 책이다. 서론 격인 “루가복음서 해제”는 필자, 독자, 집필장소와 연대 및 동기, 사료, 편집 사상 등을 상세하게 다룬다. 이미 위에서, 그의 『마르코복음서』(1981) 소개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석 성서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신성종 편, 『엠마오 주석성경』 (서울: 정음출판사, 1983). 성경전서 66권 각권 서론과 개요, 및 주요 낱말에 대한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1984

진토마스, 장엘마로 역주, 『야고보의 편지, 베드로의 첫째 둘째 편지 유다의 편지』 (왜관: 분도출판사, 1984)<sup>11</sup>

1985

뉴툼슨관주주석성경편찬위원회 편, 『뉴툼슨 관주 주석성경』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5)<sup>12</sup>. 머리말에서 이것이 *The Thompson Chain-Reference Bible* (B. B. Kirkbride Bible Co., Inc. Zondervan Bible Publishers, 1983)의 각색(脚色, adapt)임을 밝히고 있다. 영어 표제지가 밝히듯이, 이 책은 각권의 서론과 내용개요, 도표, 지도 등을 제시한다. 뉴툼슨을 각색함에 있어서 『오픈성서』<sup>13</sup>를 주요 대본으로 함께 사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해설 성서 이외에도 국내의 것으로서 박윤선, 『성경주석』 (영음사, 1984), 이상근 편, 『이상근 신약주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4), 신성종 편, 『엠마오 주석성경』 (엠마오, 1982), 『아가페 주제별관주성경』 (아가페출판사, 1984), 『툼슨관주성경』 (기독지혜사, 1984) 등을 참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1986

이상근 편, 『이상근 주해성경』 (서울: 기독교문사, 1986). 성경전서 개론, 성경 전체 개요, 성경 연대표, 66권 각권의 서론과 내용분해, 주요 어구 해설 등을 제시한다.

1987

NIV주석성경편찬위원회 편, 『NIV 주석성경』 (서울: 엠마오, 1987)

1988

10)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Luke* newly translated with the introduction and notes by Yang-Mo Jeng (Waegwan: Benedict Press, 1983)

11) *The Letter of James, The First Letter of Peter, The Second Letter of Peter, The Letter of Jude* newly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and notes by Thomas Timpte and Elmar Lang (Waegwan: Benedict Press, 1984)

12) *The New Thompson Annotated-Chain Reference Bible* containing Comments, Introductions and Analyses of Books, Chain Reference, Outline Studies of Characters and Unique Charts with Pictorial Maps and Color Bible Maps. Seoul: Bible Study Material Publisher, 1985.

13) *The Open Bib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4)

톰슨성경편찬위원회 편, 『톰슨 II 주석성경』 (서울: 기독지혜사, 1988)<sup>14</sup>. “정통 복음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적 노선이 천명되어 있다. 그런 만큼 진화론 비판은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지만, 현대과학이 밝힌 우주와 생명의 기원 문제에 대한 성서적 조명이나 대화는 전무하여 오늘날의 독자에게 성서와 과학을 대립적 구도로 설정할 위험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특히, 성서의 진술이 과학적 사실과 다른 경우에 (왕상 7:23; 마 13:32; 요 12:24; 약 5:3) 거기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는 것도 독자의 궁금증을 그대로 지나쳐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1989

오픈성경 편찬위원회 편, 『오픈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8). 각 권마다 서론이 있고, 주석에 가까운 분량의 상세한 주석이 있으며, 주제별 성경사전이 부록으로 첨가되어 있다. 지도, 도표, 사진 등도 제시되어 있다. 머리말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다. “『오픈성경』은 최근까지의 구미의 고전적인 주석류, 성경 및 신학 사전, 그 이외의 다양한 자료에 근거하여, 아가페출판사의 성경편찬위원회에 의해서 편집 및 집필되었다. 그리고 성경 해석상의 오류를 없애기 위하여, 박형용(신약학), 유재원(구약학), 윤영탁(구약학) 세 분에 의하여 감수되었다.” 이처럼 방대하고 철저하게 기획되고 편집된 해설 성서에서 집필자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품이 나오기까지 상의한 주요 참고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이 작품의 출처와 질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마스터성경 편찬위원회 편, 『마스터성경』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9)

김장환 목사 해설, 『표준 관주 해설 성경』 (서울: 도서출판 여운사, 1989)

톰슨성경 라이프성경 편찬위원회 편, 『라이프성경』 (기독지혜사, 1989)<sup>15</sup>.

성경전서 각권의 메시지와 중심 사상과 교훈을 요약한 서론, 내용 개요, 문단 별 내용 요약, 주요 낱말 해설에서는 우리말 음역과 함께 제시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원어, 영어 번역(들)에 제시된 대응어, 우리말 번역 등이 병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1990

랍비성경 편찬위원회 편, 『랍비성경』 (서울: 영광, 1990)

열린성경 편찬위원회 편, 『열린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0)<sup>16</sup>. 성경 강해, 특주, 주제별 관주, 66권 각 권 서론, 도표, 그림, 지도 등을 제시한다.

완벽큐티성경 편찬위원회 편, 『완벽큐티성경』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0)<sup>17</sup>. 이름 자체만 보

14) *Thompson Commentary Study Bible*.

15) *Life Application Study Bible*.

16) *The Yeollin Study Bible* containing Bible Exposition, Special-Noted Bible Dictionary, Topical Bible Reference, Introductions and Analyses of Books, Color Charts, Illustrations and Maps. Seoul: Agape Publishing House, 1990.

17) *The Exhaustive Q.T. Bible*,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containing Overview,

면 순수한 Q. T. 성서처럼 보이지만, 66권 각 권 서론을 비롯하여, 관주, 문단별 소제목, 일정한 문학 단위의 개관과 심층 연구는 해설 성서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 부록에는 신약 중 간사, 연대기 대조표, 예수의 교훈, 예수의 이적, 예수의 비유 대조표, 바울의 전도여행 경로, 히브리 절기, 히브리 제사, 유대월력, 도량형 등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어 있다.

셀프성경편찬위원회 편, 『셀프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0)<sup>18</sup>. 각권의 서론, 내용 분해, 단락별 소제목, 그 단락의 배경이 되는 연대, 주요 낱말 풀이, 지도, 본문에 따른 묵상 등이 제시되어 있다. 부록에는 성경 중요 용어 사전, 주제별 인명 지명 사전, 각종 도표 등이 있다.

해설물간성경편찬위원회 편, 『해설 물간성경』 (서울: 풍만, 1990)

## 1991

『200주년 신약성서』 (분도출판사, 1991)<sup>19</sup>. 난외의 주는, 주로, 관련 구절, 의역된 번역문의 경우 그 원문이 지닌 문자적 의미, 모호한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 특수 용어에 대한 간략한 해설,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배경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랜드성경』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1)<sup>20</sup>. 편찬 대표 위원으로는 윤주봉(수표교교회 목사, D. Min), 이호열(구로문교회 목사 Th. M.). 각 권 서론, 문맥의 흐름을 제시하고 문단을 요약하는 문단 강해, 성서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본문 명상, 주요 어구 주석, 원어 각주, 지도, 도표 등을 제시한다.

그랜드 제자성경 편찬위원회, 『그랜드 제자성경』 (서울: 영광, 1991)<sup>21</sup>. 해설 성서라기보다는 제목 그대로 제자훈련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편집이라고 볼 수 있다. 제자도 자가 진단표, 성서를 한 해에 한 번 읽도록 배려하는 읽기 안내, 명상 자료, 암송 성구 표시, 관련 찬송가 등이 제시되어 있다. 집필자나 번역 대본이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자문위원명단은 밝혀져 있다. 김경행 (용산교회당회장), 김준철 (구세군사관학교교장), 박수암 (장신대신학대학원원장), 박인병 (전 피어선신학대학학장), 배순조 (성일교회당회장), 서공섭 (양문교회당회장), 신동혁 (동래중앙교회당회장), 신세원 (창신교회당회장), 유인식 (예장합동총회장), 이복희 (인천내리교회당회장), 이인구 (독립교회협의회회장), 정필도 (수영로교회당회장), 최복규 (예장대신총회장), 최훈 (동도교회

---

Daily Walk, Insight, Book Introductions, Charts, Appendix. Seoul: Agape Culture Publishing Co., 1990.

18) *Self Study Bible The Old and New Testament* containing Text Exposition, Special Notes, Meditation and Application, Book Introductions, Maps and Charts and Appendix. Published by Agape Publishing House, 1990.

19) *Korean New Testament*. Newly translated and published to commemorate the 200th Anniversary of the Introduction of the Catholic Faith into Korea(1784-1984). Authorized by the Biblical Committee of the Episcopal Conference of Korea. Waegwan: Benedict Press, 1991.

20) *The Grand Study Bible* containing Paragraph Exposition, Compact Commentary, 600 Bible Theme Charts, 700 Sermon Outlines. Projected and edited by Disciples Publishing House. Published by Bible Study Material Publisher, 1991.

21) *Grand Disciple's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 Self-evaluation of one's own discipleship, Reading guide for a perus during one year, Marks of the more important verses for memorizing, Four profound questions every page, Meditation materials for Q. T., and Hymns connected with words and prayers. Edited by The Editorial Committee of Grand Disciple's Bible. Published by The Glory Publishing Company, 1991.

당회장), 피종진 (남서울중앙교회당회장).

『키성경 KEY BIBLE (찬송가)』 (서울: 영광, 1990)<sup>22</sup>). 집필자나 번역 대본이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자문위원명단은 밝혀져 있다. 김경행 (용산교회당회장), 김준철 (구세군사관학교교장), 박수암 (장신대신학대학원원장), 박인병 (전 피어선신학대학학장), 배순조 (성일교회당회장), 서공섭 (양문교회당회장), 신동혁 (동래중앙교회당회장), 신세원 (창신교회당회장), 유인식 (예장합동총회장), 이복희 (인천내리교회당회장), 이인구 (독립교회협의회회장), 정필도 (수영로교회당회장), 최복규 (예장대신총회장), 최훈 (동도교회당회장), 피종진 (남서울중앙교회당회장).

『리빙성경』 (서울: 언약, 1991)<sup>23</sup>). 복합적인 책이다. 각 권의 서론, 주요 낱말 해설, 성구 명상을 위한 질문(Q.T.), 신학소사전, 성경시대의 삶의 모습 등이 제시되어 있다.

아멘성경 편찬위원회 편, 『아멘성경』 (서울: 반석문화사, 1991)<sup>24</sup>). 우리말 부제가 말해주듯이, 이것 역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책이다. 주석성경, 해설성경, 원어성경, 성경사전, 성구사전, 특주, 낱말풀이 등이 복합되어 있다. 참고한 것으로서는 『NIV 연구용 성서(The NIV Study Bible)』와 『제자 연구용 성서(Disciple's Study Bible)』이 “일러두기”에 명기되어 있다.

유재원 편저, 『원어번역주석성경(오경편)』 (서울: 도서출판 양문, 1991).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1961)을 기본 본문으로 사용하면서 편저자의 수정 본문을 적색으로 표기하였고, 난외에는 해설이 첨가되어 있는 학문적 노작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성서공회의 판권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문을 허락 없이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으로서, 판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L. A. 국제성서신학대학출판부 편, 『한영해설성경』 (용인: 국제성서출판사, 1992)

제자원 편, 『데일리 가정성경』 (서울: 연합선교회, 1992)

제자원 편, 『유니온 관주성경』 (서울: 제자원, 1992)<sup>25</sup>). 편찬대표위원으로는 문홍지 (송정교회 목사, D. Min.), 박승은 (동승교회 목사, D. Min.), 두 사람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관주(貫珠)”라고 하면, 전후참조 구절(reference)이 표시되어 있는 성서를 일컫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관주 이외에도 목상 자료라든가 해설 성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성서 66권 각권의 서론이라든가 문단 별 강해, 문단 별 소제목의 표시 등이 그러하다.

번역위원회 역, 『디사이플 주석성경』 (서울: 요단출판사, 1992)

22) *Key Bible*. Edited by The Editorial Committee of Key Bible. Published by The Glory Publishing Company, 1991.

23) *High Quality Living Study Bible*. Published by Un Yak Publishing House, 1991.

24) *Amen Study Bible*.

25) *The Union Reference Bible with Easy-to-Read Text and Reference, Useful Study Aids containing Title Reference, Paragraph Exposition, 1,000 Q. T. Mediation, 500 Topic Notes, 300 Prophecy*. Projected and Edited by Disciples Publishing House. Published by Yonhap Mission Press, 1992.



목자성경편찬위원회 편, 『목자성경』 (서울: 영광, 1992)<sup>26</sup>. “정통 개혁 보수주의 입장에 굳게 서서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의미를 바르게 나타내고자 최선을 다해 집필하였다.” 국내 필진이 집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필자는 밝혀져 있지 않다. 대신 자문위원이 밝혀져 있다. 김경행 (용산교회당회장), 김준철 (구세군사관학교교장), 박수암 (장신대신학대학원원장), 박인병 (전 피어선신학대학학장), 배순조 (성일교회당회장), 서공섭 (양문교회당회장), 신동혁 (동래중앙교회당회장), 신세원 (창신교회당회장), 유인식 (예장합동총회장), 이복희 (인천내리교회당회장), 이인구 (독립교회협의회회장), 정필도 (수영로교회당회장), 최복규 (예장대신총회장), 최 훈 (동도교회당회장), 피종진 (남서울중앙교회당회장). 결국,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것은 바로 한 해 전에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키성경』이 이름을 달리하여 나온 것이다. 독자에 따라서는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책을 구입할 수도 있다. 판권지어나 표지어나 간행사 어디에도 이것이 『키성경』과 같은 책이라는 언급이 없다.

어린이성경편찬위원회 편, 『어린이 성경』 (서울: 도서출판 영광, 1992)<sup>27</sup>. 어린이를 위한 해설 성서라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해설 성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어린이에게 어려운 한자어나 낱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 본문 편집에서는 단락 소제목이 붙어 있다. 그러나, 다른 대다수의 해설 성서와 같이, 단락은 무시되고, 매 절마다 독립되어 편집되어 있다. 천연색 성경 그림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

임승필 역, 『욥기』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

임승필 역, 『시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

임승필 역, 『잠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

## 1993

국제 사랑의 성경 보내기 선교본부 편, 『사랑의 성경』 (서울: 바라, 1993)<sup>28</sup>. 기존의 해설 성서와 차별성을 말하는 간행사를 그대로 인용해 본다. “본서는 지금까지의 스테디 바이블의 일관된 편집 체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성경의 사건과 성경의 인물 및 교훈적인 성경의 맥을 그 자체의 편집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어법에 틀린 곳은 없으나 전달되는 내용은 없다. 이 해설 성서가 기존의 해설 성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 기존 해설 성서의 “일관된 편집 체제”가 편집의 일관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극복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답습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해설 성서가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는 일관된 편집 체제에 있다기 보다는 일관된 내용에 있다. 그러나 산문과 운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시 형태로 편집한 것은 이 책의 특징일 수 있으나, 산문을 시 형태로 편집한 것이라든가, 문맥을 무시한 독립된 절 편집은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26) *Pastor's Bible*. Edited by The Editorial Committee of Pastor's Bible. Published by The Glory Publishing Company, 1991.

27) *Children's Bible*. Seoul: The Glory Publishing Company, 1992.

28) *Bible of Love*. Seoul: Bara, 1995.

이성재 편찬 책임, 『은혜성경』 (서울: 창조서원, 1993)<sup>29)</sup>. 간행사에서 자체의 성격을 “연구용 성경(Study Bible)”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편찬책임자 이성재 목사에 대한 약력이 판권지 위 부분에 표시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교 대학원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신학대학 대학원 (M.A.), 동대학원 박사 과정 졸업(Ed. D.)”

국제가톨릭성서공회 편찬, 『해설판 공동번역 신약성서』 (서울: 일과놀이, 1993)<sup>30)</sup>

임승필 번역, 『룻기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텔』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이종성 (편찬대표) 편, 『통독용 큰 글자 만나성경/ 해설찬송가』 (성서교재간행사, 1993)<sup>31)</sup>.

## 1994

신현학 편찬책임, 『아가페 큰글성경』 (서울: 아가페, 1994)<sup>32)</sup>. 이것은 일종의 주석성경이다. 주석 편찬위원으로는 강원용, 강현중, 구대일, 장귀복, 김덕신, 윤용진, 조두석의 이름이 나오고, 편집장에는 신현학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주석감수위원으로는 유재원(구약, 총신대신학대학원 교수, 철학박사), 권성수(신약, 총신대신학대학원 교수, 신학박사)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 책의 해설 부분은, “일러두기에 밝혀져 있듯이, 이미 나온 『셀프성경』의 해설 내용과 동일하다. 이 책을 만드는데 참고한 문헌 중에는 역사적 비평적 방법을 수용한 것들이 있어서<sup>33)</sup>, 아가페 출판사의 신학적 개방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복음성경 편찬위원회 편, 『주해 복음성경』 (서울: 성서진리연구소, 1994)<sup>34)</sup>. 속 표제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해, 주석, 성서 각 권 서론, 지도, 신구약 중간사, 지도 및 도표와 부록 등이 있다.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1961)을 기초 본문으로 사용하였으나 “세레”는 모두 “침레”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주석은 체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주석과 엘렌 지 화잇 저서를 주요 기본 도서로 사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 주해에서는 안식일 교회의 독특한 신학을 보여 준다.

통독성경 편찬위원회 편, 『큰글자 통독성경』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4)

신현학 편찬 책임, 『파트너성경』 전 12권 (서울: 아가페서원, 1994)<sup>35)</sup>

29) *Grace Bible*.

30) *La Biblia*, Sociedad Biblica Catolica Inernacional - Roma, 1972

31) *Manna Bible* containing Commentaries, Introductions and Analyses of Books, Marking Key Verse by Blue(Red) Colour, Chain Reference, Hymnal Accordance with Biblical Verse, Book Marks, Biographical and Geographical Dictionary. Published by Bible Study Material Publisher, 1993.

32) *Agape Big Leter Study Bible* containing Text Exposition, Word Explanation and Appendix (Maps and Charts). Seoul: Agape Publishing House, 1994.

33)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Word Biblical Commnnetary, Lutherbibel Ekrlaerungen 등.

34) *Gospel Bible*, Bible Truth Research Publisher, 1994.

35) 영어 제목: *Partner Bible*; 참고문헌: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Word Biblical Commentary*, *Tyndale Commentary*, *Keil & Delitzsch Commentary*, *Hendrikson Commentary*, *NIV Study Bible*, *Lutherbibel Erklarungen*, *Life Application Bible*.

1995

이종성 편, 『베스트성경』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5)<sup>36</sup>. 표지에 표시된 편자는 이종성 박사이다. 뒤 간기 위에는 이종성 박사의 약력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철학박사, 동경신학대학 (D. D.), 미국 홀러 (M. Div.), 및 루이빌(Th. M.),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Th. D.) 졸업.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독일 본 대학,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 연세대학교 신과 대학 교수, 학생처장, 교목실장.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 학감, 학장.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장, 동북아신학교협의회 회장, 한국신학교육원, 한구신학연구소 이사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등 역임. 현 한국기독교 학술원장. 저서: 『평신도와 신학』 『칼빈 그의 생애와 사상』 『성령론』 『교회론』 등 30여종. 역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현대인의 인간이해』 『칼빈의 신학』 『비교교회론』 등 10여종.”

임승필 역, 『창세기』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임승필 역, 『이사야』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이동원, 하용조 목사 편찬, 『묵상성경』 (서울: 두란노, 1995)

신현학 편찬책임, 『뉴셀프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5)<sup>37</sup>. 1990년에 출판되었던 『셀프성경』의 글자를 키워서 읽기에 편하게 하고, 두께를 얇게 하여 가지고 다니기 쉽게 한 것이 중요한 변화라고 간행사에서 밝힌다.

국제가톨릭성서공회 편찬, 『해설판 공동번역성서』 (서울: 일과놀이, 1995)<sup>38</sup>

『연대기성경』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sup>39</sup>

1996

임승필 역, 『예레미야 바룩』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6)

임승필 역, 『탈출기 레위기』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6)

도서출판 제자원 편, 『에이스 성경: 해설찬송가』 (서울: 종로출판, 1996)<sup>40</sup>

36) Best Bible containing Commentaries, Introductions and Analyses of Books, Chain Reference, Special Reference Exposition (with Religious Life), Essential Q. T., Hymnal Accordance with Biblical Verse, Book Marks, Biographical and Geographical Dictionary. Seoul: Bible Study Material Publisher, 1995.

37) *New Self Study Bible* containing Text Exposition, Special Notes, Meditation and Application, Book Introductions, Maps and Charts, and Appendix. Seoul: Agape Publishing Company, 1995.

38) *BIBLIA SAGRADA Edicao Pastoral*, Sociedade Biblica Catolica Internacional, 1992

39) *The Chronological Bible*, Arranged by Dr. F. LaGard Smith. Originally Published in the USA by Harvest House Publishers, Eugene, Oregon 97402, USA under the title *The Narrated Bible in Chronological Order*.

40) 편찬 대표: 김선도, 김호식; 기획 편집: 제자원. *The Ace Study Bible* containing Paragraph Exposition, Special Commentary, Christian Counselling, Illustration & Maps projected and edited by

신현학 편찬책임, 『디럭스 컬러성경』(서울: 아가페서원, 1996)<sup>41)</sup>. 편찬 책임자는 신현학, 집필 위원은 김태곤, 김인배, 백광현, 편집위원은 이수진임을 밝혔다. 그러나 집필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담당하였는지는 밝혀져 있지 아니하다.

이종성 편찬책임, 『CLS 주석성경』(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sup>42)</sup>. 편찬책임자인 이종성 박사의 약력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전 장로회신학대학교수 및 학장/ 현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편찬위원: 이성재 -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 졸업(Ed. D.)/ 현 웨스터민스터 신학원 교수; 김수학 - 전 대구신학교교수 및 학장; 전호진 - 현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 원장; 정성구 - 전 총신대학교수 및 학장/ 현 총신대학교수 및 목회신학원원장. 이것은 이성재 편찬책임, 『은혜성경』(창조서원, 1993)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대한기독교서회의 공신력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들로 구성된 편찬위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흔적이 주석 전반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이 다른 편집자의 이름으로, 책명을 달리하여 나왔다고 할 때, 해설 성서의 편집과 출판과 보급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의 결여는, 이 사실도 모르고 독자들이 같은 책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하용조 편찬, 『두란노 성경』(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sup>43)</sup>

1997

임승필 역, 『사무엘상하』(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임승필 역, 『에제키엘』(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김의환 편찬대표, 『Big Bible 큰성경 해설 찬송가』(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7)<sup>44)</sup>. 편찬대표는 김의환, 편찬위원은 김성영, 김시열, 이정범, 한성천 등으로 밝혀져 있다. 해설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편찬대표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다.

김의환(편찬대표), 『포켓성경』 전 12권(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7)<sup>45)</sup>

이종성 편집, 『New 베스트 성경』(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7). 편자 이종성 박사의 약력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철학박사, 동경신학대학(D.D.), 미국 홀러(M. Div.) 및 루이빌(Th. M.), 샌프란시스코 신학교(Ph. D.) 졸업.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독일 본대학,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 연세대학교신과대학 교수, 학생처장, 교목실장. 장로회신학대학교수, 학감, 학장. 전국신학

Disciples Publishing House, published by Chong-Ro Book House, 1996.

41) *Deluxe Color Study Bible*, Agape Publishing Co., 1996.

42) *CLS Study Bible*(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96).

43) *Tyrranus Study Bible*.

44) *Big Bible: Commentaries, Introductions and Analyses of Books, 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Language, Guide of Road-Through and Essential Point, Essential Q.T., Hymnal Accordance with Biblical Verse, Book Markers, Characters and Unique Charts with Pictorial Maps and Color Bible Maps* (Bible Study Material Publisher, 1997).

45) *Pocket Bible*.

대학협의회 회장, 동북아신학교협의회회장, 한국신학교육원 한국신학연구소 이사장,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장 등 역임. 현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 3. 해설 성서의 공헌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한 해설 성서는, 아래에서 비평적으로 지적될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이다. 다음과 같이 열 분야에서 그 공헌을 평가해 본다.

1) 교인들의 관심을 “성서를 연구하는(Bible STUDY)” 것에서 “연구하는 성서(Study BIBLE)”로 돌렸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사경회의 오랜 전통 때문에 “성경공부”가 다른 어느 나라 교회에 비해 활발하게 발전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성서 연구” 혹은 “성경 공부”에서는 “성경”이나 “성서”는 “공부”나 “연구”를 수식하는 구실밖에 못했다. 공부나 연구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틀 속에서 우리는 성경 “공부”나 성서 “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해설 성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영어 제목이 주로 Study Bible로 소개되면서, “공부”나 “연구”가 “성경”이나 “성서”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고, 성서 자체가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성서 연구 교재보다는 성서 자체가 우리의 관심이 되도록 의식을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스터디 바이블이 이룩한 공헌을 인정하고 싶다.

2) 다양한 해설 성서의 출판은, 교인들에게, 성서는 해설과 주석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읽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3) 다양한 해설 성서의 출현은 평신도의 성서 연구를 자극하였다. 성서 해설이나 주석이 목회자나 신학자의 전유물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평신도들은 이제 자신들 스스로도 이런 종류의 해설 성서나 주석 성서의 도움을 받아 성서를 독자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4) 목회자의 자질 향상에도 한 몫을 하였다. 일반 평신도의 성서 연구 수준의 향상은 그들에게, 목회자의 설교와 성서연구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안목을 가지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더욱 심도 있는 성서 연구를 하도록 자극을 주었다.

5) 성서학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해설 성서의 제작은 성서학계가 주선한 것이 아니고, 일반 상업적인 출판사가 주도하면서 성서학자들을 집필자로 번역자로 감수위원으로 또는 편찬위원으로 초청하기에 이른 것이었으므로, 해설 성서 출판의 활성화는 성서학자들에게도 성서해설이나 주석을 쓰게 하는 자극제와 계기가 되었다.

6) 지난 20여년 동안 여러 형태의 해설 성서를 출판한 우리나라 출판계가,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의 유명한 해설 성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것도 큰 소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46)</sup>.

7) 성서 본문 이해를 위한 각종 도표와 도량형 비교표 및 성서 지도를 제작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8) Q.T.와 성서의 연결은 양자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었다. 성서를 떠난 Q.T.의 위험성과 명상과 반성과 실천이 없는 성서 연구는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마 7:21-23; 요 8:51).

46) 예를 들면, *The New Chain-Reference Bible* by Frank C. Thompson; *The New Scofield Reference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The New Oxford Annotated Bible :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The Ryrie Study Bible: New American Standard Bible* (Chicago Moody Press, 1976); *Lindsell Study Bible: The Living Bible* (Wheaton: Tyndale House, 1980); *The New Jerusalem Bible* (Garden City: Doubleday, 1985); *The NIV Stud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5).

9) 관주와 소제목을 발전시켰다.

10) 국내 굴지의 기독교 출판사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더 좋은 해설 성서를 만들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였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전체의 지적 재산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 경험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 4. 독자의 질문을 외면한 해설 성서

“연구용 성서(study Bible)” 혹은 “주석 성서(Commentary Bible)”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 곧 성서 자체 내의 상충되는 내용,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본문, 문장 구실을 못하는 비문(非文), 난해한 한문투의 본문 등에 대해서는 대답을 시도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말 해설 성서의 대다수는, 정작 독자들이 물어오는 본문,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본문, 우리말로 말도 되지 않는 본문 등은 모두 피해가고 있다. 도대체 해설 성서가 일반 독자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오히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각 문단의 요약은 사실상 본문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다. 우리의 기존의 해설 성서들은 모두 주석적 전통을 따라 성서에서 출발하여 독자에게 성서의 내용을 주입시킨다. 그러나 해설 성서의 발생은 성서 독자의 독서 행위를 돕는 것이었다. 독자의 질문에서 출발하여 성서의 진리를 열어 보여주는 것이 그 본래 기능이다.

##### 4.1. 성서 안에 상충되는 내용

(1)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신 날은 언제인가? “여섯째 날” (창 1:1-31), “일곱째 날” (히브리어 본문 창 2:2),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창 2:2) 등으로 나온다. “일곱째 날”과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는, 시간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는 날에는 먹은 사람이 죽는다고 했는데 (창 2:17), 아담과 이브는 그 과일을 먹었는데도 죽지 않았고 (창 3:7), 오히려, 아담의 경우는 930세까지 살다가 죽는다 (창 5:5).

(3) 레위인 남자의 수는 모두 몇 명이었는가? “22,300 명”이라고도 하고 (민 3:21-37의 합계), “22,000 명”이라고도 한다 (민 3:39).

(4) 다윗이 거느린 마병의 수는? “1,700”으로 나오기도 하고 (삼하 8:4), “7,000”이라고도 한다 (대상 18:4).

(5) 다윗이 무찌른 아람 군대의 병거 수가 “700”으로 나오기도 하고 (삼하 10:18), “7,000”으로 나오기도 한다 (대상 19:18).

(6)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긴 이가 “여호와”로 나오는가 하면 (삼하 24:1), “사단”으로 나오기도 한다 (대상 21:1).

(7) 군인의 수와 유다 사람의 수가 한 곳에서는 “80만 군인에 50만 유대인”이라고 나오고 (삼하 24:9), 다른 한 곳에서는 “110만 군인, 47만 유대인”이라고도 나온다 (대상 21:5).

(8) 솔로몬의 외양간 수가 “4,000”이라고 보도되기도 하고 (대하 9:25), 무려 10배가 되는 “40,000”이라고 보도되기도 한다 (왕상 4:26).

(9) 같은 대상의 계수가 에스라(2:3-64)와 느헤미야(7:8-66)에서 서로 달리 나온다. 팔호 바깥의 숫자는 에스라, 팔호 안의 숫자는 느헤미야에 기록된 것이다. 아라 자손: 775 (652), 바합모압 자손 2,812 (2,818), 샷두 자손 945 (845), 바니 자손 642 (648), 브베 자손 623 (628), 아스갓 자손 1,222 (2,322), 아도니감 자손 666 (667), 비그왜 자손 2,056 (2,067), 아딤 자손 454 (655), 베새 자

손 323 (324), .....

(10) 야이로의 딸이 한 곳에서는 완전히 “죽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마 9:18), 다른 한 곳에서는 거의 “죽게 되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막 5:23; 눅 8:42).

(11)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고치신 맹인이 한 곳에서는 “둘”이고 (마 20:29-31), 다른 곳에서는 “하나”이다 (막 10:46-47; 눅 13:35-38).

(12) 맹인을 고쳐주신 것도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였다고 하는가 하면 (막 10:46-47; 눅 13:35-38), 또 달리 “떠날 때”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마 20: 29-31).

(13) 마가 1:1-3에서 인용된 구약 본문의 출처가 마가복음서 자체에서는 “이사야” (막 1:2)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은 “말라기” 안에 들어 있다 (말 3:1).

(14) 스가라의 아버지가 한 곳에서는 “바라가” (마 23:35), 다른 한 곳에서는 “여호야다”이다 (대하 24:20-21).

(15)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을 때의 제사장이 한 곳에서는 “아비아달” (마 2:25-26)이고 다른 한 곳에서는 “아비멜렉”이다 (삼상 21:1-2, 6).

(16)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간 사람의 수가 신약에서는 “75명인데” (행 7:14), 구약에서는 “70명이다” (출 1:5).

(17) 세겜에 있는 땅은 “야곱”이 산 것이라고도 하고 (수 24:32; 창 23:2-20), “아브라함”이 산 것이라고도 한다 (행 7:16).

(19) 염병(染病)으로 죽은 자의 수가 한 곳에서는 “24,000명”이고 (민 25:9), 다른 곳에서는 “약 3,000명”이고 (출 32:28), 또 다른 곳에서는 “23,000 명”이다 (고전 10:8).

(20) 구약에서 실제로 스가라가 한 말(속 11:13)인데, 신약에 인용될 때에는 그것이 예레미야가 한 말로 되어 있다 (마 27:9-10).

#### 4.2.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본문

(1) “여호와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시 16:5)

(2)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시23:5)

23편 1-6절의 전체 내용은 잘 이해가 될 뿐 아니라 은혜스럽기까지 하여 암송하다시피 하는데,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구절은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가 일수다. 정작 그 뜻을 물어 보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기가 예사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을 원수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밥상(床)을 차려주시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랑프리상(賞)이라도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한글 세대의 한계라고 치더라도,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이 시를 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는 것이라는 쪽으로 상상을 확대해 나가는 독자도 있다. 그러나 왕이나 메시아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은 히브리어 “마삭흐” 동사이고, 여기 우리 본문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다산” 동사로서 “아무개를 귀한 손님으로 맞이한다”는 뜻이다.

(3)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시 60:7-8)

(4)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 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시 84:5-6)

(5)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 하는 것은 편 솥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잠25:21-22)

이 구절을 읽는 기독교 독자들은 21절을 읽으면서는 이 내용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한 예를 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2절에 와서 당황한다. 곤경에 처한 원수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마치 “편 솥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고 했으니, 결국은 그러한 원수 사랑은 원수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힌다. 편 솥을 사람 머리 위에 놓아 그 사람으로 화상을 입게 하거나, 편 솥의 화력 정도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니, 독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편 솥을 아무개의 머리 위에 놓는다는 것은 “얼굴을 뜨겁게 한다” “부끄럽게 한다”라는 뜻이다.

(6)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호 1:4)

(7)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호 4:8)

(8)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와지게 하고”(암 6:3)

(9)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은 1:14)

(10) “그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눅 13:1).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 오는 독자들이 더러 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물어오는 이들 나름대로 각자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되물어 보면서, 그들의 오해를 확인하곤 한다. 독자들의 생각을 들어 보면, 일반적으로는 독자들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자에 따라서는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희생제물에다가 사람의 피를 혼합해 넣는 것으로 이해한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피를 채혈(採血)하여, 그들이 바치는 희생제물에다 그 피를 섞어 넣은 것이라고 이해한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의 희생제물에 사람의 피를 섞으므로써, 제물과 제사행위 자체를 모독한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과 뒤섞이게 하였다는 것이다.

(11)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히 11:13)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장이다. 믿음의 조상들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와 같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특징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특히 아브라함의 경우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사와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히 11:9) 라는 말에서 보듯이 “약속을 받고” 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11장 13절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는 진술이 있다. 독자들은 여기에서 두 가지 점에 의문을 갖게 된다. 하나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의 뜻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고, 과연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



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약속”도 받은 바가 없었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으며, 그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뜻한다.

#### 4.3. 다른 뜻으로 읽을 수 있는 본문<sup>47)</sup>

(1)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發明)할 것이 이것이니”(고전 9:3). “발명(發明)하다”는 옛말에서는 “변명(辨明)하다”를 뜻했지만 지금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다”를 뜻한다.

(2)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숙곳에 이르니”(출 12:37). “발행(發行)하다”는 옛말에서는 “출발(出發)하다”를 뜻했지만 지금은 “출판(出版)하다”를 뜻한다.

(3) “그 형들이 ...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不平)하였더라”(창 37:4). “불평(不平)하다”는 옛말에서는 “평화(平和)롭지 못하다”를 뜻했지만, 현대어에서는 “불만(不滿)을 말하다”를 뜻한다.

(4) “개동시(開東時)에 사람들과 나귀를 보내니라”(창44:3)

(5)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지단(半日耕地段)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이십인 가량이라”(삼상14:14)

#### 4.4. 비문(非文)

(1) “여호와와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암5:20)

(2)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유15)

#### 4.5. 사실과 다른 진술 (예1)<sup>48)</sup>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궁하지 말라”(롬 11:17-18).

바울이 말한 이 비유는 원예 기술상으로 불가능한 진술이다. 도시 출신인 바울이 원예(horticulture)의 한 방법인 접붙이기(grafting)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지식은 없었던 것 같다. 주석들마다, 바울이 의도한 바를 이해하고 그 의도를 설명하기는 하면서도, 바울의 이 비유가 원

47) 이런 종류의 난해구를 설명한 것으로서는 (주)아가페서원의 『디럭스 컬러성경』이 있다. 이것은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1961)의 어려운 한자어, 한자에서 유래한 말들의 사전상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점에 있어서 다른 해설 성서들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48) 왕상 7:23에 진술된 바다(저수통)의 둘레 측정에 문제가 있다. 둥근 모양의 바다의 직경이 10규빗이면, 원의 둘레는 직경에 파이(3.14)를 곱하여 얻는 것이므로, 그 둘레는 30규빗이 아닌 31.4 규빗이어야 한다. 마 13:32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 ” 라는 진술이 있다. 겨자씨보다 작은 씨로는 난초(orchid)씨, 상추(lettuce)씨 등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요 12:24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오늘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틀린 진술이다. 씨앗이 죽으면 절대로 싹을 내지 못한다. 씨앗은 자체 내의 생명력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한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약 5:3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하고 말한 진술이 있다. 은은 녹이 슬 수가 있다. 그러나 금은 절대로 녹이 슬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의 상식이다.

에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한 비유임을 지적한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접붙임에 관한 비유는 이미 오리겐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서로 다른 두 나무를 접붙이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정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농촌 출신이 아니고 도시 출신이므로 이런 원에 기술을 비유로 사용하다가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본다.”<sup>49)</sup>

로마서 11장 11-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방 사람의 구원에 관하여 말하면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참감람나무가 된다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이고, 선택에서 제외된 이방 사람은 돌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어 참감람나무가 될 때, 그 접붙은 돌감람나무 가지가 본래부터 참감람나무이었던 가지들을 보고 우쭐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었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본래의 참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시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신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 접붙인 교만한 돌감람나무 가지를 다시 잘라내 버리실 수도 있다고, 바울은 경고한다. 비록 지금은, 참감람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얼마가 이 본래의 제 나무에서 잘리어 있지만, 전혀 다른 나무였던 돌감람나무 가지도 제 본성에 거슬러 참감람나무에 접붙을 수 있었는데, 하물며 그 잘려나간 본래의 가지들이 회개할 때 제 본래의 참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돌감람나무의 경우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기란, 일반 독자들에게 그리 어렵지는 않다. 그런데, 문제는, 접붙이는 것에 관한 일반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은 이 비유의 의도는 이해하면서도, 접붙이는 것에 관한 상식에 배치되는 이런 응용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접을 붙인다고 할 때에는, 바울이 이해한 것처럼, 좋은 나무에 나쁜 가지를 접붙여 그 나쁜 가지가 좋은 가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정반대로,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접붙이면 그 좋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고 한다.

우리말에 고욤 일흔이 감 하나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자질구레한 것이 많아도 큰 것 하나를 못 당한다는 말이다. 그러기에 일찍부터 농부들을 고욤나무에 감나무 가지를 접붙여, 고욤나무에서 감이 열리게 하는 일을 해 왔던 것이다. 감나무에 고욤나무를 접붙여 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감나무에 고욤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비록 그 가지는 감나무 뿌리에서 같은 양분을 빨아들여도, 여전히 고욤을 맺지 감을 맺지는 않는다고 한다. 고욤나무에 감나무가지를 접붙여 좋은 감을 얻는 것이다.

이런 원리에서 본다면,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인다고 해서 그 가지가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런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 가지가 붙어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므로, 참이스라엘이 이방 사람에게 접붙어 이방을 참이스라엘 되게 했다고 한다면, 모를까.

#### 4.6. 오해하고 있는 본문<sup>50)</sup>

우리말 『개역』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 하고 권면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본문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불행하게도 이 본문을 끝까지 다 읽고 곰곰이 생각함이 없이 서둘러 생각

49) Joseph A. Fitzmyer, *Romans*, The Anchor Bible, New York, 1993, p. 614.

50) 시편 23:5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를 “기쁨부어 메시야를 삼으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이사야 34: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상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라고 할 때 “이것들을”, 문맥을 따라 “집승들”로 이해하지 않고, 문맥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 혹은 우리의 “성경”으로 오해하는 것 등이다.

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는 이들은 이 본문을 몇 가지로 오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무엇인가를 긍정할 때는 꼭 옳다는 사실을 두 번 반복하여 “옳다 옳다 (Yes, yes)” 하고 말하고, 무엇인가를 부정할 때도 역시 아니라는 것을 두 번 반복하여 “아니라 아니라(No, no)” 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 하고 말하였으니, 이것은 “옳다”는 말이나 “아니라”는 말은 꼭 두 번만 말하고 세 번이나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말로 생각하는 것이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하라 그 이외의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오해하는 이들도 있다. 차라리 이 본문이 이러한 뜻이었어도, 한 사람의 평생을 지배하는 참으로 좋은 경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호한 번역문을 독자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서 지나는 것”도 “그 이외의 것”으로 해석해 버린다. 곧, 옳으면 옳다 하고 그르면 그르다고 해야지, 모호한 입장을 취하거나 양비론(兩非論)이나 양시론(兩是論)을 말하는 것은 다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에서는 흑백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오해보다는 좀 더 고상하지만 본문의 뜻은 이것이 아니다.

이 본문을, 매사에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두 번째 오해가 윤리적 결단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오해는, 의사 결정에 참여를 요청 받는 경우와 관련되어 있다. 기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면 가, 부면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기권과 같은 행위는 “이에서 지나는 것”에 속한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속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옳다고 하거나, 반대로 속으로는 기면서도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이다. 곧 “예”와 “아니오”를 올바른 의미로 쓰지 않고, 반대 의미로 쓰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외교관의 “예스”는 때로는 진정한 의미의 “예스”가 아니라, 모호한 입장을 취하거나 “노”를 말하기 위한 예비적 대답일 경우가 많다는 외교계의 말버릇을 염두에 두는 이들도 있다.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 예 하고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개역』 고후 1:17-19) 하고 한 말은, 겉과 속이 다른 예스와 노에 관하여 말한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뜻은 무엇인가? 사람이 살다 보면, “예”나 “아니오”를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본문은, 그러한 경우에는, 사람이 “예”나 “아니오”를 말하되, 맹세하는 말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신 말씀 속에 들어 있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각자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길 경우에는 다만 “예”라고만 하면 충분하고, 아닐 경우에는 다만 “아니라”고만 말하면 충분하다. 말하자면, “예, 그렇고 말고요. 만일 아니라면 내 목이라도 내놓겠소” 하고 말한다면, “아닙니다. 길 경우라면 내가 성을 갈아요” 하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경우라면, “예,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맹세코 그렇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하고 맹세하는 경우일 것이다. 최근의 새로운 번역들을 참고해 보면 그 뜻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 4.7. 번역본마다 다른 번역의 문제

##### 4.7.1. 본문 이해와 관련된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를 해방시키는 말씀이 있다. 마태 복음 6장 25-33절에 나오는 것으로서 도대체 걱정이란 것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말씀이다. 보통 사람들의 살림살이에서 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로서,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걱정거리인데, 예수께서는 일찍이, 사람의 의식주와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베풀어주실 것이므로,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곧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개역』 마태 6:34) 하고 하신 말씀은, 우리더러 그날 그날의 걱정은 하라는 것이어서, 도대체 걱정이라고는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는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은 곧, 오늘은 오늘 걱정만 하고, 내일은 또 내일에 할 걱정이 있는 것이니까, 내일 할 걱정까지 오늘부터 미리 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내일 걱정은 내일 가서 해도 된다는 것이어서, 전혀 걱정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앞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체 문맥을 고려함이 없이 마지막 한 구절만 똑 따서 본다면, 이 마지막 결론적인 구절도 만사를 지레 걱정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으로서 어떤 교훈적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도 있다. 하루하루 살면서 그 날 그 날 걱정을 하기에다 벽찬 세상에서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까지 걱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때문이다. 미래 학자들이나 환경학자들이 지구의 온실화라든가 대기권의 오염이라든가 오존층의 파괴를 걱정하면, 그것은 내일 할 걱정을 미리 끌어당겨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들의 걱정을 낮게 평가하거나 무시할 때 이 성경 구절은 좋은 구실을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도대체 걱정이라는 것은, 오늘은 물론이려니와 내일도 하지를 말라는 것이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하나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과 들에서 피고 지는 들풀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기르시듯이 그렇게 사람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걱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키 작은 사람이 키가 작다고 걱정을 태산 같이 한다고 해서 그의 작은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여러 새로운 번역들은 결론적인 말씀 34절을, 달리 번역한다. “그러므로 내일 걱정을 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 4.7.2. 본문비평과 관련된 것

위에서 이미 한 번 언급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신 날은 언제인가? 고대역과 사마리아 오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섯째 날” (창 1:1-31)인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일곱째 날”(히브리어 본문 창 2:2)인가, 우리말 『개역』에 반영된 것처럼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창 2:2)인가?

### 5. 우리말 해설 성서의 공통적인 문제점

1) 대다수의 경우 책임 집필자(들)이 명확하지 않다. 집필자들이 나와 있는 경우에도 어느 집필자가 어느 부분을 집필하였는지 밝히지를 아니한다. 이것은 과연 그들이 진정한 집필자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집필자나 해당 집필 부분을 못 밝힐 책이라면, 그 책의 출생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다른 출판사의 지적 재산권을 도용하는 경우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라면, 이것은 성서에 대한 오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편집의 경우, “편찬책임”이라는 용어를 쓴 해설 성서들도 있는데, 그것이 흔히 말하는 편집책임자, 혹은 주 편집자(editor in chief)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에게는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실천에 옮기는 편집 실무진이 있을 것이며, 편집을 한다고 할 때에는 이미 쓰여진 재료와 그 필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쓰여진 재료도, 그 재료의 집필자도 다 감추고, 번역인 경우, 번역자와 번역의 대본도 밝히지 아니한 경우가 허다하다. 출판사들이 아무리 학문적 정직성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설득력을 상실하고 만다. 싸구려 소설이나 주간지에 실리는 잡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감히 해설 성서의 경우에, 책임을 질 집필자나 번역자에 대한 공개나, 번역의 경우에, 번역 원본에 대한 자료 공개를 기피할 수 있는가? 그리고 편찬 위원 명단에 올라 있는 이들의 이름을 보면 그러한 해설 성서 편찬에 도저히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이들도 있어서 과연 그들이 그 편찬 과정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예를 들어본다. “이종성”이라는 이름의 해설 성서가, 필자가 조사한 대로는 네 권이 있다. 『통독용 큰 글자 만나성경』(성서교재간행사, 1993), 이종성 편, 『베스트성경』(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5), 『CLS 주석성경』(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New 베스트성경』(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7) 등이다. 그가 만사를 제쳐놓고 해설 성서 편집에만 몰두한다면, 이 정도의 일을 못할 학자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이 일을 맡아서 할 필자의 선정과 편집 활동과 집필의 시간 등을 고려하자면 각 권이 최소한도 10년 썩은 걸려야 하는 것들이다. 이 정도의 해설 성서라 하더라도 한 편집책임자가 평생에 한 두 권을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정직한 경험이다. 어떻게 매년 한 권씩 이런 방대한 해설 성서를 편집하여 출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욱이 이미 『CLS 주석성경』(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은 다른 이의 편집으로 다른 이름으로 출판되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자와 편집자의 이름을 바꾸어 마치 다른 책인 것처럼 나왔으니, 이런 현실을 보는 독자들이 해설 성서 전반에 관하여 가지는 불신은 독자의 책임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3) 번역이나 번안의 경우 그 기초 자료의 사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말하자면 수십종의 연구용 성서나 주석을 열거하면서, 그것들을 참고하여 편찬위원회가 편찬을 했다고 한다. 그 참고서를 보면 학문적인 것과 교조주의적인 것이 동시에 병렬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가? 항간에서 들리는 말로는, 판권 사용 허락을 받는 경우, 외국 출판사의 요구가 힘에 겹다고 한다. 그들이 그만한 해설 성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한 두 해에 만든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든 것인데다가, 우리나라의 출판사들처럼 매년 새로운 해설 성서를 계속하여 내는 그런 능력도 없는 출판사이고 보면, 해설 성서 제작에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이므로 그러한 지적 재산을 사용한다고 할 때에 그만한 요구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4) 본문 내용 자체가 제기하는 문제 중에 상당수가 다루어지지 않았다. 위에서 예를 든 것으로서, 성서 안에서 서로 상충하는 내용, 사실과 다른 진술 등에 대해서는 일반 독자들이나 성서 학도들이 수 없이 물어 오는 것들이다. 성서를 건성으로 읽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읽으면 어느 누구나 당면하는 문제들이다. 그런데 해설 성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다. 독자들의 질문은 외면한 채 집필자나 어느 교단의 교조적 교훈만을 주입하려는 데 주력한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5) 우리말 번역 자체가 제기하는 문제 역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본문이라든가, 비문에 속하는 본문이라든가, 오해받고 있는 본문들은 거의가 다 번역과정에서 생긴 것들이므로 해설 과정에서 해명되거나 바로잡아져야 한다.

6) 문단 단위 편집을 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해설 성서들이 문맥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기어

서 문단을 요약하고, 문단 별 강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편집에 있어서는 하나같이 문단을 무시하고 각 절을 독립시켜 편집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전혀 문단 자체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변명을 들어 보면, 절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한다. 한국교회 신도들의 성서 이해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성서 본문을 읽을 때 문맥을 무시하고 읽으므로써 성서 본문에서 엉뚱한 뜻을 읽어낸다는 것이다.<sup>51)</sup> 우리나라 성서 독자들을 오도한 배후에는 이러한 문단 파괴 편집이 크게 일조를 했다는 비평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7) 『개역』과 페이지를 맞춘다는 것은 무리이다. 해설 내용이 매 페이지마다 동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이 유지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해설할 내용이 많은 페이지도 있고, 해설할 내용이 적은 페이지도 있기 마련이다. 『개역』 성서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성서공회가 매 페이지 1/3 분량에 해설을 넣기를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일반 출판사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요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아는 출판사들은 그런 요구가 나오게 된 원인을 제거한다면, 현명한 타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성서 각 권별로 볼 때, 주석 성서의 경우는 해설 분량이 성서본문보다 두 배나 세 배 정도 많을 수 있다. 해설 성서일 경우에는 성서 본문과 해설 본문의 분량이 거의 같게 조정될 수도 있다. Q.T.의 경우는, 성격상 그 분량이 성서 본문의 분량보다 많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8) 번역본들 사이의 서로 다른 번역에 대한 설명이 없다. 우리 번역만 하더라도 『개역』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등 여러 번역이 있고, 오늘날 신도들 중에는 영 독 불 등 외국어 번역을 읽는 이들도 많은데, 이들 번역들 사이의 차이점들 중에는 번역 기술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른 본문, 혹은 서로 다른 본문비평의 결과에 기인된 것도 있는데, 이것 역시 해설 성서에서 제한적으로라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9) 성서 독자의 독서를 돕는 해설 성서 본연의 분야가 흐려지고 있다. 해설 성서와 주석 성서는 분리되어 발전되어야 한다. 주석 성서는 성서학자들이 성서의 메시지와 핵심을 말해 주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해설 성서는 성서 독자로 하여금 성서 본문을 읽고 이해하도록 돕고, 읽으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시도하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Q.T.는 독자적으로 발전해야 할 제 3의 분야이다.

10) 대다수의 일반 출판사들이 거의 유사한 성격의 해설 성서를 제작하였다. 이제는 개성 있는 해설 성서, 여러 층의 독자에게 개별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해설 성서가 필요하다. 어린이를

51) 사 34:16 “너희는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와 입을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고 말하는 구절을, 전후의 문맥과 무관하게 독립시켜 읽으므로써, “짐승들”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감받은 “성경 말씀”을 일컫는 것이라고 여겨, 이 구절 전체를 성서영감설의 근거 구절로 삼는 이들이 많다. 욥 8:7에 나오는 수아 사람 빌닷의 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를, 누가 한 말인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그저 성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느냐는 식으로 인용한다는 것이 모두 단락을 읽지 아니한 데서 오는 오독이다. 또 앞 뒤 문맥을 다 자르고 보면, 성서 안에는 “금신상에게 절하라”(단 3:5)는 말도 있다. 성서에 있다고 마구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서의 말씀이라고 하겠는가?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잠 7:18-19). 이 말도 우리더러 실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구절이 비록 『욥기』에서 인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한 말도 아니다. 하나님의 꾸중을 받은 욥의 친구들 중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다. 욥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말 외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과 부스 사람 엘리후 등, 욥의 친구들의 말도 함께 나온다.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장황한 연설은 욥기의 신학에서는 부정되는 신학이다. 욥의 친구들의 설교는, 결국 욥 자신의 하나님 체험 신앙에 의해 그 가치가 부정당하기 위해 진술된 말들일 뿐이다.

위한 해설 성서, 중학생을 위한, 고등학생을 위한, 대학생들을 위한, 젊은이를 위한, 여성을 위한, 장년을 위한, 노인을 위한 해설 성서 등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 6. 몇 가지 제언

### 6.1. 출판사에게

(1) 독자 중심의 해설 성서를 만들자. 우리나라 신도들이 우리말로 번역된 성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이해 못하는지, 무엇이 어렵다고 묻는지, 어떤 본문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지를, 독자들에게 먼저 물어서 독자들이 모르겠다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그런 해설 성서를 만들어 보기를 바란다. 약 만 여 명으로부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물어 오는 본문을 수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어려운 본문일 것이다. 바로 그런 본문을 해설해 주는 성서가 필요하다. 신도들의 질문은 신학적으로나 성서학적으로 때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한다. 그들의 문제에 대답해 주어야 한다.

(2) 우리의 목회자를 필자로 하여 해설 성서를 만들자. 해설 성서는 성서학자나 되어야 쓸 수 있는 그런 학문적 서적일 필요는 없다. 일반 교인들과 늘 가까이에서 있는 이들이 바로 교인들의 질문 현장에 가장 가까이서 있는 목회자들이다. 지금까지도 그들이 늘 일반 신도들의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 왔다. 목회자들은 해설 성서를 쓸 수 있는 집필자들이다. 성서 주석은, 성서 학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마당이지만, 해설 성서는, 성서를 읽는 독자들이 모르겠다고 물어 오는 질문에 대답을 시도하는 마당이다.

(3) 믿지 않는 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해설 성서를 만들자. 이제 성서는 보급될 만큼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883년이래 2001년 상반기까지, 『성경전서』는 2천 8백 80여 만 권이 보급되었고, 『신약전서』는 5천 7백 50여만 권이 보급되었고, 단편은 7천 3백 90여 만 권이 보급되었고, 점자성서는 14만 9천여 권이 보급되었고, 성경 본문이 들어가 있는 전도지는 10억 5천 6백 60만 여권이 반포되었다. 지난 2001년 5월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sup>52)</sup>, 성서 보급은 약 12억 1,700 여권에 이른다. 전도지 10억 5천 6백 60만여 권을 빼다해도, 성경 보급은 1억 6천 40만여 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기독교 인구가 불교 인구의 분포가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남한의 경우 약 4천만 명이다. 그 가운데에서 종교 인구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2천만 명이고, 2천만 명 중에서는 그 절반이 불교인이고 나머지 절반이 기독교인이다. 이 통계는, 우리 인구 중에 3/4에 해당하는 3천만 명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를 모르거나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우리 인구의 3/4은 우리 교회가 현재 형태의 선교 방식으로는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하거나 기독교를 이해하게 하거나 혹은 기독교 안으로 이끌어 들이기에는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들은 우리말로 번역된 성서가 있어도 안 읽는 이들이다. 그들에게 성서를 접근시키는 길은 비기독교인을 위한 해설 성서를 연구하고 만드는 일이다. 남한만이 아니다. 이제 곧 통일을 대비하여, 유물론과 무신론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북한의 지식인을 위한 해설 성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4) 타종교인이 기독교의 경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설 성서를 만들자. 베드로 사도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교회의 신도들에게 한 편지의 대목에 이런 말이 있다.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와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전혀 종교를 갖지 아니한 이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내용과 이유

52) 『대한성서공회 제95회 정기이사회 (자료)』 (대한성서공회, 2001.5.17), 32 쪽.

를 물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는 거기에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 일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타종교와 불필요한 갈등을 조성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정의와 창조세계의 보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타종교를 믿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 내용에 관해 기독교인들의 희망에 관해 물어올 수 있고, 그럴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우리 신앙의 내용과 이유를 그들에게 말해주어야 할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은 더 높아져 가고 있다. 우리 인구의 3/4중에서 누군가가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기독교의 신앙 내용과 이유에 대하여 물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벧전 3:15).

(5) 호화장정을 피하고 싼 값으로 보급하자. 검은 소가죽 책표지에 금박 글씨, 세 면으로 돌아가며 금박으로 입히고, 본문과 해설을 여러 가지 색도(色度)로 분장을 시키는 호화장정은, 우선 세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로는 성서를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성서가 천박하게 보이게 한다. 둘째로는, 그러한 인쇄와 제본이 심각한 공해 사업이라고 하는 점이다. 셋째로는, 스테디 바이블 본래의 정신에 어긋난다. 공부하는 이들이 보는 교재나 참고서가 것처럼 호화스럽게 장정을 하고 나오는 것은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넷째로는, 실수요자인 성서학도에게는 비싼 성서가 되고,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는 선물로나 주고받는 상품으로 전락해 버린다. 이렇게 하여, 다시 첫 번째 문제로 되돌아가 건전하지 못한 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 6.2. 명성을 지닌 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자신의 이름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아무개” 하면, 다 아는 이름일수록 허명(虛名)으로 이용될 기회가 많다.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그 이름이 늘 존경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필자 한 사람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편집 책임자나 편집위원이라는 직책을 맡기로 하였으면, 그 이름에 마땅한 임무를 다 하는 것이 이름을 존귀하게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감수자가 되었으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감수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감수 결과를 서문에서 밝히면 독자들은 그만큼 더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집필자가 집필 실명제를 스스로 지킬 때 독자들도 그의 이름을 지켜줄 것이다.

## 6.3. 해설 성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출생이 불분명한 해설 성서는 흠친 물건과 같은 것이므로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 한 출판사에서 출판된 것을, 다른 출판사가, 바로 그 같은 해설 성서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이고 다른 편집자가 편집한 것처럼 편집자를 바꾸어 출판하는 경우에, 혹은 같은 출판사라 하더라도 같은 출판물을 책이름을 바꾸고 편집자를 바꾸어 버젓이 상품으로 내놓을 때에, 독자는 자신이 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편집 책임자나 편집위원이나 집필위원이 허명일 것이라는 의심이 생길 때에는 해당 출판사나,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에게나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

## 6.4. 판권 사용을 허락하는 기관에게

(1) 대한성서공회와 같이 성서를 번역하는 기관은, 판권 사용을 허락 받은 다른 출판사들이 본문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늘 관찰해야 할 것이다. 판권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지적 재산권의 소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문의 변경을 막고 본문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도 판권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판권 사용을 허락 받은 출판사들이 본문에 어떤 편집상의 변경을 가하거나 단락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 올 때에는 쌍방 간에 충분한 연구와 토의가 이루어져서 합의에 이르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 한 권의 해설 성서가 완성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일반 출판사에서 판권 사용 신청을 해 올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판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한 다음에는, 작품 완성 기간까지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 구약을 중심으로 -

王大일\*

## 1. 우리말 해설 성서에 대한 서평이 필요한 이유

최근 대한성서공회는 두 종류의 우리말 해설 성서를 출판하였다. 1997년에 나온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이하 『해설·관주 성경』)와 2001년에 나온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이 바로 그것이다. 외국의 경우 새 책이 출판되면 대개 그 책에 대한 서평이 곧장 그 뒤를 따르게 된다. 독자들에게 그 책에 대한 개요, 특징, 내용, 비평 등을 간략하게(그러나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독서를 위한 건전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서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풍토에 본격적인 서평이나 논평이 뿌리를 내렸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 학계나 우리 독서계는 다른 사람의 작업을 논평하기에도, 다른 사람의 논평을 듣기에도 아직 익숙하지 못하다.

서평은 해설 성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나 계간지 등에 해설 성서에 대한 논평과 비평이 심심치 않게 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이를테면 『캠브리지 주석 스테디 바이블』(*The Cambridge Annotated Study Bible*), 『하퍼콜린스 스테디 바이블』(*The HarperCollins Study Bible*), 『NRSV 스테디 바이블』, 『NIV 스테디 바이블』에 대한 서평이나 논평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sup>1)</sup> 이 서평들은 모두 해설 성서를 활용하는 독자들에게 그 책에 대한 학문적, 신앙적, 실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한성서공회의 성경원문연구소에서 『성경원문연구』 제 9호에 해설 성서에 대한 특집을 신기한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우리말 해설 성서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본격적으로 회고하고 점검하고 조망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서평과 논평이 필요한가?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그 동안 우리 주변에서 출판된 술한 우리말 해설 성서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 교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해설 성서는 대부분 그것을 집필한 사람의 이름을 싣고 있지 않다. 누가 책임지고 저작에 관여했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해 놓았다는 이야기이다. 외국의 저명한 해설 성서를 번역(또는 번안) 했다고는 하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다. 신구약성서에 정통한 학자나 목회자들의 책임 집필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출판된 여러 해설 노트들을 짜깁기 형식으로 모아 놓은 듯한 책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말 해설 성서에 수록된 해설과 난외주의 저급한 수준(?)은 다 이런 잘못된 관행의 열매라고 보아야 한다. 혹 편집이나 출판에 간여한 저명한 학자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허명(虛名)으로 끝나고 만다. 그 저명한 학자의 동일한 이름이 여기 저기에서 출판된 해설 성서의 편집위원으로 반복 등장하는 경우가 하나 둘

\* 감신대 교수, 구약학.

1)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성서공회 성서학문헌정보자료실에서 두 권으로 정리해 놓은 『성경원문연구소 연구자료-주석성경(Study Bible) 자료집』을 참조하라.

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말 해설 성서에 대한 비평과 논평은 이렇게 잘못된 우리 해설 성서의 풍토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불충분한 해설 성서의 피해는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가 입는 것이 아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교회의 몫으로 남는다.

그러나 해설 성서에 대한 서평이 필요한 진정한 이유는 이렇게 부정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해설 성서에 대한 서평이 진정 필요한 이유는 어렵게, 오래, 공들여, 값비싸게 만들어서 출판한 해설 성서를 오래도록 교회가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한 번 출판하고 마는 책이 아니라 개정판(revision)을 거듭하여 보다 나은(!) 해설 성서가 될 수 있도록 다듬어가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해설 성서에 대한 집필자의, 전문가의, 목회자의, 독자의 반응(feedback)이나 평가, 비평이나 제언 등을 지속적으로 듣고 적극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그렇듯이 해설 성서도 한 번 출판하고 마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 해설 성서의 작업은 정작 책을 출판한 이후부터 더 끈기 있게 지속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간행된 해설 성서에 “확장되고 개정되었음”(Expanded and Updated)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음을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된다. 우리말 해설 성서에 대한 서평과 논평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2. 『해설·관주 성경』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 대본상의 차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해설·관주 성경』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서로 다른 책이다. 이름이 달라서 서로 다른 책이 아니라 책의 성격과 특징이 서로 다르기에 다른 책이다. 물론 이 두 권의 해설 성서는 모두 외국 성서공회에서 펴낸 해설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개역 한글판』에다가 독일성서공회에서 간행한 해설 노트를 첨부해 놓은 책이 『해설·관주 성경』이고, 미국성서공회의 성경본문인 『굿 뉴스 바이블』에다가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붙인 해설(*Good News Study Bible*, 이하 GNSB)을 『개역 개정판』에 첨부해서 펴낸 책이 우리말로 된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이다.

두 해설 성서 사이에는 대본(臺本)의 활용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다. 『해설·관주 성경』의 발간사, 머리말, 일러두기 등에는 이 해설 노트가 대본으로 삼은 성경본문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놓지를 않았다. 독자들이 미루어 짐작하기는 그것이 아마도 루터 성경 개정판이나 현대 독일어 성경일 것으로 추정되나, 『해설·관주 성경』의 머리말에서는 이런 점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말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경우에는 우리말 개역 개정판 본문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 미국성서공회의 성서 본문인 『굿 뉴스 바이블』(*Good News Bible*, 이하 GNB)의 번역을 참조했음을 밝혀놓았다.

해설 성서에 수록된 해설 노트가 어느 성경 본문을 원문으로 사용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해설·관주 성경』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해설·관주 성경』의 해설 방식이 문제가 되는 구절을 풀이해 주는 난외주나 난하주 형식이 아니라, 성서 본문의 각 문단 맨 밑에 지금까지 읽은 본문 전체를 해설해 주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에도 이런 식의 해설이 문단 맨 앞에 (맨 뒤가 아니라)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성서 본문에서 돋보이는 것은 문단에 대한 그런 해설보다는 난하주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는 본문의 구절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 이런 구절풀이 식의 해설이 『해설·관주 성경』에는 없다. 그런 까닭에, 어떤 번역 본문을 해설 성서가 그 대본으로 삼았는지를 묻는 질문이 『해설·관주 성경』의 입장에서는 굳이 제기될 필요가 없다. 본문과 그 본

문에 대한 해설을 위주로 하는 작업에서는 원문으로 삼은 외국어 해설 성서와 우리말 성서 본문 사이에 존재하는 본문상의 이독(異讀) 문제가 그리 큰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에 사용된 성서 본문은 1998년에 출간된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다. 여기에 붙은 해설은 미국성서공회의 GNSB의 해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 GNSB의 해설 노트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는 원전의 대본(GNB)과 우리말 성서(『개역 개정판』) 사이에 본문상의 이독(異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곧 우리말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에는 GNSB의 해설 노트만이 아니라 GNB의 성서본문과 우리말 본문 사이에 존재하는 본문상의 “다름”도 반영되어야 하는 이중 과제가 드리워져 있다.

창세기 1:1-2에 대한 두 해설 성서의 해설을 비교해 보자. 『해설·관주 성경』은 창세기에 대한 “안내”, “창조와 원역사(1-11장)”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창세기 1:1-2에 다음과 같은 해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성경의 첫 문장은 기본 신앙 고백을 표현한다. 곧 존재하는 모든 것(천지)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우연이나 순전히 자연적인 원인들의 작용에 힘입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물의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있다. 창조하<sup>다</sup>로 번역한 히브리 낱말은 무엇을 무엇으로부터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주권자답게 무엇을 ‘무에서’ 불러낸다는 뜻이다. 이에 맞도록 뒤이어 나오는 창조 본문에서 새 창조 작업마다 창조주가 권능 있게 명령하시는 말씀(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 33:6, 9; 롬 4:17 참조)으로 시작된다. 『요한복음』의 첫머리는 생명과 구원의 능력인 이 말씀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시고, 또 인격을 지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요 1:1-14)는 점을 지적한다.

2절에 따르면 창조는 모양이 없고 스산한 원초 상태(혼돈하고 공허하며)에서 시작된다. 여기에는 옛 중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던 생각이 깔려 있다. 태초에는 혼돈, 곧 생명도 생명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가 있었고 땅은 어두움과 넘실거리는 물(깊음이 이를 뜻한다)로 덮여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창조의 기본 행위를 경계 설정과 분리,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의 제정으로 이해하였다(이러한 관점이 10절까지의 묘사에 지배적이다).- 신으로 옮긴 히브리 말은 숨, 바람을 뜻한다. 하나님의 살아 있는 숨, 생명을 창조하는 숨이 잔잔하거나 출렁거리는 물 위에서 ‘움직이신다’(아마도 운행하시니라 대신에 ‘자신을 움직이시니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독자들에게 창세기 1:1-2의 의미를 설명해 놓은 해설이다. 이처럼 『해설·관주 성경』은 본문의 뜻을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풀이하는 데 해설 노트의 일차적 목적을 두었다(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다루게 된다). 위 인용문 가운데 2절에 대한 해설 마지막에 나오는 “신으로 옮긴 히브리 말은 숨, 바람을 뜻한다”거나 “아마도 운행하시니라 대신에 ‘자신을 움직이시니라’로 옮겨야 할 것이다”와 같은 노트는 본문상의 이독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의 번역과 관련된 풀이이다.

이에 비해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창세기 1:1-2를 이렇게 해설한다. “창세기 개론”, “우주와 인간의 창조(1:1-2:25)”에 대한 해설, “천지창조”에 대한 해설에 이어서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난하주에 이렇게 해설하고 있다.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기 시작하던 때에”로도 번역할 수 있다.

천지 번역본에 따라서는 “우주”. “하늘과 땅”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언급하는 방식이다.

창조하시니라 이 히브리 낱말은 오직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된다.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있던 것이라고는 황폐하고 아무 모양이 없는 텅 빔뿐이었다(비슷한 언어인 사 34:11; 렘 4:23을 보라).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번역본에 따라서는 “모든 것을 덮은 사납게 날뛰는 바다가 깊은 어둠 속에 묻혀 있고(시 24:2). 바다와 흑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 존재했던 생명 없는 혼돈의 상태를 가득 채우고 있다.

하나님의 \*영은 또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바람”이나 “무시무시한 바람”으로도 번역된다.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 낱말은 “숨”, “바람”, “권능”으로 번역되며,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이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본문에서 이 구절은 “강력한 바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수면 또는 “형체가 없는”.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해설에서는 “번역본에 따라서는....”, “또는 .....”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이것은 본문 GNSB의 해설 노트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거나, 우리말 『개역 개정판』과 GNB 사이의 이독을 본문 비평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과정을 해설 노트에 반영시킨 결과이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해설 노트에 반영된 GNB 성서 본문은 원문의 의미를 현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시도된 현대어 번역이다. 성서의 내용과 메시지를 표준적이고도 일상적이며 자연스러운 현대어로 표현하는 것을 번역의 기본지침으로 삼았다. GNB의 구약은 『슈투트가르트엔시아판 히브리어 성서』(*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의 마소라 본문을 대본으로 삼았다. 그렇지만 GNB는 때때로 마소라 본문을 이탈하고 있다.<sup>2)</sup> 인쇄된 자음본문을 해독함에 있어서 자음글자들의 분절을 마소라 본문과 다르게 하거나 마소라 본문의 독법과 차이 나게 읽기도 한다. 종종 히브리어 본문의 난 외에 표시된 이독(케레)을 본문의 읽기(케티브)로 수용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독이 히브리어 사본 하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번역의 대본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만약 히브리어 사본들이 문맥상 만족할 만한 의미를 제공하지 않으면 GNB는 여러 옛 번역본(예, 그리스어, 시리아, 라틴어)의 증거를 따르거나 학자들이 일치된 목소리로 재구성한 본문(conjectural emendation)을 번역의 대본으로 수용하였다. 그 결과가 GNSB의 해설 노트에 표시되었고, 우리말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그것을 우리말로 옮겼다.

대한성서공회가 2001년에 출판한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의미의 동등성에 따라 이루어진 번역 본문(GNB)과 직역에 충실한 우리말 『개역 개정판』을 서로 보완해서 읽을 수 있게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개역 개정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적 번역을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해설에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말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난하주에는 히브리어 원본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과 관련된 본문 비평적인 검토를 번역에 반영시켜 놓았다는 GNSB의 해설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GNB와 우리말 『개역 개정판』 사이에 존재하는 본문상의 이독이 반영되어 있다.

### 3. 『해설·관주 성경』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 해설 방식의 특징과 그 차이

대한성서공회가 발간한 『해설·관주 성경』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모두 성서 본문의 맥(脈)을 짚어주고, 본문의 문학적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밝혀주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에 해설을 붙이는 장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책은 크게 두 종류의 해설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는 본문에 대한 안내이고, 다른 하나는 본문 가운

2) "Preface," in *Good News Study Bible*, p. xv. 이 서문은 『굿 뉴스 바이블』이 언제, 무슨 이유로 맛소라 본문을 이탈하고 다른 본문상의 증거들을 번역의 대본으로 삼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다. 우리말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이 점을 주의 깊게 취급하였다. 우리말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개역 개정판』 본문에다가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해설과 난외주를 첨부하였기 때문이다.

데 문제가 되는 구절에 대한 짚막한 해설이다. 이런 해설 노트들은 그 범위가 본문에 대한 개괄적인 조망으로부터 개체적인 단락이나 구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번역본 상의 이독 등에 이르기까지 무척 광범위하다. 이 설명들은 혼자서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 또는 성서의 내용을 좀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 모두에게 성서의 깊은 의미를 찾아서 그 메시지와 대화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두 해설 성서는 그런 장치를 해설하는 방식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해설·관주 성경』은 신구약의 독자들에게 본문의 문맥과, 본문이 무엇을 “뜻했는지”와, 그에 따른 본문의 의도를 의미 전달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해설 성서이다. 이런 관점에서 『해설·관주 성경』은 독자들에게 본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돕는 문단을 단위별로 설정하고, 본문과 관련된 문학적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배경을 그것에 맞춰 밝혀주고 있다. 그렇기에, 『해설·관주 성경』은 본문의 특수한 낱말이나 구절을 해설하는 구절풀이에 심혈을 기울이기보다는, 문맥에 따라 설정해 놓은 본문(문단)의 객관적(역사적) 의미를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일에 충실하고자 한다. 물론 그 해설을 읽어보면 특정 구절이나 단어에 대한 풀이나 해설이 엄연히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생김새는 구절보다는 문단을 그 맥락에 따라 해설해 가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해설·관주 성경』의 이런 방식은 독자들에게 성서의 말씀을 잘 파악하게 한 후 그들을 말씀의 오묘한 은혜 속에 빠질(!) 수 있도록 돕는 장치 구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관주 성경』은 난하주(난하주에는 관련 구절을 밝히는 성구들만 표시된다)가 아닌 본문의 각 문단 맨 밑에 본문전체를 해설하는 방식의 해설 성서를 고안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신구약성서 전체를 통독하는 독자들에게는 본문을 문단에 따라서 읽게 하고, 그 의미를 총체적으로(!) 깨닫게 하는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따르다 보면 신구약성서의 독자는 성서 전체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위에서 살핀 창세기 1:1-2 문단에 대한 『해설·관주 성경』의 해설 장치가 바로 그런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해설·관주 성경』의 해설은 목회자나 평신도들에게 통독을 위한 신구약 해설이라는 아주 값진 유산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해설·관주 성경』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해설·관주 성경』과는 정 반대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먼저 문단으로 설정한 본문 전체에 대한 안내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나서 본문의 여러 구절들에 대한 풀이를 소개한다. 이것은 그 독자들에게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윤곽을 미리 알게 하고 나서 본문 읽기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문단 해설은 대체로 『해설·관주 성경』의 그것에 비해 해설의 분량에서 상대적으로 짧다. 분량만 짧을 뿐만 아니라 해설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다.

예를 들어 “쉐마”로 알려진 신명기 6:4-5을 이 두 해설 성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신명기 6:4-5에는 아무 난하주가 없다. 단지 6:5의 “마음”이란 단어에 대한 용어 해설을 참조하라는 표시가 붙어 있을 뿐이다. 대신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소제목이 붙은 문단, 신명기 6:1-9에 대한 해설에서 그와 관련된 해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부분은 첫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한 단락이다. ‘쉐마’(히브리어 성경에서 6:4-5를 시작하는 말로 “들으라”는 뜻)로 알려진 6:4-5는 이스라엘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선포하고 있다. 예수도 이것을 모든 \* 율법의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으로 인용하고 있다(마 22:37; 막 12:29-30; 또한 눅 10:27).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구절은 “\*여호와”,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다”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로도 번역될 수 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여호와만 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2. 여호와만이 하나님이고 다른 신은 없다(시 96:5; 115:4-7; 135:15-18). 3. 이방 신들은 \*바알처럼 여러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6:6-9에 기록된 명령은 11:18-20(또한 출 13:9)에서 반복된다. 후대 사람들은 성구함(‘테필람’이라는 성구가 들어 있는 소형 가죽 상자)을 이마와 왼쪽 손목에 매고(마 23:5) \*성경 구절이 들어 있는 작은 상자(‘페주자’)를 집의 오른쪽 문설주에 붙여 놓았다.

이에 비해 『해설·관주 성경』은 신명기 6:4-5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먼저 6:4-5의 난하주에 “6:4-5(사랑하라) 신 10:12; 11:1, 22; 13:3; 30:6, 20; 수 22:5; 시 31:23; 집회 2:15 6:4 출 20:3관; 고전 8:4,6”이라는 관련구절을 병기해 놓았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라는 권고”라는 문단으로 소개된 6:1-9에다가 다음과 같은 해설을 첨부하고 있다.

4절에는 이스라엘의 기본 신앙고백이 들어 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 드릴 때에 이 고백과 그 다음 몇 절을 낭송한다(이른바 ‘쉐마 이스라엘’. 막 12:34 다음 해설 참조).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이니시니’로도 번역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러한 형식의 고백이 생겨났을 때도 아직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통하지 않았지만(14절 참조),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하나이신 분’이셨는데, 이는 사랑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늘 오직 하나이며 하나뿐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아 6:8-9 참조). 그러므로 뒤이어 5절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보다 앞서기 때문에, 곧 하나님 몸소 선택하시는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4:37; 7:8), 사람더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요구하는 사랑은 사람 전체를 요구한다. 곧 이 사랑은 감정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가운데 드러난다. 그리하여 이 계명들을 - 5절의 기본 계명뿐만 아니라 - 명심하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6-9절). 8절의 규정으로부터 유대교에서 ‘경문’(마 23:35 참조)을 차고 다니는 풍습이 생겨났는데, 본디는 팔찌나 머리에 두른 천의 장식 편에 이 신앙고백을 새겼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9절의 문설주에 대해서는 출 12:7 참조(문\*).

예수께서는 5절을 ‘첫째 계명’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인용하셨다(막 12:28-30).

신명기 6:4-5에 대한 (또는 6:1-9에 대한) 이 인용문은 두 해설 성서가 해설 방식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히브리 원문이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일에 해설의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해설·관주 성경』은 히브리 원문이 말하고자 했던 의미를 전달하는 일에 해설의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해설 방식의 차이는 독자에 따라서 그 호(好) 불호(不好)가 결정된다고 본다. 본문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으로 해설 성서를 읽는 독자들은 『해설·관주 성경』의 안내를 받으려 할 것이고, 본문의 증언이 다른 옛 번역본들에 비해서 어떻게 검토되고 그 결과가 우리 해설 성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독자는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안내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거론했듯이 『해설·관주 성경』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차이는 본문 비평적인 문제에 대한 해설 방식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번역본의 이독과 관련된 문제를 각 구절에 대한 해설에서 자주 거론하고 있다. 『해설·관주 성경』은 그것을 “본문 비평 주”라는 제목 밑에 권말 부록 형식으로 따로 붙여 놓았다.<sup>3)</sup> 본문비평이 무엇인지, 본문비평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 본문 비평 주를 읽을 때 독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본문 비평 작업에서 검토되고 있는 옛 번역본들은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한 후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는 본문 비평 주를 첨부해 놓았다. 이런 부록 형식의 안내는 『해설·

3) 『해설·관주 성경』의 “부록”, pp. 73-84.

관주 성경』의 특성에서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과연 얼마나 독자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별개의 문제이다.

#### 4. 『해설·관주 성경』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 해설 노트에 반영된 해석학적 좌표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이나 『해설·관주 성경』의 해설은 대략 크게 두 가지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선 하나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서 본문의 문단의 뜻이나 그와 연관된 구절(본문)의 의미를 해설 노트로 풀이해 주는 일이다. 이 풀이는 원칙적으로 본문 비평적이거나(text-critical), 어의론적이거나(semantic), 문학적이거나(literary), 주석적이다(exegetical). 이것은 크게 다음 네 가지 유형의 정보로 정리된다.

(1) 문화적, 역사적 주(註). 『해설·관주 성경』이나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독자들이 원문의 의미를 그 본래적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 89:10에 있는 ‘라합’에 대한 해설 행 27:9의 ‘금식하는 절기’에 대한 해설).

(2) 본문상의 주해. 『해설·관주 성경』의 강점은 본문의 단락에 대한 풀이(주해)에 있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에서 이런 설명은 문단 앞에 나오거나, 번역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히브리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을 번역의 대본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 대한 해설로 나타난다. 특히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하나나 그 이상의 옛 번역본들을 번역의 대본으로 참조하였을 경우, ‘어떤 옛 번역이 본문을 이렇게 읽는다’거나(예, 창 1:26), ‘몇 개의 옛 번역들이 본문을 이렇게 읽는다’라고 표시한다(예, 창 4:8). 성서학자들의 추측으로 이루어진 본문수정을 채택하였을 경우 난 외에 ‘가능한 텍스트는 이러하다’라는 설명을 남긴다(예, 창 10:14). 신약성서에서 이런 설명은 그리스어 사본 중에서 심각한 차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밝히는 본문상의 주해에 포함된다. 이런 차이들은 본문상의 첨가(예, 마 21:43), 삭제(예, 마 24:36), 대체(예, 막 1:41)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대안적인 표현이나 해설. 원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나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둘 이상의 상이한 방법을 표시한다. 이 같은 경우 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대안적인 번역을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난하주에 남긴다(예, 창 2:9; 마 6:11). 『해설·관주 성경』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용어 해설”도 이것을 밝혀주는 일에 공헌한다.

(4) 칠십인역 본문 표기.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에서 칠십인역 본문은 신약성서에서 직접 인용되거나 의역의 형태로 인용되고 있다. 또 칠십인역 본문이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심각한 의미상의 차이를 낳게 되는 경우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구약성서의 고대 그리스어 번역에서 비롯된 구절에 대한 표시를 난하주에 남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해설 성서가 구절 해설에 특히 목말라하고 있는 우리 독자들의 궁금증을 다 해소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독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이 『해설·관주 성경』이나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해설 노트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독자적 해설 성서를 저작하는 데 필요한 문제 제기로 남겨두려고 한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한성서공회가 발간한 두 종류의 해설 성서에는 세계 성서학계의 지적 유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해설 노트 말고도 『해설·관주 성경』이나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본문의 문단이나 구절에 대한 해설에 앞서서 독자들이 미리 알아야 할 성서의 여러 분야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문학



적, 지리적 배경 등을 각종 해설문 형식으로 밝혀주고 있다. 『해설·관주 성경』의 경우 “성경 각 책에 대한 안내”, “도량형 및 화폐 단위 해설”, “용어 해설”, “본문 비평 주”, “연대표”, “천 연색 지도와 흑백 약도” 등이 따로 첨부되어 있다. 이런 해설문들은 모두 본문 이해와 관련된 문학적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배경 등을 밝혀주는 일에 일정 부분 공헌한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경우 “해설문”, “구약/신약 개론”, “성경의 큰 단위에 대한 개론”, “각 책의 개론”, “용어 해설”, “지도와 찾아보기” 등을 마련해 놓았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말 번역 성서의 역사”,<sup>4)</sup>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에 대한 해설”<sup>5)</sup>이라는 귀중한 자료를 덧붙여 놓았다.

이 때 이 두 해설 성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자세하고 더 많은 해설문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냐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비교는 이 두 책 각각의 개성으로 삼으면 되기 때문이다. 가령 『해설·관주 성경』에는 구약의 경우 “모세 오경 안내”, “신명기 역사서 안내”, “역대기 안내” “예언서 안내”는 소개되지만, 성문서에 대한 안내나 지혜문학에 대한 안내나 구약과 신약 전반에 대한 안내는 없다. 신약의 경우에는 복음서 안내나, 서신서 안내 같은 총론 성격의 해설이 아예 없다. 반면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에는 “구약 개론”, “오경 개론”, “예언서 개론”, “신약 개론”, “복음서 개론”, “신약서신 개론”이 있다. 하지만 거기에도 구약의 역사서 개론이나 성문서에 대한 개론 등은 없다.

이러한 도용장치들은 독자들에게 각 본문을 소개하기 앞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전반에 관한 전체적인 안내를 제공해 준다. 구약의 경우 구약성서란 무슨 책이고, 구약성서의 텍스트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저자의 문제, 문화와 역사적 상황, 번역의 과정, 오늘날 구약을 읽는 자세는 어떠한지 등을 서술하고 있다. 신약의 경우에도 구약과 신약에 대한 대조, 신약성서의 세계, 신약이라는 정경상의 토론 등이 약속되고 있다. 이런 서론적인 조명 외에도 각종 지도와 도표 등을 통해서 신구약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설명들이 제공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해설·관주 성경』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해설문이나 안내문이 역사비평적 성서해석을 비롯한 성서해석의 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 출판된 개신교용 해설 성서들이 대부분 역사비평적 성서해석에 반감을 표시하는 문자주의적 해석의 경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세계 성서학계가 지적 유산으로 남겨 놓은 성서해석의 방법론을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성서 읽기의 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해설·관주 성경』의 “머리말”은 그런 노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사람에게 계시하셨다. 이것은 무한한 은혜이며 신비 중의 신비이다. 더욱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이다(요 1:14). 이것은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이라는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눈이 부셔서 해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어를 직접 듣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리실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의사 전달의 매체는 사람의 언어였다. 성경은 인간의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언어 체계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여기다가는 성경의 문자를 이상화하는 잘못에 빠지게 될 것이다.

“눈이 부셔서 해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어를 직접 듣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은 인간의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와 비슷한 견해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에도 명시되어 있다. 『굿뉴스

4)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pp. 23-30.

5)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pp. 31-35.

『스테디바이블』의 “구약개론”이 구약의 저자 문제를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자.

구약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구약이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는 한 작가가 한 책을 쓰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버렸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활용할 때 그 글의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쓴 글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구약 시대에서는 판이하게 달랐다...어떤 기록이 거룩한 말씀으로 간주되는 일에서 원래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이냐를 묻는 질문이란 그렇게 긴요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존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신앙공동체가 자기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에스겔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교하고 외치는 이들이었지 결코 작가가 아니었다.

그런 까닭에 “모세 오경”으로 여겨지는 책 속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들어 있다는 것이나, 여러 다양한 사람이 썼다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그것을 각각 “다윗의 시”나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부르는 것을 결코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목들은 오늘날의 의미에서 저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그렇게 불리는 책 속에 수록된 위대한 전승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모세 오경”, “다윗의 시”, “이사야” 같은 제목을 저자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해설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 명칭들은 저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속에 수록된 위대한 전승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단언한다. 여기에 『해설·관주 성경』이나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이 우리 나라 개신교회의 성서해석 풍토에 미치는 창조적인 공헌이 있다. 역사비평을 비롯한 성서해석의 유산을 적극 수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멋과 맛을 이 두 해설 성서가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두 해설 성서가 차지하는 해석학적 좌표(座標)가 있다.

## 5. 평가와 전망

베뢰아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고상하다)”는 칭찬을 받았다(행 17:11). 이것은 진정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마땅한 칭찬이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있게 읽고 공부해 왔다. 그런 점에서 대한성서공회가 펴낸 『해설·관주 성경』(1997년)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2001년)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기를 원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지침서에 해당된다. 해설 성서에 관한 한 척박하기 그지없는 우리 토양 위에 『해설·관주 성경』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제대로 된 이정표를 세우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해설·관주 성경』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사이에 해설의 방식을 놓고 귀납법 식이거나 연역법 식이라는 차이가 보이지만, 이 두 해설성서는 모두 집필자를 실명(實名)으로 제시하면서, 성서 본문을 대할 때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또는 무엇을 얻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게 만들었다. 성경이라는 우물가에 해설 성서라는 두레박이 있는데, 그 두레박을 누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길어 올릴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었다는 것이다.

『해설·관주 성경』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정녕 이제부터 시작될 우리의 독자적인 해설 성서를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이 두 해설 성서가 아쉽게 남긴 사항들을 신학자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평가해 보는 일도 우리 논의에 소중하

다. 여기에서 필자는 이 두 해설 성서의 장단점을 헤아리기보다는 이 두 해설 성서가 남겨 놓은 공통적인 자취에서 평가와 전망을 더불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해설 성서는 독자의 독서를 돕는 책이어야 한다. 이 두 해설 성서는 학문적(?) 해설서다운 분위기를 지나치게 표방하고 있다. 그만큼 어렵다. 그만큼 전문적이다. 우리의 해설 성서가 학문적, 지적 유산을 적극 수용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독자의 독서를 위한 것이어야지, 집필자의 시각을 펼쳐 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을 위한 참고서를 만들어야지, 교사를 위한 참고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해설 성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독자의 독서를 돕는 데 있다. 독자가 물을 수 있고, 독자가 궁금해 할 수 있고, 독자가 배우고 싶어할 것을 해설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해설 성서의 모든 해설과 안내에는 독자의 경험이 철저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사실 본문 비평적인 문제는 성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소중한 도구이다. 본문에 대한 주석과 주해는 성서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 장치이다. 그러나 해설 성서를 읽어갈 때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구절이나, 난해하거나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나, 서로 상충되거나 어려운 한자어투가 있는 구절 등에 대한 안내가 누락되어 있다면, 독자들은 그 책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특징 있는 해설 성서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고려하고, 또 밝혀야 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설해 주거나, 하나로 모든 독자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해설 성서의 정체성을 우선 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주석과 해설 사이, 해설과 해석 사이, 해석과 주해 사이, 개론과 해설 사이, 신학과 변증 사이, 말씀과 교리 사이에서 해설 성서를 어떤 모습의 도우미로 꾸밀 것인가를 먼저,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해설 성서는 읽기가 쉬워야 한다. 전문적이되 전문적인 용어를 가급적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전문 용어에 대한 해설(용어 해설)의 중요성이 여기에 드러난다. 해설 성서는 사용하기가 편리해야 한다. 책의 부피가 좀 두꺼워진다고 해도 독자 입장에서 일목요연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성서가 지나치게 두꺼워지면, 상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모든 것을 간명하게 추스를 필요는 없다. 간명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독자들에게 읽기에 어려운 버거운 짐이 되게 하였다.

『해설·관주 성경』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계속 개정되어야 한다. 인쇄상의 오류도 수정해야 하고, 독자들의 반응에 따라 해설 노트에 첨삭이 (필요하다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두 책이 외국의 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기에 여전히 남아 있는 번역투의 문장도 좀 더 바로 잡아야 한다. 불필요하게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다면 그것을 다듬어야 하고, 번역상의 스타일이나 사용된 용어가 일부 독자들에게 영똥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성서공회는 이 두 해설 성서를 사용하고 있는 독자들의 반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신약을 중심으로-

김창락

## 1. 시작하는 말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약 30여종의 해설 성서들이 시판되고 있다. 가히 해설 성서의 홍수 시대라 할 것이다. 대한성서공회도 1997년에 『해설·관주 성경전서』를 번역·출판한 데 이어서 2001년에는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을 번역·출판하였다. 앞의 것은 독일성서공회가, 뒤의 것은 미국성서공회가 제작·출판한 것이다. 각 나라의 성서공회는 성서 자체의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교파 연합 기관이다. 성서공회가 주석서나 신학서적을 출판하는 것은 성서공회의 본령에서 벗어난다. 성서공회는 어느 특정 교파의 성서 해석이나 어느 특정 집단의 신학을 대변하지 않는 것을 그 사업의 근본 강령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십 수년 이래로 세계의 여러 성서공회들이 ‘해설성서’ 또는 ‘학습용 성서’라는 이름의 성서를 출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성서공회의 사업 분야의 새로운 확장이라 할 것이다.

성서를 읽는 것을 미지의 낯선 세계를 여행하는 일에 비길 수 있다. 누구든지 길을 잃고 헤매는 일 없이 미지의 세계를 효과적으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안내서가 필요하다. 부적절한 안내서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어떠한 안내서가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일이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적절하다/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의 기준도 상대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행의 목표가 무엇이나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지의 지역에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의 먼 거리를 자동차로 급히 여행하려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도로 지도가 필수적 안내서이다. 이 경우에 어떠한 지도가 가장 적절한가? 그것은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최단거리 고속 도로가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는 지도이다. 너무 상세한 지도, 예를 들어 A지점에서 B지점 사이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도시들과 연결된 모든 길들이 빠짐없이 표시되어 있는 세밀한 지도는 오히려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러나 중간에 놓여 있는 모든 도시의 시내를 경유하여 여행하려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상세한 지도가 적절할 것이다. ‘간략함’이라는 효용성에 대한 기준도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급히 이동하려는 여행자에게도 그 두 지점 사이의 최단거리 고속 도로만을 표시해 놓은 지도는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고속 도로에서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경우에 따라서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군데군데 셋길 정도는 최소한 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출간된 모든 종류의 해설 성서들의 외형적 특징의 공통점은 이들은 읽기에 불편이 없는 활자체로 인쇄되어 있으면서도 휴대하기에 간편한 신구약 성경전서의 구실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 외형적 특징은 간결성이라는 분량상의 특성도 어쩔 수 없이 생기게 했다. 이리하여 이들은 모두 성경을 이해하면서 빨리 통독하려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학습용 성서로서의 형식적 요건은 충분히 갖춘 셈이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정보 내용이 질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에 속한다.

이 글의 목적은 모든 해설 성서의 내용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지 않고 대한성서공회가 발간한 두 해설 성서의 내용을 비교·검토하는 데 있다. 여기서는 다만 이 두 해설 성서가 공통적으로 채택한 성서연구 방법론이 나머지 모든 해설 성서의 그것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 두 해설 성서는 역사비평적 연구방법론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최대한의 일치점을 반영하려고 했다. 이와 달리 나머지 해설 성서들은 역사비평적 연구방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했다. 성서의 내용을 이해하려는 독자에게 각 성서 문서의 성립과 관련된 역사비평적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나 무익하냐는 논쟁은 끝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다음 사실만을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어떤 문구의 의미가 그 전후 문맥 속에서 비로소 확연히 드러나듯이 어떤 성서 문구의 의미는 그것의 문학적 문맥뿐만 아니라 그 문서가 성립된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 넣어서 바라볼 때에 그 본래적 의미가 올바르게 드러난다. 성서를 해석하는 데 역사비평적 연구방법을 완전히 차단하면 성서의 내용에 대한 그릇된 정보가 범람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설령 그러한 정보들이 독자의 '경건성'을 북돋우는데 일시적으로 효험이 있다 하더라도 학문적 진실에 바탕을 두지 아니한 효험은 원대한 전망에서 바라볼 때에 어느 면에서든지 언젠가는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다.

대한성서공회가 발간한 두 해설 성서는 단순히 여러 해설 성서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해설성서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취하는 무비평적인 연구방법에 제동을 걸고 해설성서 제작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해설 · 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구성

『해설 · 관주 성경전서』(아래에서는 『해성』으로 함)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앞에 서론부가 있고 뒤이어 본론부가 나오며 맨 끝에 부록이 붙어 있다. 서론부에는 발간사와 머리말, 이 책의 편성과 제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러두기 말, 구약목록과 신약목록, 성경과 외경 각권의 약자표가 실려 있다. 본론부는 『해성』의 중심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이다. 각 문서마다 맨 앞에 그 문서의 핵심 내용과 그 문서의 성립에 관한 역사, 그 문서의 주요 구조를 소개하는 안내가 나온다. 본문에 대한 해설은 문단 단위로 나뉘어 붙여져 있다. 부록편은 도량형 및 화폐 단위의 환산표, 용어 해설란, 성경 약사 연대표, 본문 비평 주, 지명 찾기 색인, 지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아래에서는 『스바』로 함)도 서론부, 본론부, 부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스바』의 서론부에는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다. 발간사, 목차, 성경 및 외경 책 이름의 약자표, 여기저기 수록된 지도의 목록, 책의 편성과 제작에 관한 정보, 성서 세계의 역사 개요표, 성경 각 책의 이름과 순서가 나온다. 『스바』의 우리말 번역본에는 우리말 번역 성서의 역사,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해설이라는 두 개의 유익한 글이 실려 있다. 『스바』의 본론부는 『해성』의 그것과 비교 할 때에 그 구성과 해설 방법이 상당히 다르다. 『스바』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개별 문서를 해설하기에 앞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전반을 해설하는 구약개론과 신약개론을 실었다. 그 뿐만 아니라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주요 장르별 문서 집단을 묶어서 소개하는 글이 있다. 『해성』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그렇게 묶어서 소개했지만 『스바』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 개별 문서 앞에 그것을 소개하는 글은 『해성』의 그것과 거의 같다. 다만 본문을 해설하는 방법은 『해성』과 전혀 다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보기를 들어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스바』는 부록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책 끝에 찾아보기와 용어해설을 붙여놓았다. 찾아보기는 주요 낱말이나 어구가 성서의 어디에

있는지를 찾게 하는 색인 사전의 구실을 한다. 『해성』에는 이것이 없는 대신에 지도상의 지명 찾아보기 목록이 있으며 『스바』에는 『해성』에 있는 이것이 없다.

## 2. 『해성』과 『스바』의 비교

### 2.1. 해설 방식

『해성』과 『스바』는 각각 본문 해설을 제시하는 방식이 다르다. 마태복음 5-7장의 해설을 본보기로 들어보자.

『해성』은 본문을 의미 단위의 단락으로 나누어 제시해 놓고 매 단락마다 그 끝에 해설을 덧붙여 놓았다. 단락 나누기는 미국 연합 성서공회가 발행한 『그리스어 신약성서』(*The Greek New Testament, UBS<sup>4</sup>*)를 거의 그대로 따른다. 우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아홉 단락, 즉 1-12절(이 점에서는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1-2절과 3-12절 두 단락으로 나눈 것과 약간 차이가 있음), 13-16절, 17-20절, 21-26절, 27-30절, 31-32절, 33-37절, 38-42절, 43-48절로 나누어 놓고 매 단락 끝에 해설이 붙어 있다. 『스바』는 단락 나누기에 있어서는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꼭 그대로 따른다. 그렇지만 『스바』가 해설을 붙이는 방식은 『해성』과 전적으로 다르다. 『스바』는 매 단락을 독립된 의미 단위로서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바』는 해설을 각 단락마다 나누어서 붙이지 아니하고 해설이 필요한 구절에 대해서 각주에다 차례로 해설을 붙여 놓았다. 그 대신에 『스바』는 어느 한 단락 또는 몇몇 단락들 앞에 그 한 단락 또는 몇몇 단락들 안에 무슨 사항이 담겨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글을 실어 놓았다. 또 마태복음 5-7장은 ‘산상설교’라는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5-7장 전체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글이 맨 앞에 나온다. 즉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전체 속에 들어 있는 다섯 개의 긴 설교 가운데서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 그 내용은 새 언약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통일된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의 성격, 책임, 특권 그리고 운명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성』은 『스바』와는 달리 여러 단락들이 하나의 상위의 의미 단위로 묶여진 큰 단원의 내용을 해설하는 난(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아니했다. 그 대신에 이 큰 단원을 소개하는 말은 그 단원의 맨 처음 단락을 해설하는 자리에서 언급한다. 보기를 들면 『해성』은 마태복음 5장 1-12절을 해설하는 자리에서 산상설교(5-7장) 전체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해설한다. 즉 산상설교는 무리를 겨냥한 것이지만 동시에 전체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으며 최종으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겨냥한다는 것, 산상설교가 요구하는 것은 침입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에 직면하여 요청되며 가능하게 되는 태도이고 이러한 태도는 오직 예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그리고 그와 연합함으로써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가지 보기를 더 들면, 마태복음 5장 21-48절은 여섯 단락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른바 여섯 대립명제를 말한다. 『스바』는 이 여섯 단락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이 여섯을 하나의 의미 단원으로 취급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즉 이 단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율법이 금하는 특정 행위를 멀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와 같은 죄 된 행위를 유발시키는 내적 동기와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해성』은 여섯 대립명제의 첫째 단락을 해설하는 자리에서 여섯 대립명제의 신학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른바 ‘대립명제’(5:21-48)는 여섯 개로 구성되었는데 세 대립명제가 두 조로 짜여 있다. 여기서 예수는 모

세가 명한 것을 부분적으로는 심화시키기도 하고(22, 28절), 또 부분적으로는 교정하거나 폐기시키기도 한다(32,34,39,44절). 이로써 예수는 모세의 권위를 능가함을 드러낸다.

『스바』는 그 진술 원칙을 어긴 경우도 있다. 원칙대로 하면, 마태 5:1-12절의 단락과 13-16절의 단락 앞에 각각, 또는 그 두 단락을 한 단원으로 취급하여 그 앞에 그것을 소개하는 글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되었다.

『해성』과 『스바』의 해설 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해설을 관광 안내원에 빗대어 보자. A라는 안내원은 출발에 앞서 관광객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해 준다. “지금 우리는 아무 곳에 가는데 거기에 가서 무엇, 무엇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B라는 안내원은 관광객들에게 관광 현장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설명해 준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러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A 안내원과 B 안내원은 각각 『스바』와 『해성』의 해설 방식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 해설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스바』의 방식은 독자들이 하여금 앞으로 읽을 본문 속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를 예상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대의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 『해성』의 방식은 이미 읽은 단락 전체의 신학적 의미를 용이하게 파악하게 해 준다. 이 편의 장점은 저 편의 단점이 되고 저 편의 단점은 이 편의 장점이 된다.

『스바』와 『해성』은 본문비평적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이 다르다. 『스바』는 해당 구절을 해설하는 자리에서 본문비평적 다른 읽기를 제시한다. 보기를 들면 마태복음 6:4의 “값없이 리라”에 “공개적으로”라는 어구를 첨가한 사본이 있음을 밝힌다. 이와 달리 『해성』은 본문비평적 다른 읽기를 부록에 따로 모아 제시해 놓았다. 『해성』은 본문비평적 주(註)를 극도로 제한했다. 마태복음에서는 18장 9절까지 오직 5장 44절에만 다른 읽기를 제시해 놓았다. 『스바』가 채택한 방식이 독자들이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다 할 것이다. 『해성』의 독일어 대본은 본문비평적 주가 나오는 곳을 o표로 표시해 놓았으나 우리말 번역에는 그 표시가 누락되어 있어서 독자들이 본문이나 해설을 읽으면서 다른 읽기가 제시된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관련구절은 본문을 해설하는 자리에서 ( ) 안에 표시되었다. 『해성』은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을 매 쪽 하단에 제시해 놓았다.

## 2.2. 해설 내용

해설 성서의 질적 차이를 평가하는 데 고려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설의 내용이다. 『해성』과 『스바』는 해설의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설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었다. 『스바』는 매 절을 떼어서 해설을 하면서 낱말, 어구, 문장의 의미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스바』는 한 단락 전체의 종합적 의미보다는 그 단락을 구성하는 각 절의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잘 드러낸다. 이와 달리 『해성』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낱말, 어구, 문장의 의미를 밝히기도 하지 마는 그보다는 단락 전체의 종합적 의미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두었다. 우선 팔복 선언(마 5:1-12)과 주기도문(마 6:9-15)이 나오는 단락을 본보기로 들어보기로 하자.

『해성』은 팔복 선언 단락의 전체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산상설교의 맨 처음에 여덟 가지 구원 선언이 나온다(3-10절). 이 구원 선언은 듣는 사람들에게 하늘 나라, 즉 하나님의 새 세계에 참여를 약속한다. 동시에 여기에는 자기의 자세나 태도를 통해서 이 약속에 상응하라고 하는 절박한 요구가 내포되어 있다.” 『스바』에는 팔복 선언 전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이 없다. 『스바』는 3절을 해설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을 열망함으로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풀이하고 “복이 있는”을 “한편으로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남을,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기쁨을 동반한, 행복하거나 즐거운 상태에

놓여 있는”을 뜻한다고 풀이해 놓았다. 『해성』은 “가난한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가난한 사람들(3절)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다. 이들의 가난이 그들 주변의 몰인정한 소유욕의 결과인 이상 하나님은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특별한 변호자였다. 그들이 곤궁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소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고 점점 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삶의 충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이상 그들은 그들의 편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강렬한 관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이들의 경건성’이라는 독특한 사상이 발전했다(시37편; 34:19; 69:33-34 참조. 또 사57:15; 61:1-2; 습2:3; 3:12의 약속들 참조; 눅1:46-55를 보라). 행복 선언의 첫째 항에서 이런 유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 첫 항목은 말하자면 전체 행복 선언의 제목과 같다. 4:10절에서, 특히 4:6절에서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고려되고 있다(관련구절 참조).”

『스바』는 6절의 ‘의’라는 낱말의 뜻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예수의 네 번째 가르침으로서, 여기서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함”으로 풀이했다. 『해성』은 ‘의’를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의(6:10절)는 하나님 또는 그의 메시아가 세우실 포괄적인 구원 질서를 뜻한다(사9:5-6; 렘23:5-6; 33:15-16 참조). 이 의는 동시에 이 구원 질서에 대응하는 인간의 태도를 의미한다(3:15와 해설 및 6:33 해설 참조).”

주기도문의 해설은 『해성』과 『스바』의 내용상 차이점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스바』는 주기도문을 해설함에 있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9절)와 “일용할 양식”(11절)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12절)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13절)라는 어구의 뜻을 간략하게 제시할 따름이다. 이와 달리 『해성』은 우선 주기도문의 전체적 의의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주기도문은 이미 외적으로 그리고 바로 내적으로 산상설교의 중심이며 핵심이다. 산상설교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이 바로 이 기도의 정신에 마음을 열고 이 기도의 정신에서 살기 시작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해성』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말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예수는 이 기도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요구하셨으므로 자기의 독특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제자들을 끌어들이신다(용어해설에서 ‘아바’ 참조). 이로써 예수는 제자들의 삶을 하나의 새로운 토대 위에 세우시며 그들을 특별히 은총을 입은 자들과 사명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로 결속시키신다.”

주기도문을 해석함에는 거기에 담긴 청원 하나 하나의 의미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처음 세 청원이 동일한 종말론적 구원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스바』도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언급한다. “처음의 세 기원(6:10 끝까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천국 시민은 모든 사람이 그 분을 전능하신 주로 인정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길 바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해성』은 이 점을 아주 상세하게 진술한다.



“제자들이 청원해야 할 본래적인 첫째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비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세상에서 회복되는 것,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는 것을 뜻한다(‘거룩하게 되다’라는 수동태 표현은 하나님의 행위를 우회적으로 경건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한국어 『구역성경』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가 더 정확한 번역에 속한다. 겔36:23; 38:23 참조. ‘거룩하게 하다’=거룩한 것임을 입증하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에수를 통하여 알리시고 이미 시작하신 것을 완전히 실행시키심으로써 일어나야 한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나라가 임하는 사건에서 이루어진다(둘째 청원, 4:17 참조). 셋째 청원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내용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펼친다. 셋째 청원에서 비는 것은 종말론적 완성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이 종말적 완성은 지금 벌써 좀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의 삶 속에서 그러했듯이(3:15; 12:28; 26:42 참조)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역시 감지될 수 있어야 한다(5:1-48; 7:21; 10:1; 12:50; 18:14 참조).”

『해성』은 나머지 세 청원의 의미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설명한다.

“9-10절이 하나님의 명예와 그의 나라에 대한 청원이라면, 뒤따르는 청원들은 제자들의 공동체 생활에 관한 것이다. 즉 나날의 생계와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11절, 19-34절 참조)와 다가올 심판에서 이겨나기(12절, 18:21-35 참조)를 비는 청원이다. 13상반절(“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은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난국 속에서, 시험(=유혹)에 빠지는 것 및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것에서 지켜달라고 청원한다(10:16-25; 24:3-28; 26:41 참조). (하나님이 그러한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은 약1:13-14가 말한다.) 13하반절(“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은 그러한 위험에 직면하여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처럼 들린다(약은 ‘악한 자’로 번역할 수도 있다. 13:19와 딤후4:18 참조).”

끝으로 용어 해설의 항목 수와 해설의 길이가 『해성』과 『스바』에서 어떠한지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해성』의 용어 해설은 32 쪽 반에 걸쳐 있는데 『스바』는 겨우 17 쪽을 여기에 배당하고 있다. ㄱ 부의 항목 수와 쪽 수는 『해성』이 81 항목에 9 쪽이고 『스바』가 34 항목에 1 쪽 반이다. ㅎ 부에서는 『해성』이 36 항목에 7 쪽이며 『스바』는 29 항목에 1 쪽 반이다. ㄱ 부와 ㅎ 부를 합해 보면 『해성』은 117 항목에 16 쪽이며 『스바』는 63 항목에 3 쪽이다. 『해성』의 항목 수가 『스바』의 그것에 2 배쯤 되는 셈이다. 이 16 쪽과 3 쪽을 각각 행(行) 수로 계산하면 『해성』은 약 630 행이 되고 『스바』는 약 126 행이다. 『스바』는 한 항목 당 평균 2 행의 해설을 붙였는데 『해성』은 약 5.4 행의 해설을 붙였으니 해설의 분량도 약 1:3이 되는 셈이다. 신학적으로 의미가 중요하고 복잡한 것일수록 이 비율이 늘어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항목을 본보기로 들어보자.

『스바』에는 이 항목에 겨우 12 행이 배당되었는데 『해성』에는 무려 127 행이나 배당되었다. 『스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어떤 다른 세계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이 낱말은 그 말이 쓰이는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인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오고 있는 그의 통치를 가리키는지, 혹은 그의 통치가 장래에 되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어떤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마태는 다른 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하늘 나라”(개역: 천국)라는 말을 선호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바』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어떤 영토를 뜻하는 것이 아니

라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며 문맥에 따라 그것이 현재적 현실을 가리키기도 하고 미래적 현실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할 따름이다. 이와 달리 『해성』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전승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성립 초창기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표명한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고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시는 -- ‘임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하던 신앙 고백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셔서(출15:18) 광야를 거쳐서 이끄시고 가나안 땅 곧 여러 이방 민족의 나라들(시44:1-5)을 그들의 소유로 주심으로써 자기의 이 왕권을 근본적으로 드러내 보이셨다...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적들에게서 지켜주시고(시44:4-8; 48편; 68:24-35; 135편; 146편)...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법과 의가 이스라엘에 통하게 하심으로써(미23:21-24; 신33:2-5; 시99:1-4) 하나님의 왕권을 계속해서 또 늘 새롭게 드러내 보이신다...이 왕권은 온 누리를 위한 것이고 언젠가는 온 누리에 드러날 것이다(시47편; 96-99편; 103:19-22). 하나님의 왕권은 아주 현실적이며 세상사적으로 구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우선 이스라엘에서 다른 민족들을 본떠 어떤 한 사람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삿8:23; 삼하8장)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한 사람(그리고 그의 왕조)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세상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통치의 대리자 겸 실행 기관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삼하7:14-16; 대상 28:5; 29:23; 대하 9:8; 13:8; 시2편; 72편; 89:15-37; 110편; 132:11-18).”

『해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두 왕국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극심한 민족적 대 비극을 잇따라 겪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현재 임금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점점 사라지고, 민족적 불행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대신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몸소 역사에 개입하셔서 자신이 자기 백성의 임금이자 모든 민족의 주이신 것을 다시 결정적으로 드러내시리라는 종말론적 희망이 점점 더 강렬하게 대두하게 된 역사적 경위를 설명한다. 이러한 희망은 다음과 같은 두 가닥의 기대로 표출되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출애굽에 상응하는 새 ‘출애굽’을 기대했고(사35:1-10; 40:1-11; 52:11-12),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사2:1-5; 25:6-8; 52:7-10; 60장; 66:5-24; 겔40-44장; 미4:6-8; 숙2:14-17), 무엇보다도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나심으로써 다윗 왕권이 마지막 때에 새로워지고 완전해질 것을 기대했다(사9:2-7; 11:1-10; 렘23:1-6; 겔 34장; 37:15-58; 암9:11-12; 미5:2; 숙9:9-12). 그렇지만 이런 희망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있었던 ‘모형들’을 바라보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초기 유대교 묵시문학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부터 인류 전체를 위해 개입하셔서 이 세상 및 세대를 끝장내시고 아주 새로운 세상 및 세대를 이끌어 들이실 것을 기대했다 (『다니엘』 안내를 보라). 이런 희망의 개념에서는 인자라는 존재가 표준적인 역할을 한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 이 두 가지 형태의 미래 희망이 -- 이스라엘의 위대한 과거를 지향하고 민족적 정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기대를 거는 희망과 묵시문학적인 희망이 -- 나란히 존재했고 또한 이런저런 혼합 형태로 존재하기도 했다.”

『해성』은 예수의 선포와 활동은 바로 이 묵시문학적 종말적 희망에 연결된 것이라고 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임금으로 다스리시는 일이 다했다고 선포하셨다면(막1:15), 이는 분명히 묵시문학적인 뜻을 띠는 것이지, 민족적인 기대로 이해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임금으로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오해의 여지가 적은데, 왜냐하면 ‘나라’라 하면 경계가 있는 국토나 국가 비슷한 기관이나 통치 형태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무 정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너무 쉽사리 ‘하늘’에 있는, 피안적인 실체로 그려지게 된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늘 나라’라고 하지만, 이 경우에 ‘하늘’이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뜻으로 예둘러 표현하는 대치어일 따름이다. 하나님이 임금으로 다스리심에 대하여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특징은 그 다스리심이 바로 지금 급박하게 가까웠다는 것이다. 묵시문학적인 기대에서 뜻하는 그런 다스리심이 곧 동터 오리라는 사실이 예수님께는 확실했다(막1:15; 눅10:9,11; 막9:1; 13:30. 그렇지만 막 13:32-37 참조). 그렇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새로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임금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예수께서 더 이상 장래의 일로만 여겨 기다리지 않으시고, 지금 벌써 -- 그의 말씀과 행위 안에서, 그의 현존 안에서, 그의 인격 안에서 -- 침입해 오고 있음을 보신다는 사실이다(눅11:20; 마 11:1-6; 13:44-46).”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이 선포를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 그가 선사하시고 요구하시는 일을 철저히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마음을 열고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 안에서 인자가 이미 나타나셨다. 따라서 이 세상의 끝이 정확히 언제냐를 물을 필요가 없다. 이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 아직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만 -- 이미 끝에 이르렀다! 이 끝은 -- 그리고 새 세상의 시작은 -- 또한 눈으로 보고 감촉으로 느낄 수 있게 나타나리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시점을 열망하고 간구해도 괜찮다(눅11:2; 17:22; 21:28). 그러나 그 시점을 계산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결정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한다는 혐의를 받거나 그렇게 할 유혹에 빠지게 된다. 결정적인 것이란 곧 예수 안에서 이미 현재가 된 것(눅17:20-22)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일과 ‘이미 그리고 아직도 아님’의 성격을 지닌 이 때를 위하여 제자들이 하도록 위탁받은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예수의 ‘대조의 비유’ 속에 이미 표출되어 있다는 것과 공관복음에서 예수의 선포의 중심 주제였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후대에 와서 배후로 밀려나게 된 경위를 설명한다.

“예수님의 경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현재와 미래가 서로 어떻게 관계되는지는 이른바 “대조의 비유들’에서 알 수 있다(막4:3-9,26-29,30-32; 마 13:33). 처음 세 (‘공관’) 복음서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선포에서 표준적인 역할을 한다. 신약성경의 다른 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 허락된 구원과 그 구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망과 결과를 이해하고 선포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므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다른 중요한 개념들의 배후로 밀려나게 된다(그렇지만 요3:3,5; 18:36; 행1:3,6; 14:22; 28:23,31; 롬14:17; 고전4:20; 6:9-10; 15:24-28,50; 갈5:21; 엡5:5; 살전2:12; 딤후4:1,18; 히12:28; 약2:5; 벧후1:11; 계 1:9; 11:15; 12:10 참조).”

위의 본보기를 통하여 본 바와 같이 『해설』의 용어 해설은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 경우에 단순히 낱말의 개념을 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시적인 시각에서 신학 사전과 같이 상세하게 해설한다.

『해성』과 『스바』가 신구약성서의 각 문서에 대하여 개론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역사비평적 연구의 공통적 결과를 수용하여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합치한다. 이 둘에서 우리는 나머지 모든 해설 성서가 성서의 각 문서에 대하여 제시한 정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기를 들면 현재 형태의 모세 오경을 형성한 배후에 이른바 J, E, P, D라고 하는 자료층이 존재했다는 것, 현재 형태의 이사야서는 약 400년에 걸쳐서 쌓인 여러 전승층들의 편집으로 형성되었다는 것, 공관복음서의 성립에 대하여 이른바 두 자료설을 인정하는 것, 바울의 서신을 진정 서신과 후기 바울 서신으로 구분하는 것 등등이다. 성서에 대한 역사비평적 연구의 불모 지대인 우리 나라의 성서 연구의 풍토에 이 두 해설 성서가 참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3. 맺음말

『해성』과 『스바』를 비교해 본 것은 우열을 판가름하거나 양자택일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었다. 둘 사이에 차이점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각각 장점인 동시에 단점도 되는 것이지 전적으로 장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단점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예를 들면 어떤 사항에 대한 해설이 간략하면 그 간략성이 이해를 용이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며 동시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단점도 되는 것이다. 상세한 해설은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며 동시에 그 복잡성이 손쉽게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 되는 것이다. 『스바』의 해설은 간략하며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었다. 특히 해당 자리에 관련된 지도를 제시한 것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본문을 단락별로 나누어 그 속에 담긴 좀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성』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해성』과 『스바』를 나란히 놓고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성서 연구 방법이 될 것이다.

# 우리의 상황에서 나온 해설 성서가 필요하다

- 스터디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

김영봉\*

## 1. 시의 적절한 기획

필자는 수많은 종류의 ‘해설 성서’들이 편찬되고 그것들이 아무런 비평적 검토 없이 신자들의 손에 들려지는 상황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이 해설 성서들은 저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왜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가? 그 제작 과정을 보면 그 대답을 알 수 있다. 책임 있고 능력 있는 전문가가 주(註)를 쓴 것이 아니라, 값싼 인력을 동원해서 여러 참고서를 짜깁기하여 출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신자들을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로 인도하기 위한 충정(忠情)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여 급조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註)의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경우가 많다.

이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가 입는다. 일반 신자들은 해설의 내용을 검토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사꾼들의 감언이설에 홀려 책을 구입하게 되고, 그 설명을 읽고 그런 줄 믿는다. 이러한 맹목적 믿음이 때로는 성서에 대한 심각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은 신자들이 해설 성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더 괴롭다. 때때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설을 들이대면서, ‘왜 당신의 설명은 이것과 다르나?’고 따져 묻는다. 이럴 경우, 목회자들은 그 해설 성서들을 다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대드는 경우는 차라리 낫다. 더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註)와 담임 목사의 설명이 다를 때, 권위를 책에 두고는, 성서 해석자로서 목회자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한다.

결국, 책임 없는 장사꾼들 때문에 교회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설 성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차였다. 물론, 출판업자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겠지만, 누군가 혹은 어느 단체에 선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행히, 대한성서공회에서 기존의 해설 성서들을 대치할 수 있는 좋은 해설 성서를 출판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아주, 시의 적절한 기획이라고 할 만하다.

1997년에 독일성서공회에서 발행한 해설 성서를 번역하여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를 발행하였고, 이어서 2001년에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발행한 해설 성서를 번역하여 『굿뉴스 스터디바이블』을 발행하였다. 이 두 해설 성서는 주해자의 실명이 분명히 밝혀져 있으며, 독일성서공회판의 경우에는 번역에 참여한 국내 학자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다. 둘 다 공인된 성서공회에서 출판된 것이라는 점이 독자들을 안심케 해 주며, 동시에 이것을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하여 발행했다는 점도 또한 큰 신뢰의 바탕이 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 획기적인 기획을 평가하여, 두 해설 성서가 어떠한

---

\* 협성대, 신약신학.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논할 것이다. 그 동안 필자는 개인적인 영성 생활 중에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의 신약 전체와 구약의 시가서와 예언서를 완독하였다. 그리고 영어판 해설 성서의 경우에는 신약의 일부를 읽었다. 필자가 이 두 권을 읽은 것은 평신도들이 성서를 읽는 것과 똑 같은 목적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영적 노력으로써 읽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 이 두 책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편의상, 두 권을 따로 나누어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 2.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

### 2.1. 장점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웬만한 주석에 비하여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세하고 깊어 있다. 각 책에 대한 개론적 설명도 충분하고, 지난 3백년 동안의 학문적 연구의 결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개론적 설명 부분만 따로 분리하여 재편집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성서개론'이 될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이 충실하다.

각 단락이 끝난 후에 붙여진 해설은 주로 신학적 해설에 치중한다. 물론, 때로는 문학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고, 역사적인 문제도 논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본문의 신학적 의미를 풀어 준다. 이 신학적 주석은 본문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을 많이 해결해 준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한 단락의 신학적 의미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방대한 주석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아마도, 시간에 쫓기는 설교자들은 이 해설만 참고하더라도 주석적인 근거를 최소한이라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본문의 주(註)에는 어휘 설명이 없는데, 그 이유는 책의 마지막에 첨부된 '용어해설'에 한 데 묶여 있기 때문이다. 성서 안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들은 수 없이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용어해설'을 따로 묶어 둔 것은 아주 좋은 착상이다. 그리고 각 용어에 대한 해설도 역시 그 내용이 충실하다. 웬만한 '신학용어사전'을 대신해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

관련성구를 표시하는 방법도 매우 요령 있는 방식을 개발하였다. 중요한 관련 성구들은 본문 해설에서 다루어 주고, 참고되는 성구들은 본문 아래에 표시해 넣었다. 사실, 관련 성구들은 전문적인 연구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큰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아주 좋은 기획을 하였다고 본다.

### 2.2. 단점

하지만 이 해설판은 여러 가지 보완할 점들이 있다. 우선, 독서 과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큰 단락에 대한 문학적 개관(overview)이다. 이 해설판은 하나의 책을 큰 단락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작은 단락으로 나누어 해설하고 있다. 하지만 큰 단락 전체에 대한 문학적 개관은 작은 단락에 대한 해설 안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아마도 역사적, 신학적 해설만을 강조하는 독일적 주석 학문 경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작은 단락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다시 말하면, 이 해설판은 주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원자론적으로 접근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거시적인 혹은 통전적인 접근이 보완되어

야 하고, 그것이 보완되어야 독자는 하나의 책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해설판을 사용하면서, 주(註)의 내용을 분리하여 편집했으면 독자에게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해설판은 하나의 단락에 대한 모든 설명을 하나로 묶어 제공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설을 모두 다 읽어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문 읽기’와 ‘본문 해설’을 나누어 놓았다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본문의 용어 해설이나 번역의 문제 혹은 지명이나 인명의 문제 등은 난하주(欄下註)로 처리하여 신속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신학적인 해설만은 단락 끝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했다면, 독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이 해설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이 독일에서 편찬된 해설서의 번역판이라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해설에 자주 등장하는 ‘루터 번역’에 대한 언급은 우리 독자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혹은 번역 문장이 어색하여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자주 발견되었다. 해설에서 독일식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 독자에게는 어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은 이 해설이 독일에서 독일 독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우리 독자에게는 불필요하게 느껴질 것이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이 해설이 신학자에 의해서 쓰여지고 우리의 번역도 역시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용된 용어들이 매우 전문적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전문적인 용어들을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바꾸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다. 필자같이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용어들이 낯설지 않지만, 일반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그 말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경우에도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많이 있다. 예컨대, ‘서신의 저자는 옛 언약과 그 규정들(율법)의 잠정성과 그림자적 성격을 거듭하여 강조한다’(히 10:1-4에 대한 주)는 문장을 일반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잠정성’이라는 말 혹은 ‘그림자적 성격’이라는 말을 일반 독자가 파악할 수 있을까? ‘그림자적 성격’은 국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은 말이다.

### 2.3. 종합적 평가

결국,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어느 정도의 신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을 위해서 매우 좋은 도구다. 또한 이 해설서는 본문의 의미를 깊이 파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진지한 독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신자들에게 이 해설서를 읽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그들에게는, 해설을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본문 자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목회자와 신학도들의 참고 문헌 가운데 하나로서 귀중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 3.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 3.1. 장점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우선 ‘판짜기’를 아주 잘 했다. 각 책에 대한 세밀한 개론적 설명이 관련된 참고 자료들과 함께 제시되어 있고, 본문에 들어가서 큰 단락의 문학적 구조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다. 이것은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어서 작은 단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매 단락 앞에 제시되어 있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가 각 단락의 끝에 해설을 붙여 두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해설은 신학적 주석이라기보다는 문학적, 역사적 설명이다. 본문을 읽기에 앞서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미리 알려 준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정보들은 난하주로 처리하였다. 용어설명, 관주, 본문비평상의 문제, 신학적 설명 등이 이곳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판짜기는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의 판짜기보다는 훨씬 더 ‘독자친화적’(reader-friendly)이다. 특히, 현대를 가리켜 ‘디자인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대에 이와 같은 판짜기는 매우 큰 매력이 될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어려운 구절에 대한 설명이 따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실, 독자로서 성서를 읽으면서 겪는 문제는 전체적인 의미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 자신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한 단락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註)를 읽는 횟수보다는, 어느 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를 참고하는 횟수가 월등히 더 많았다. 따라서 문제되는 어구나 문장을 해설해 주지 않는 주석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면,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서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어휘들의 경우, 『굿뉴스 스테디바이블』도 역시 책 끝에 부록으로 ‘용어해설’을 첨부해서 처리했다. 각 용어에 대한 해설이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의 해설보다 부실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더 용이하게 되어 있다. 또한 지명과 인명에 대한 ‘찾아보기’도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며, 틈틈이 제공해 준 지도들과 도표들도 역시 꽤 도움이 될 수 있다.

### 3.2. 단점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독자층을 일반 신자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시작한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의 내용이나 깊이가 그리 충실하지 못하다. 본문을 읽으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표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초적인 안내를 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해서 이 해설서를 읽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본문 앞에 붙어 있는 해설도 불충분하고, 난하주에 있는 해설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볼 때, 문제는 난하주에 있다고 판단된다. 본문 앞에 첨부한 해설은 일종의 ‘독서 안내’(reading guide)로서 충분하다. 그 정도의 안내는 있어야 본문을 읽는 데 도움을 삼을 수 있다. 문제는 난하주에 첨부되어 있는 해설이 매우 실망스럽다는 데 있다. 난하주에서는 주로 세 가지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하나는 용어 설명이다. 그러나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부록을 보라는 표시만 나와 있다. 때로는 난하주 전체가 부록을 보라는 표시로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부록의 ‘용어해설’을 보면, 그 용어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만 설명되어 있지, 특별한 책, 특별한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 또한 관련 성구를 난하주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처럼 간략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뿐 했다. 불필요한 지면을 낭비하고 말았다.

난하주에서 독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문제되는 어구에 대한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독자가 의문을 가지는 어구와 난하주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구가 거의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물론, 독자들이 의문을 제기할 만한 구절들을 모두 파악할 수도, 그것을 모두 해설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유점은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았다. 필자가



독자로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난하주의 설명은 거의 대답을 주지 못했다.

### 3.3. 종합적 평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평신도 용으로 아주 적합하다. 물론, 이 말은 평신도들의 지적 수준이 낮다는 뜻이 아니다. 수많은 신학 전문 용어들을 무신경하게 사용하고 있는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에 비하여 매우 일반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 해설 내용도 꽤 평이하다는 점에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독자들에게 적합하다는 뜻이다. 특히, 이 해설서는 개역 개정판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판짜기가 매우 신선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깊이 있는 신학적 탐구가 필요한 전문가들(목회자나 신학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 4. 두 해설 성서에 대한 평가

이렇게 본다면, 두 해설 성서는 성격적으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신학적 해설을 제공해 주고,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일반 독자들의 독서를 돕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전문가의 연구용으로 더 적합하고,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일반 독자용으로 적합하다. 이러한 평가는 앞으로 이 두 책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책을 펴낸 대한성서공회 측으로 볼 때에도 두 기획의 성격이 동일하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기획이 이렇듯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책은 그 존재 이유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두 책을 기획한 당사자들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두 해설 성서가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용어해설의 문제다. 앞서서도 지적했지만, 어떤 특정의 용어는 저자에 따라서 혹은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영광’이라는 용어가 출애굽기에서 뜻하는 바와 요한복음에서 뜻하는 바가 같을 수 없다. 그런데 두 해설서의 ‘용어해설’을 보면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사전적인 의미만을 밝혀 놓았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본문 해설 과정에서 그러한 차이점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지만,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용어해설’에 들어있는 용어들을 난하주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다. ‘용어해설’을 부록으로 두어 참고하도록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특별한 맥락에서는 중복되는 경우라도 굳이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두 해설서가 모두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 표현에 대한 해설이 전혀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원문이 우리 말로 번역되면서 어쩔 수 없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경우, 혹은 우리 번역에서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혹은 우리 문장의 구조상 문장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독자로서 필자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은 주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필자는 헬라어 원문을 참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독자들의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독자가 도움이 필요한 구절과 해설서가 제공해 주는 도움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자들이 우리의 독자들을 위해서 우리말 성경을 놓고 만든 해설 성서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 5. 한국판 해설 성서를 위한 제안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학자들에 의해서 해설 성서가 발간될 경우를 위해서 독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 한다. 한국판 해설 성서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지만 이 일은 필히 성사되어야 할 일이다. 천주교는 이미 200주년 기념 해설 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아직 신약만 완간되었지만, 그 기획은 실로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인 역작이다. 하지만 천주교의 해설 성서는 매우 전문적이다. 일반 독자가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자세하고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두 가지의 해설 성서를 번역 출판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해설 성서 완결편’을 만들어 내면 한국 교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신학도들을 가르치면서 꾸준히 성서를 붙들고 씩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해설 성서가 더욱 간절히 기다려진다. 그 기획을 예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본다.

### 5.1. 본문 해설에 대하여

우선, 한국판 해설 성서를 기획할 때, 판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판을 짜는 데 있어서 미관(美觀)도 고려해야 하고, 지면 사용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독자의 독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해설 성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독자가 본문을 가장 쉽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기 때문이다. 미관상의 문제와 지면의 효율적 사용의 문제는 출판인들의 기술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필자는 여기에서 독자의 독서를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판짜기를 제안하도록 할 것이다.

#### 개론

성서의 각 책 앞에 개론적인 안내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모두 좋은 ‘개론’을 각 책 앞에 달아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경우에는 구약성서 맨 앞에 ‘구약개론’을, 신약성서 맨 앞에 ‘신약개론’을, 그리고 각 문서 군(群) 앞에 또 다른 개론(‘오경개론’, ‘예언서 개론’, ‘복음서 개론’ 등)을 첨부해 놓았다. 이것은 성서를 좀 더 깊이 연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개론적인 안내를 함에 있어서 너무 전통적인 ‘개론학’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두 해설 성서의 단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개론학’은 각 책의 저자, 저작 시기, 저작 장소, 저작 이유 등에 대한 역사적 규명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의 경우 이러한 개론적 판단에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러한 정보가 실제로 그 책을 읽는 데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각 책의 개론에서는 그 책을 전체적으로 안내하고 그 책을 읽을 때 어떤 점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학문적 개론서의 축소판을 만들지 말고, 독자의 독서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독서 안내’(reading guide)를 제공해 주라는 말이다.

#### 큰 단락에 대한 안내

본문 해설에 있어서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큰 단락에 대한 안내'다. 이것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이 잘 해 놓았다. 하나의 책을 큰 단락으로 구분하여, 그 단락 안에서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미리 안내하는 것이다. 주로, 문학적 분석에 근거한 독서 안내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독자가 그 안내의 틀 속에 갇혀 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이 해설서가 일반 독자를 위한 안내라고 한다면,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이미 얻어진 학문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충실하게 안내해 주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독자들이 숲 속을 헤매면서 나무만을 보는 잘못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작은 단락에 대한 안내

그런 다음, 작은 단락에 대한 문학적 안내가 있어야 한다. 작은 단락은 현재 개역개정판의 표제를 기준으로 하면 무난하리라고 본다. 이 안내는 그 단락의 표제 아래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경우, 문제는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아 놓고 있다는 데 있다. 본문을 읽기 전에 그 본문을 모두 해설해 버리면 독서 결과에 지나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락을 읽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전 이해를 돕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러려면 문학적 구조와 특징 혹은 독서 방식에 대한 간략한 제안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러므로 '작은 단락에 대한 안내'는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분량보다 훨씬 줄어들어야 한다.

### 작은 단락에 대한 신학적 해설

독자로서의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한 단락을 읽고 나서 그 단락의 의미에 대하여 묵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학적 해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가 이런 방식을 취했다. 다만,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그 해설 속에 모든 것을 다 넣어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깨알같은 글자를 모두 읽어야 한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다 읽어도 찾으려는 해답은 없다! 우리 독자의 문제 의식에 근거하여 쓰여진 해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해설에서는 본문의 신학적 의미를 해설하면서, 동시에 독자가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할 공안(公案)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요즈음에 QT를 위한 해설 성서가 유행인데, 좀 더 평이한 문체로 신학을 해설해 주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들을 제안한다면, 다른 QT 가이드가 따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해설이 그러한 도움을 주려면 해설을 쓰는 사람이 필히 학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이한 신학 해설을 기대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실천적인 적용을 위한 안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혹은 필진에 현장 목회자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해설 성서의 생명은 얼마나 잘 활용되느냐에 있다. 아무리 학문적 평가가 좋아도 현장 안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실패작이 되고 만다.

### 난하주

그 외의 해설은 난하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본 상의 문제, 신학적 어휘 설명, 역사적 배경 설명, 번역 상의 문제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독자의 본문 읽기를 실제로 도와 주어야 한다. 이것도 역시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이 잘 해 놓았다. 문제는 그 난하주의 해

설이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 이유는 해설의 원본을 영역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난하주에 어떤 설명을 넣을 것인가의 문제는 철저히 한글 번역본(개역개정판 혹은 표준새번역 개정판)을 읽어 가면서 판단해야 한다. 우리 독자가 우리 번역 성서를 읽으면서 마주치게 될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개역개정판에는 아직도 한자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독자들에게는 그 정확한 의미가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어 사전을 떠들어 볼만큼 적극적인 독자들은 별로 없다. 따라서 난하주에서 그런 단어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말의 특성상 원문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특별한 해설이 필요하다. 책 마지막에 ‘용어설명’을 따로 두는 것은 좋으나, 하나의 책 안에서 특별히 사용된 용어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또 하나, 독서의 편의를 위해서 꼭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즉, 본문을 읽으면서 어느 단어 혹은 어느 어구가 난하주에서 해설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해당되는 단어나 어구 앞에 별표(\*)를 하든가, 혹은 글자 모양을 달리 하든가 해서, 본문을 다 읽은 후에 따로 해설을 보도록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천주교 200주년 기념 해설성서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독서 과정에서 매우 편리하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 표시가 나오면 난하주를 읽고 이해한 다음에 다시 독서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경우에는 그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 읽으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난하주를 보는데, 설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본문을 다 읽고 나서 난하주를 따로 읽어보아야 할 경우도 많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독자에게는 해설의 유용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망하게 만드는 요소다.

## 관주

관주는 성서를 깊이 연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도구다. 하지만 대개의 일반 독자들에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관주를 난하주에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지면이 낭비되었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의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 난하(欄下) 혹은 난측(欄側)에 설명 없이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부록

책 마지막에 부록에서 여러 가지의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인명과 지명에 대한 ‘찾아보기’는 특히 설교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요한 어휘들을 설명해 주는 ‘용어설명’도 필수적이며, ‘성서지도’ 역시 필요하다. 방대한 성구 사전을 첨부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용어들만을 선택하여 요령 있는 ‘성구사전’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설교자들에게는 더 없이 중요한 도구다. 그 외에도 이것이 스테디 바이블임을 고려한다면, 성서의 ‘도량형’, 각종 ‘연대표’, ‘이스라엘의 절기’, ‘성전 모형도’, ‘회당 모형도’ 등등의 도구들이 제공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5.2. 신학적 입장의 문제에 대하여

한국판 해설 성서를 기획하려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신학적 입장의 문제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모두 진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특히 ‘개

론'은 지난 3백년 동안의 역사비평적 연구 결과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이 좀 더 조심성 있는 접근을 취하고 있고,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좀 더 용감하게 학문적 연구 결과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신학적 입장은 본문에 대하여 해설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더 많이 반영되게 되어 있다.

필자는 지금 발행된 두 권의 해설 성서에 대하여 한국 교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적 경향의 목회자나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 왔는지 궁금하다. 아마도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근본주의적인 교단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훨씬 안전해 보이기 는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눈초리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몇 년 전에 표준새번역 성서를 놓고 '성경공회'를 세우겠다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내세웠던 한국 교회의 보수성을 생각해 본다면, 두 권의 해설 성서의 출판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판 해설 성서를 내려 할 경우에 더 심각할 수 있다. 성서를 번역하는 데에도 신학적 입장을 숨길 수 없었다면, 성서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그렇다면, 기획하는 쪽에서는 어떤 입장을 택할 것인가? 신학적 입장에 있어서 중간 입장이라는 것은 없다. 중간 입장을 택하면 오히려 어느 쪽에서도 지지 받을 수 없다. 차라리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보수적 입장을 택할 경우, 진보적 입장에서 보면, 비판 이전의 시대로 퇴보하는 일이 되므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반면, 진보적 입장을 택할 경우, 교회의 신앙을 해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보수적 성향의 목회자들의 목소리가 우세한 한국 교회의 상황을 두고 볼 때, 이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런 문제를 두고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 두 종류의 해설 성서를 기획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럴 경우, 예산상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 하지만 한글판 해설 성서가 다시금 한국 교회를 분열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보수적 성향이 다수라는 엄연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 교회 현장의 요구를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에게 어느 하나를 강요하지 말고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문제를 아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적 입장을 공표한 해설 성서와 보수적 입장을 공표한 해설 성서를 따로 냈으로써, 신학적 다양성을 그대로 끌어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제안이다. 억지로 통일을 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퇴보하고 말았던 찬송가 편찬 작업을 거울삼아, 좋은 기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6. 마치는 말

대한성서공회는 선교 2세기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한국 교회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기존에 출판된 두 가지의 해설 성서는 여러 가지로 한국 교회의 강단과 한국 교인들의 영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공헌을 할 것이다. 신학교 강의실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영성 생활에서 필자는 그 유용성을 충분히 체험해 왔다. 무책임한 상흔(商魂)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설 성서의 홍수 가운데서 독자들을 제대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획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출판된 것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독자의 가려운 곳을 충분히 긁어 주지 못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편찬 작업의 '노-하우'(know-how)를 기초로 하여 한국 교회에 좀 더 크게 봉사할 수 있는 한국판 해설 성서가 발행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지나치게 의존적인 한국 교인들이 스스로 성서를 읽고 말씀을 연구

하는 운동을 촉발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1세기의 역사 동안에 급성장한 한국 교회가 이제 2세기에 들어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말씀의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책임을 심각하게 느끼고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을 좋은 기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현대 영어 성경』 본문에 기초한 스터디 바이블(러닝 바이블)에 대한 소개 및 평가

류호준\*

본고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스터디 바이블에 대한 비평적 검토를 특집으로 다루는 『성경원문연구』 9호에 실릴 글 중에 하나이다. 지금 필자에게 주어진 임무는 미국 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에서 발간한 『현대 영어 성경』<sup>1)</sup>을 본문으로 삼고 있는 스터디 바이블(Study Bible)인 『러닝 바이블』<sup>2)</sup>에 관한 것을 ‘서술적’으로 소개하는 일이다. 따라서 비평적 검토는 매우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는 먼저 번역본으로서 CEV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그후에 스터디 바이블로서 LB의 관한 것을 다루려한다.

## CEV에 관하여

1995년에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에 의해 발간된 CEV는 KJV(King James Version)의 번역 정신을 살려 성경번역의 중요한 기준인 ‘정확성’, ‘아름다움’, ‘명료성’, ‘품위’를 염두에 두고 번역된 현대인을 위한 영어번역 성경이다. CEV의 번역 원칙은 성경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는데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CEV의 번역자들은 그들의 번역이 성경원문에 대한 문자적 번역이 아니라, 그 원문의 ‘의미’가 현대의 독자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되어 있다고 자부한다. 번역이론에 있어서, 소위 형식 일치(form oriented)의 번역이 아닌, 의미일치(meaning oriented) 번역 원칙이 일관되게 수용되고 있다고 명시한다. 물론 의미일치 번역이 번역을 넘어서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CEV 번역자들의 목적인 성경번역은 일차적으로 현대의 독자들과 청중들에게 잘 이해되어야 한다는 데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성경번역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CEV 번역자들이 유달리 강조하는 바는, 성경 번역에 있어서 성경은 단순히 ‘읽혀지는’ 책으로가 아니라 ‘들려지는’ 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 ‘독자’(reader)로서 뿐만 아니라 ‘청중’(hearer)으로서 그리스도인들 — 염두에 두면서 번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전통적인 성경 번역들은 독자가 인쇄된 본문을 살피면서 그 의미를 찾아낸다고 가정하지만, CEV는 독자와 청중을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관심을 둔다. 대부분의 경우, 청중은 낭독되고 있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단 한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기독교신학대학원, 구약학.

1) Contemporary English Version(1995년).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칭이 사용되었다: The Learning Bible = LB;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 CEV.

2) The Learning Bible(2000년).

예를 들어, 독자로서 성경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으로서 성경을 접하게 될 경우, 성경의 한 문장과 그 다음 문장 사이에 있는 놓여 있는 접속사 하나라도 그 문장의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EV는 개인적 경건 생활이나 성경연구를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예배 시에 ‘읽힐’ 수 있는 공적(公的) 용도를 염두에 두고 번역되었다고 한다.

CEV 번역본의 또 다른 특징은 히브리 시에 관한 이해이다. 히브리 시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일명 ‘평행법’(parallelism) 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참고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히브리 시의 형식적 특성을 그대로 살려 번역·인쇄한 한국어 성경 번역본이 아직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CEV는 이러한 히브리 시의 특성을 살려 번역·인쇄하였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 CEV 역시 현대의 중요한 영어번역본들(예,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International Version)의 선례를 따라 히브리 시를 번역하여 히브리 시 형식에 맞추어 배열하고 인쇄하였다. 다시 말해서 CEV도 히브리 시의 시행과 그 콜론을 배열하는 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처럼 보인다. 시편 114장 1-2절을 예로 들어 이 사실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1a)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쓰는 백성들로부터 나왔을 때(1b)

유다는 그의 성전이 되었고 (2a)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습니다.(2b)

히브리 시 이해에 따르면, 1a와 1b가 합하여 하나의 시행(詩行)을 이룬다. 즉 하나의 시행(poetic line)은 두 개의 콜론(col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콜론 사이에 구문론적, 의미론적 평행관계가 수립된다. 히브리 시를 번역하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서로 평행하는 콜론 중 첫 번째 콜론은 왼쪽으로 내어 쓰고(1a, 2a) 두 번째 콜론은 오른쪽으로 들여 쓴다(1b, 2b). 이러한 배열을 통하여 독자들이나 청중들은 히브리 시의 의미를 좀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앞으로 나올 한글 번역 성경들도 이러한 원칙을 추구했다면 좋겠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특별히 구약성경의 상당부분이 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CEV는 이러한 히브리 시의 형식적 원리(appearance)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콜론과 콜론 사이의 박자(measurement)에도 신경을 써서 번역하였다. 다음의 예를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예 1)	(예 2)
He brought me out into a broad place.	He brought me out into a broad place.
With the loyal you show yourself loyal.	With the loyal you show yourself loyal.
The LORD my God lights up my darkness.	The LORD my God lights up my darkness.

히브리 시행을 두 개의 콜론으로 나누는 일에 있어서, 예 1은 잘못되었지만, 예 2는 올바르게



된 것이다. 즉 예 2는 히브리 시의 형식적 원리뿐만 아니라, 콜론과 콜론 사이를 적절한 비율로 나누어 히브리 시의 맛과 멋을 함께 소유하게 한다.

그러나 히브리 시인들의 문체에 익숙하지 못한 현대인들은 콜론과 콜론 사이의 반복(평행법에 의한 반복)이 현대어(영어든지 한국어든지)로 표현하면 매우 어색해진다는 점을 인식하는 CEV는 히브리 시의 ‘형식’을 반영하기보다는 히브리 시의 ‘의미’를 반영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CEV의 번역자들은 히브리 시에 관한 다음과 같은 마르틴 루터의 번역원리를 따른다: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히브리적 문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일단 히브리 저자를 이해하였다면 그는 본문의 ‘의미’(sense)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경우에 독일인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물어야 한다. 일단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는 적절한 독일어가 떠오르면 그는 과감히 히브리어 단어를 버리고 그가 알고 있는 최상의 독일어로 자유롭게 그 의미를 표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CEV는 성(性, gender)을 표현함에 있어서 포괄적 용어를 사용한다(gender generic, inclusive language). 다시 말해서 비록 원문이 남성명사나 남성 대명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자와 여자를 다 가리키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CEV는 두 가지 성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번역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록 원문에 ‘형제들아’라는 남성호칭이 사용되어도, 번역할 때는, ‘형제 자매들아’ 혹은 ‘여러분들’로 한다는 것이다.

#### [요약]

CEV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선교 지향적인’ 번역본으로, 성경 원문의 ‘의미’를 현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의도되었다. 특별히 CEV는 현대의 크리스천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독자(reader)로서 뿐만 아니라 성경을 듣고 이해하는 청중(hearer)으로 인식한다. 성경 낭독을 듣는 청중을 염두에 두고 CEV는 ‘정확한’ 번역, ‘아름다운’ 번역, ‘명료한’ 번역 그리고 ‘품위 있는’ 번역을 지향하고 있다.

#### LB에 관하여

LB는 1995년도에 출판된 CEV를 본문으로 삼아 만든 스테디 바이블이다. 스테디 바이블로서 LB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성경학습을 위한 보조 도구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마치 교과서를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수련장이나 전과가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LB에 관하여 소개하기 전에 필자로서 독자들과의 양해를 얻을 사항이 있다. 필자에게 전달된 LB는 창세기 부분만 포함하고 있는 제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LB에 관한 필자의 소개와 논평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먼저 LB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I) LB가 독자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점은, 성경을 어디에서 시작하더라도 독자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스테디 바이블이라는 점이다. 마치 도로표지 역할을 하도록 꾸며졌다는 것이다. 성경 어느 곳에서 시작하더라도

하더라도 그 지점에서 전후좌우를 살펴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제공한다.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독자는 때때로 어느 곳으로 가야 할는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종종 독자들은 지금 자기가 읽고 있는 부분이 어떤 커다란 문맥(文脈)안에 자리잡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LB는 다양한 도우미들을 제공해준다. 다음의 것들이 LB가 제공하는 도로 표지판들이다.

첫째로, 성경의 각 권마다 그 책에 대한 포괄적인 안내를 제공한다. 일명 총론적 이슈들이라 불리는 내용을 제공해 준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그 책의 저자가 누구이며 언제 쓰여졌으며, 책의 중심주제는 무엇이며, 전반적인 구조는 무엇인가를 안내해 줌으로써 독자들이 그들이 읽고 있는 특정한 부분들이 속해 있는 전체적인 모습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구약/신약성경의 각 권들을 읽기 전에 구약성경이란, 신약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면 각 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안의 하부 단락들(예, 구약성경의 경우는 오경, 예언서, 성문서; 신약성경의 경우는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에 대한 소개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가 들어 있는 ‘오경’에 관해 알면 많은 도움을 얻는 것과 같다.

둘째로, 성경 본문 안에 커다란 문학적 단위들인 단락(Section)들을 나누어 놓고, 그에 대한 제목(Heading)들을 붙여 놓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 그가 읽고 있는 단락의 주제와 내용을 기억하도록 한다. 물론 제목 설정이 편집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기인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제목 설정을 통하여 독자들의 성경연구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LB는 제목(Heading) 아래에 그 단락에 관한 종합적인 설명을 달아 놓고 있어서 독자로 하여금 지금 그가 읽으려 하는 단락의 전반적인 사건 흐름과 교훈들을 숙지하게 한다.

(II) LB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가 읽고 있는 글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간단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현대의 독자들에게 생소한 단어나 관습이나 개념들에 대한 설명들을 6개의 범주로 나누어 소개한다:

(1) 지리: 예, 창 14:14-17에는 ‘단에서부터 ... 왕의 골짜기’라는 일련의 지명들이 나온다. 이에 대해 LB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단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باط은 다마스쿠스의 북쪽 지역이다. 아브람과 그의 용병들은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약 150마일 정도 추격하여 롯을 구원해냈고(14:16) 왕의 골짜기로 돌아왔다. 왕의 골짜기는 아마 예루살렘의 동쪽 계곡을 가리키는 듯 하다(삼하 18:18)”

(2) 민족과 국가들: 예, 창 14:18에는 ‘살렘의 왕 멜기세덱 ...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인명이 나온다. 이에 대해 LB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正義)의 왕’이란 뜻을 지닌다. ‘살렘’은 ‘평화’란 의미이다(히 7:2을 보라). ‘살렘’은 아마 ‘예루살렘’을 줄여서 사용한 용어인 듯 하다. 고대 국가에 있어서, 왕이나 지도자는 종종 제사장의 종교적 의무를 함께 수행한 일이 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가나안 신들 중 가장 높은 신의 이름이다. 아브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야웨’와 동일시하고(창 14:22; 또한 민 24:16; 시 46:4을 보라) 멜기세덱에게 그가 소유한 것의 십일조를 드린다. 십일조는 왕이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삼상 8:15,17). 멜기세덱은 시 110:4에서도 언급된다.”

(3) 사물이나 식물이나 동물: 예, 창 19:3에는 ‘무교병’(無酵餅)이 언급된다. 이에 대해 LB는 다

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효소를 넣지 않은 빵’이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푸석푸석하고 밋밋한 빵은 갑자기 온 손님들을 위해 빨리 만들어 대접할 수 있다. 그러나 효소를 넣은 빵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구워낼 수 있다. 롯의 손님 접대와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를 비교해 보라(18:16의 노트를 보라).”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창 8:6-8에는 “까마귀를 ... 비둘기를 내어 보냈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에 대해 LB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까마귀는 색깔이 까맣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생존력이 강한 새다.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간주되는데, 모세의 법에 의하면 까마귀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새며, 속죄 제물로도 적합하지 않다(신 14:14을 보라).

비둘기는 ‘깨끗한’ 새로, 훈련시키면 메시지를 나르는 전령 역할을 할 수 있다. 모세 법에 의하면, 비둘기는 커다란 짐승으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속죄 제물로 사용되기도 한다(레 5:7을 보라).”

(4) 역사와 문화: 예, 창 9:9에는 ‘언약’이란 단어가 나온다. 이에 대해 LB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언약’이란 두 사람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 혹은 집단들이 서로 간에 약정을 맺는 것을 가리킨다. 대부분 고대의 언약들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약정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진술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무조건적 약속을 하신다(9:11,15). 무지개가 이러한 약속의 징표가 될 것이다. 약정에 있어서 노아의 역할은 진술되고 있지 않다. ‘약정’(언약)에 관한 작은 논문을 참조하라(p. 368)”

(5) 특정 개념들: 예, 창 4:7에는 “죄가 문에 엮드린다”는 표현이 있다. 이에 대해 LB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죄가 너를 공격하기 위해 기다린다’는 문구는 문(門)에서 기다리고 있는 귀신을 가리키는 바벨론어(語)에서 유래하였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레 달려들 태세로 위협하고 있는 귀신을 연상시킨다. 죄는 가인이 옳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죄’에 관한 작은 논문을 참조하라(p. 2089).”

(6) 상호관련구절: 예, 창 6:5-8의 경우, 신약성경의 눅 17:26과 벰전 3:20과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간단한 설명들로는 부족할 경우, LB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항목을 첨부한다:

(1) 소 논문 및 배경 설명을 위한 논문들: 약 100개가 넘는 소 논문들과 15개의 배경설명을 위한 논문들을 포함한다. 특별히 성경과 성경 형성에 관한 글, 고대세계와 이스라엘 종교에 관한 글, 예수님 당시의 세계에 관한 글들이 눈에 띈다.

(2) 특정 성경구절이 다른 곳의 구절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것을 표기해 줌으로써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3) 각주의 사용: LB이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CEV가 히브리어와 헬라이어 원문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대 사본상 불확실한 경우, 각주를 달아 설명한다.

(4) 성경과 관련된 연대표를 차트로 만들어 독자에게 도움을 준다.

(5) 성경을 읽으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지명들을 다양한 지도들을 통해서 알려준다. 성경의 지역들(聖地)에 관한 좋은 안내 역할을 해준다.

(6) 성경시대의 생활과 삶의 풍속을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다양한 사진들, 도표들, 그림들을 포함한다.

(III) 스터디 바이블의 또 다른 목적중의 하나는 독자들이 하여금 성경의 메시지에 연결하여 주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지는 않을 것이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인도해 주는 진리와 위로, 영적 통찰력 등을 담고 있다고 믿고 있다. 독자들을 이러한 것들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LB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항목들을 싣고 있다:

(1) 다양한 문화에서 나온 그림들이나 조각품들을 스터디 바이블에 넣음으로써 독자들의 소양과 영성을 풍요롭게 해준다.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에 관한 현대 미술가 Sadao Watanabe(1980)의 그림, 리브가와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만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민속 그림(19세기), 네덜란드의 국보적 미술가 렘브란트(1656)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야곱'의 그림 등이 삽입되어 있다.

(2) 각 권별 성경 안에 본문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질문' 항목을 삽입함으로써, 본문이 독자들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관해 생각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 항목은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3) 중요한 성경구절이나 감동적인 구절들을 본문 외곽에 따로 뽑아 인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즐겨 암송할 것을 권한다.

(4) LB 뒤편에는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차트로 만들어 놓았다.

스터디 바이블로서 LB는 이상과 같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편찬되었다. LB 전체를 다 취급하는 대신에 특정한 예로서 창세기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LB의 유용성이 무엇인가 알아보자. 위에서도 언급한 바대로, LB는 창세기를 설명하기 전에 오경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오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구약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구약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에 관해 설명한다. (성경→구약→오경→창세기). 이러한 전략은 독자들에게 거시적 안목에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입지를 제공한다.

### [구약이란?]

먼저 LB는 창세기에 들어가기 전, '구약'이란 문헌에 관한 포괄적인 논문을 싣고 있다. '구약'이란 이름이 생겨나게 된 유래, 구전으로 내려오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집되고 글로 쓰여지게 된 사실, 구약에 사용된 언어들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묘사한다:

구약은 신앙의 책이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구약을 거룩한 책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의미와 권위를 지닌 책으로 받아들인다. 구약성경의 대부분이 공적 예배 시에 읽히거나 노래로 불린다. 구약성경의 율법들과 교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반영한다. 구약성경의 이야기들은 신앙과 순종의 문제들로 고민하고 갈 등하였던 보통 사람들의 좋은 예들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을 가르치며 영감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를 보여준다.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올바른 삶과 합당한 예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을 향해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불순종한 자들이라도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지혜문헌들은 삶을 위한 실질적인 권고를 하며,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고민스럽게 갈등했던 삶의 문제들을 탐구한다.

## [오경]

구약성경에 관한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다룬 다음, LB는 오경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담고 있다. 오경은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하여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 인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삶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들과 교훈들을 받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 [창세기]

오경에 관한 간단한 안내를 마친 후에, 창세기로 들어간다. 그리고 창세기 본문에 대한 노트에 들어가기 전,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한 후 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한다: 창세기는 무엇이 특별한가? 왜 창세기는 기록되었는가? 창세기에 깔려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창세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마지막 질문(창세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은 LB의 창세기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LB에 의하면 창세기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인간 역사의 시작(1:1-11:25)

하나님께서 우주와 생물들을 창조하시다(1:1-2:25)

에덴 안의 죄(3:1-4:16)

첫 번째 시대에 해당하는 인류들(4:17-5:32)

노아와 그 후손들(6:1-11:25)

###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시작(11:26-50:26)

아브라함, 사라, 이삭(11:26-23:20)

이삭과 그의 가족들(24:1-28:9)

야곱과 에서,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28:10-36:43)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37:1-50:26)

이상과 같은 창세기의 구조에 따라 LB는 다시금 소제목들을 붙인다.

### 인간 역사의 시작(1:1-11:25)

하나님께서 우주와 생물들을 창조하시다(1:1-2:25)

창조 이야기(1:1-2:4a)

에덴 동산(2:4b-25)

에덴 안의 죄(3:1-4:16)

첫 번째 죄(3:1-8)

죄로 인한 문제발생(3:9-24)

-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다(4:1-16)
- 첫 번째 시대에 해당하는 인류들(4:17-5:32)
  - 더 많은 사람들의 출현(4:17-26)
  - 아담의 후손들(5:1-32)
- 노아와 그 후손들(6:1-11:25)
  - 야웨께서 홍수를 보내다(6:1-22)
  - 홍수(7:1-24)
  - 물이 줄어들다(8:1-19)
  - 지구를 위한 야웨의 약속(8:20-22)
  -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9:1-17)
  - 노아와 그의 가족들(9:18-28)
  - 노아의 후손들(10:1)
  - 야벳의 후손들(10:2-5)
  - 함의 후손들(10:6-20)
  - 셈의 후손들(10:21-31)
  - 바벨의 탑(11:1-9)
  - 셈의 후손들(11:10-25)
-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시작(11:26-50:26)**
- 아브라함, 사라, 이삭(11:26-23:20)
  - 테라의 후손(11:26-32)
  - 아브라함의 소명(12:1-9)
  - 이집트의 아브라함(12:10-20)
  -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다(13:1-13)
  -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이주하다(13:14-18)
  -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다(14:1-16)
  -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다(14:17-24)
  - 아브라함을 향한 야웨의 약속(15:1-6)
  - 야웨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다(15:7-21)
  - 하갈과 이스마엘(16:1-16)
  -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17:1-27)
  - 야웨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다(18:1-15)
  -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하다(18:16-33)
  - 악한 도시 소돔(19:1-22)
  -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다(19:23-29)
  - 모압과 암몬(19:30-38)
  - 그랄 지역의 아브라함과 사라(20:1-18)
  - 사라가 아들을 낳다(21:1-8)
  -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다(21:9-21)
  - 평화의 조약(21:22-34)
  - 야웨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다(22:1-19)
  - 나홀의 자녀들(22:20-24)
  - 사라의 죽음과 장사(23:1-20)

- 이삭과 그의 가족들(24:1-28:9)
  - 이삭을 위한 아내(24:1-67)
  -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결혼하다(25:1-6)
  - 아브라함의 죽음(25:7-11)
  - 이스마엘의 자손들(25:12-18)
  - 에서와 야곱의 출생(25:19-26)
  - 에서가 장자권을 팔다(25:27-34)
  - 이삭과 아비멜렉(26:1-33)
  - 에서의 이방 아내들(26:34-35)
  -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다(27:1-46)
  - 야곱을 향한 이삭의 교훈(28:1-5)
  -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다(28:6-9)
- 야곱과 에서,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28:10-36:43)
  - 벤엘에서의 야곱의 꿈(28:10-22)
  -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다(29:1-14)
  -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다(29:15-35)
  - 라헬과 레아 사이의 갈등(30:1-13)
  - 야곱의 자녀들—사랑의 꽃들(30:14-24)
  - 야곱과 라반(30:25-43)
  -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하다(31:1-21)
  - 라반이 야곱을 따라가 잡다(31:22-42)
  - 야곱과 라반이 협정을 맺다(31:43-55)
  -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32:1-21)
  -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다(32:22-32)
  -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33:1-17)
  - 야곱이 세겔에 도착하다(33:18-20)
  - 디나가 강간당하다(34:1-24)
  - 디나의 오빠들이 복수하다(34:25-31)
  - 야곱이 벤엘로 돌아가다(35:18)
  - 하나님이 벤엘에서 야곱을 복주시다(35:9-15)
  - 베냐민이 태어나다(35:16-22)
  - 야곱의 열 두 아들들(35:23-26)
  - 이삭이 죽다(35:27-29)
  - 에서의 가족(36:1-14)
  - 에돔의 족장들과 지도자들(36:15-43)
-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37:1-50:26)
  - 요셉과 그의 형제들(37:1-11)
  - 요셉이 팔려 이집트로 가다(37:12-36)
  - 유다와 다말(38:1-30)
  -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39:1-23)
  - 요셉이 감옥에 갇힌 자들의 꿈의 의미를 알려주다(40:1-23)
  -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다(41:1-36)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다(41:37-57)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다(42:1-24)  
 요셉이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다(42:25-38)  
 요셉의 형제들이 베나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다(43:1-34)  
 잃어버린 은잔(44:1-17)  
 유다가 베나민을 위하여 간청하다(44:18-34)  
 요셉이 자기에 관해 형제들에게 알리다(45:1-28)  
 야곱과 그 가족이 이집트로 가다(46:1-47:12)  
 이집트 안의 기근(47:13-26)  
 노인이 된 야곱(47:27-31)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다(48:1-22)  
 야곱이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다(49:1-28)  
 야곱의 죽음(49:29-50:14)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약속하다(50:15-21)  
 요셉의 죽음(50:22-26)

이러한 패턴은 LB 전체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상과 같은 소개를 통하여 LB의 모습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나가는 말

LB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CEV는 최근판(1995년) 영어성경 번역본이다. CEV는, 이미 전 세계의 영어권의 학계와 교계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아 학문적 논의의 대상으로, 혹은 공예배시의 식용으로, 혹은 개인적 경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영어 번역본들(예, NRSV, NIV)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번역본은 아니지만, New Living Translation(NLT)처럼, 분명히 현대인들의 어법과 이해에 눈높이를 맞추어 만들어낸 최근판 번역 성경임에 틀림없다.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CEV는 독자의 편의와 선교를 염두에 둔 번역이다.

LB는 이렇게 ‘쉽고 읽기 좋게’ 번역된 CEV를 본문 삼아 성경 독자들의 성경연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출판된 스테디 바이블이다. 다른 스테디 바이블들처럼, LB 역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리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집필되고 편찬된 성경공부용 성경이다.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비교적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쓰여졌다.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진지한 독자들의 바람을 어느 정도는 만족스럽게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권 성경 시장에는 수많은 스테디 바이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때로는 특정한 독자층(소비자층) — 예, 십대를 위한, 남자만을 위한, 여성만을 위한, 심지어 적극적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을 위한(!) 스테디 바이블 등등 — 을 염두에 두고 그것들 나름대로 특징들과 장점들을 소개하고 판촉에 온 힘을 기울인다. LB 역시 그렇다. 문제는 독자들이 얼마나 값지게 스테디 바이블을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스테디 바이블은 성경 이해를 위한 보조 도구이지 결코 성경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도 다양한 스테디 바이블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이미 상당한 수의 스테디 바이블이 시중에 나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테디 바이블인가 하는 점이다.



# 말씀과 삶의 조화: 『러닝 바이블 - 현대인을 위한 영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소기천\*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손에 쥘 때마다, 필자의 마음은 높은 하늘의 흰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느낌이 든다. 눈이 상쾌해지고 코끝에 새 책 냄새가 전달되면서 마음속까지 시원해진다. 『러닝 바이블』<sup>1)</sup>은 뉴욕(New York)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가 1995년에 번역을 완료한 본문에 2000년에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해설과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포함시켜서 총천연색으로 출간한 현대판 영어 성경이다. 『러닝 바이블』은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현대인을 염두에 두고 편찬해 낸 성경이다. 특히 초신자들과 청소년들과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편찬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영어번역으로 현대인 앞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성경이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 책은 성경의 문외한들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켜 줄 것이라 확신한다.

이러한 사실은 신구약성경의 약어표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는 목차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경이 약어표를 구약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부터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책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그러나 『러닝 바이블』은 약어표에서 영어 철자의 순서대로 신구약성경을 나열하여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스바냐」로 끝을 맺고 있다. 이러한 영어 철자 순서에 입각한 약어표는 신구약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초신자들이나 심지어 불신자에게 아주 친숙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미국성서공회의 따뜻한 배려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러닝 바이블』이 현대적인 번역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어번역 성경의 최고의 권위라고 할 수 있는 1611년에 발간된 킹 제임스 역본(King James Version)의 정신과 형식을 그대로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러닝 바이블』은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철저한 킹 제임스 역본의 정신과 신앙고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지난 120여년 동안 한국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계속해 왔는데, 앞으로 대한성서공회가 한국인의 손에 의한 성경번역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성경 본문을 한글로 세상에 내놓게 될 날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필자는 『러닝 바이블』과 같이 영감에 넘치는 해설과 유익한 정보들을 담은 성경을 한국인의 손으로 세상에 내놓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 글을 쓴다.

## 1. 번역에 대하여

현대어 번역 성경의 특징이 ‘쉬운 번역’에 있다고 말한다면, 『러닝 바이블』은 그 특징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무리 쉽게 번역을 하여도 성경은 역시 어렵다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목사.

1) 『The Learning Bibl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King James Version</b>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Happy the destitute in Spirit. <b>The Emphasized New Testament</b>	Blessed—happy, to be envied, and spiritually prosperous [that is, with life-joy and satisfaction in God’s favor and salvation, regardless of their outward conditions]—are the poor in spirit (the humble; rating themselves insignificant). <b>The Amplified New Testament</b>
... those who feel their spiritual poverty. <b>The Berkely Version of the New Testament</b>	Happy are those who know they are spiritually poor. <b>Good News Study Bible</b>	God Blesses those people who depend only on him. <b>Contemporary English Version</b>

통념이 있는데, 『러닝 바이블』은 우선 외형적으로 총천연색으로 책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과 도표와 지도와 그림을 삽입하고 있어서, 성경이 지니고 있는 부담감을 독자에게 상당 부분 덜어주고 있다. 문체에 있어서도 아주 쉽고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읽어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러닝 바이블』은 아주 쉬운 번역 성경임이 틀림 없다.

성경 역에 있어서 언제나 대립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직역(直譯)과 의역(意譯)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러닝 바이블』은 의역 곧 ‘풀어쓰기’를 원칙으로 하여 출간된 성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신약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영어와는 그 언어적 형식과 구성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헬라어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본문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될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직역이 지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의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의역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본문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로부터 상당히 멀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직역과 의역 사이에서 번역자는 긴장감을 고려하여 적절한 번역을 제시해야 할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필자는 『러닝 바이블』이 의역을 한 본문의 경우를 마태복음 5장 3절을 예로 들어서 다음과 같이 도표로 만들어 보았다.

이상의 번역본들을 비교해 볼 때에, 『킹제임스 역본』이 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마지막에 인용한 『러닝 바이블』을 포함한 다른 번역본들은 모두 의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의역이 독자들에게 쉬운 번역으로 다가오는 것은 오늘날의 성경 번역의 일반적인 추세라고 말할 수 있다.

## 2. 책의 구조에 대하여

## 2.1. 신약성경과 지리

흔히 성경을 읽을 때, 팔레스타인의 지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다. 『러닝 바이블』은 이러한 궁금증을 철저하게 해결해 주고 있는 성경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리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을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림과 충전연색 사진을 곁들여 가면서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흥미로운 자료들을 통해서, 독자는 당대의 건축 구조와 기후와 지형과 풍습과 전통과 예술과 종교와 문화와 삶의 방식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성경의 환경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독자에게 성서지리에 대한 신선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러닝 바이블』은 책의 마지막에 방대한 지도(2364-2379쪽)를 충전연색으로 그려 놓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행로를 상세하게 첨부해 놓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성서지리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다.

## 2.2. 신약성경의 사람들

초신자들이나 청소년들이 신약성경을 읽을 때, 낯선 인물들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성서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진다. 『러닝 바이블』은, 거의 모든 신약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이러한 궁금증을 상당 부분 해소하여 주고 있다. 그들 가운데 유대교 종파에 해당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열심당(젤롯)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제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천사들이나 예언자들의 이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다.

특히 신약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복음서마다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 제자들의 명단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설명을 해준 것(1758쪽)과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1996쪽)과 이방인들에 대한 설명(2033쪽)과 헬라와 로마의 신들에 관한 이름과 그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2042쪽)과 각각의 신약성경 기자들에 대한 설명은 아주 유용한 정보이다.

## 2.3.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동식물들

동물학자나 식물학자가 아니더라도 신약성경의 세계에 등장하는 동식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러닝 바이블』은 이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는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 온 박사들이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을 비롯하여, 박하와 운향과 채소에 이르기까지, 여우와 늑대 등의 동식물들을 포함, 이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그림과 사진인데, 신약성경을 읽어 나가는 독자들에게 충분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정보라고 확신한다.

그 가운데 흥미로운 그림은 유대 포도원 전경(1784쪽)과 나귀가 짐을 운반하는 모습(1786쪽)과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모습과 물고기들(1816쪽)의 그림은 실제적으로 독자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하다.

## 2.4. 신약시대의 역사와 문화

성서고고학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성경 본문이 증거하는 내용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고고학적 발굴물들은 성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에 대해서 폭 넓은 배경지식을 전해 주고 있지만, 각종 발굴물들을 해석하여 성경 본문과의 상호 비교 속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만큼, 우리는 팔레스틴의 지리와 역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 본문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들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 간혹 복음서와 관련된 고고학적 발굴물의 빈약함을 절대시하여 예수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지만, 이는 발굴물의 제한성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학자들의 열은 판단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성서고고학은 고고학적 발굴물들을 통해서 신약성경의 말씀과 행동의 역사성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갈릴리를 중심으로 전개된 예수의 공생애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 근거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물론, 역사적 발굴물들이 신약성경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성서고고학은 성서본문을 당시의 정치경제적 혹은 사회문화적 틀 속에서 관찰하게 함으로써 신약성경에 역사적 객관성을 부여해주는 효과를 낳는다.

『러닝 바이블』은 오늘날의 고고학적 발굴을 기초로 신약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적 활용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성경이다. 역사적 예수의 일차적인 자료들로서 우리는 신약성경의 복음서들과 각종 외경의 복음서들과 당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들을 꼽을 수 있지만, 고고학적 발굴물들은 나사렛 예수를 갈릴리의 가난한 농부 출신으로 입증해 주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예를 들면, 세포리스와 디베리아는 신약성경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도시들이지만, 당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곳이었음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왜냐하면, 이들 도시들은 로마가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들이었고, 조세를 거두고 군인들을 주둔시키고 로마가 건설한 길을 따라서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던 도시들이었기 때문이다.

『러닝 바이블』은 이런 도시들에 대한 발굴장면과 복원 사진이나 그림을 소개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역사적인 사건을 시대별로 요약한 도표(2360-2363쪽)와 상상하면서 그린 후대의 성화를 동원하여, 당시의 문화와 역사에 빈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에게 참신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 가운데서, 두 마리의 소가 밭을 가는 장면(1715쪽)과 양모로 실을 만들고 옷을 짜는 장면(1717쪽)과 포도즙을 짜는 모습(1950쪽)과 빵을 굽는 모습(1963쪽)과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1808쪽)은 독자들에게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설득력이 있게 재현해 준다. 그리고 당대의 거주문화라든지 일상생활 속에 사용하던 동전들과 갖가지 화상들은 독자들을 구체적인 신약성경의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 2.5. 중요 개념들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언어를 떠나서는 인간이 사고를 전개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러닝 바이블』은 신약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서 중요 개념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때때로 그것들은 작은 논문의 형식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독자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책의 마지막 부분(2380-2382쪽)에 목차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중요한 개념 설명 가운데에서, 유대적 배경에서 형성된 할례(2158쪽)라든지 장례문화(1896쪽)와 같은, 유대적 특성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고 있으며, 성령(1987쪽)

과 세례(1874쪽)와 하나님의 아들(1947쪽)과 인자(1754쪽)와 구원(1923쪽)과 재림(2184쪽)과 같은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더욱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도표(1720쪽)와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는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도표(1726-1727쪽)는 아주 유용하다.

## 2.6. 관주 성구들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관련 구절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독자들이 많다. 이 점에 있어서 『러닝 바이블』은 방대한 관주 성구들을 편리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약성경의 인용이 주로 70인역본(LXX)에 의지해 있는데, 본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어서 독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다.

『러닝 바이블』의 관주 성구들은 복음서의 서로 유사한 구절들을 모아놓았으며 서신의 유사한 구절들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모아놓았기 때문에, 독자들이 그 전승의 전개 과정을 추정하고 전후에서 영향을 주고받은 신약성경의 책들을 추정하기 용이하도록 배려하였다.

## 2.7. 질문들

『러닝 바이블』이 다른 번역 성경과 완전히 다른 한 가지는 작은 단락 마지막에 몇 가지 성경 본문을 토대로 독자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질문 부분이다. 그런데 단순히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차원이 아니라, 독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삶 속에서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려는 질문들이 많다. 이렇게 의도된 질문들은 다분히 본 성경의 번역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성경이 염두에 두고 있는 다음과 같은 번역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

『러닝 바이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을 초대한다.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번역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서로 공유하여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가 사분 오열되고 신자들마다 하나의 신앙을 공유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본 성경은, 일치된 신앙과 삶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훈할 수 있는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질문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필자는 나름대로 교회의 성경공부에 활용하거나 청소년들이 그룹 활동에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래의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구절을 읽고 서로 삶을 나누며 상대방의 생각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은 그만큼 넓어질 것이다.

## 3. 평가

어떤 책이든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신약성경의 독자는 신자들이다. 그런데 『러닝 바이블』은, 세계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의 독자들을, 신자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는 성경책이다. 물론 이 책은 미국성서공회에서 발행되었으며, 교회와 신자들을 목표로 출간된 책이지만, 기존의 성경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성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였던 초신자들까지도 『러닝 바이블』을 통해서 흥미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이미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한 것처럼, 본 성경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쉬운 번역으로 성경에 대해서 왕초보도 이해하기 쉽다.

둘째, 총천연색으로 상품가치가 있다.

셋째, 읽기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다.

넷째,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

다섯째, 성서 지리에 대해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여섯째, 사진과 그림만으로도 간직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

일곱째, 부록에 있는 성경읽기표를 따라서 하루에 5분 읽으면 일년에 다 읽는다.

그럼에도, 『러닝 바이블』은 또 하나의 전문적인 성경번역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장점은 제목만 나열하여도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으리라 짐작하는데, 단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래와 같이 긴 설명을 하여야 할 것 같다.

첫째, 신약성경의 각 책에 대한 필수적인 개론이 너무 빈약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를 들면,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각각에 대한 개론을 달아 주어서, 언제 어느 곳에서 기록되었으며 누가 어떤 신앙 공동체에게 기록한 복음서인지를 밝혀 줄 때, 독자들이 더 자세하게 본문의 내용을 실감하게 될 줄로 안다. 물론 『러닝 바이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약성경을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각 책의 간단한 개론을 사전에 독자들에게 요약적으로 소개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공감하면서도 독자들의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자면, 독자들은 신약성경 각 책의 삶의 정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신약성경의 각 책이 당대를 살아갔던 신앙인의 삶에 직결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해결하였던 점을 중시함으로써, 오늘날의 독자들도 그것을 거울 삼아서 오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론은 단순히 각각의 책을 소개하는 정도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장에 대한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고자하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연 성경이 기록된 시기를 추정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인가? 『러닝 바이블』이 신약성경의 시대에 대한 갖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풍부하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반드시 각각의 책에 대한 역사적인 삶의 정황뿐만 아니라 그것의 대략적인 기록시기도 독자들에게 명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성경의 해석 방법은, (1) 교리적 해석과 (2) 역사적 해석과 (3) 목회적/신학적 해석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러닝 바이블』이 현대적 성경 번역의 특성을 살려서 쉬운 영어로 본문을 번역하고 있지만, 각 교단마다 다른 교리상의 미묘한 차이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교리적 해석을 지양하고 있으며, 각 교회의 전통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이함을 피해가기 위하여 목회적/신학적 해석을 지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본 번역서는 역사적 해석에 치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지리적인 배경과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일반적인 배경과 당대의 풍속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풍부한 자료들과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보 자료들이 성경 본문의 특수한 내용에 얼마나 직접적인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1808쪽에 로마 병정들이 당시 죄수들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과연 그 그림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련된 나무 의자에 앉힌 자세로 두 발을 옆으로 모아서 발뒤꿈치와 복숭아뼈 사이에 못질을 하여 십자가에

달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그림을 보는 신자들마다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당시의 역사적 정황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도 그럴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역사적 해석이 지니고 있는 한계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해석은 교리적 해석과 목회적 신학적 해석을 도움을 받아서 항상 재정립되어야 한다.

# 우리가 만드는 해설 성서-

## 무엇을, 왜, 어떻게:

### 우리말 해설 성서의 작성과 편집을 위한 제안

왕대일\*

#### 1. 우리말 해설 성서를 만들자

해설 성서의 역사는 중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책의 페이지마다 마소라 본문과 타르굼을 기록한 본문으로 실은 뒤 그 여백에다가 저명한 유대 랍비들의 주석과 해설을 실었던 유대교의 “큰 성서”(미크라오트 그돌로트)나, 성서 본문의 여백에 간단한 해설, 복음서 저자에 대한 소개를 써놓고 정경의 순서, 병행구절 목록 등을 첨부한 다음 예수의 어록을 붉은 색 잉크로 표시해서 호화 장정 형식으로 묶은 사복음서 같은 것들이 해설 성서의 출발에 해당된다. 그러나 성서를 심각하게 읽도록 돕는 장치는 이보다 훨씬 더 앞선다고 볼 수 있다. 유대교의 마소라 본문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해설 성서였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따지고 보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시리즈나 우리말 관주(貫珠) 성서 등도 해설 성서의 범주에 든다고 말할 수 있다. 거기에는 모두 독자의 독서를 --그것이 학문적이든, 비평적이든, 연구용이든, 경건 생활을 위한 것이든-- 돕는 일정한 장치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서의 우리말 번역은 발췌 번역부터 따져 본다면 그 역사가 17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sup>1)</sup> 우리말 성서 번역의 역사가 이미 200년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이다. 거기에 비할 때 우리말 해설 성서의 역사는 미천하기 짝이 없다. 관주 성서의 경우 1910년에 나온 『부표 관주 신약전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1980), 『해설·관주 성경전서』(1997)에 이르고 있으나,<sup>2)</sup> 성서 본문의 난외주나 난하주에 관주 형식의 성구를 소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 신구약개론, 성서해설, 삽화, 연대 등의 머리말을 수록하면서 총론, 사전, 지리, 성구, 목록, 지도, 화보, 도표 등을 부록으로 제시한 본격적인 해설 성서는 1965년에 와서야 등장하게 된다.<sup>3)</sup> 우리 나라 개신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설 성서는 대부분 1961년 판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대한성서공회)을 그 기본 본문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 그 본문에 대한 해설 성서의 역사는 빨라도 1961년 이후부터가 된다.<sup>4)</sup> 우리 교계에 해설 성서가 등장하게 된 때가 불과 몇 십 년 전이라는 것이다.

\* 감신대 교수, 구약학

1) 대한성서공회가 2001년에 출간한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서두에 실린 “우리말 번역 성서의 역사”(pp. 22-29)가 이 점을 밝혀주고 있다. 번역 초창기에 시도된 발췌 번역에 속하는 성경직해광익(聖經直解廣益)의 경우 최초 필사본은 179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2) *Ibid.*, 26-27.

3) 이 책(『성경원문연구』 제 9호, pp. 7-40)에 실린 민영진, “우리말 해설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를 참조하라. 1965년에 출판된 장시화 편, 『백과 신약전서』(서울: 세계복음화운동본부출판부, 1965)가 우리 나라 개신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최초의 해설 성서로 간주될 수 있다.

4) *Ibid.*, 3. 이것은 개신교 계통에서 나온 것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국제가톨릭성서공회, 서강대학교신학연구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나온 해설 성서에 대해서는 민영진 박사의 윗글, “우리말 해설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pp. 10-23)를 참조하라. 가톨릭 계통의 해설 성서는 대체로 성서의 역사비평적 해석을 수용하고 있다. 이 점이 개신교 계통의 해설 성서들과는 뚜렷하게 다르다.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계에 나온 해설 성서는 대부분 외국의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들이다. 이 책 『성경원문연구』 제9호에 실린 민영진 박사의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1960-1990년 사이 우리 나라에서 출판된 개신교회용 해설 성서는 신약이나 신구약 합본에 대한 해설 성서를 합쳐 대략 51종이 된다.<sup>5)</sup> 영미권에서 출판된 영어 성서에 대한 스터디 바이블이 1995년 현재 51개 가량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sup>6)</sup>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우리말 해설 성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숫자상의 비교는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계에 해설 성서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들은 대부분 익명(匿名)으로, 차명(借名)으로, 허명(虛名)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필자가 누구인지, 번역자가 누구인지가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않다. 가령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애독하는 해설 성서 가운데 『오픈성경』이 있다.<sup>7)</sup> 그러나 이 책은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참고해서 이처럼 방대한 작업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그 머리말에 “성서 해석상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저명한 신구약 학자 세 분에게 감수를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명한 것은 그 책 어디에도 집필자나 번역자나 번역 대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큰 문제이다. 우리에게 있는 해설 성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출판되었다는 것은 정녕 득보다는 해(害)가 된다.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 계통에서 나온 해설 성서들은 대부분 우리말 『개역 한글판』에다가 해설 노트를 첨가한 것들이다. 여러 다른 번역판을 해설의 기본 본문으로 삼은 해설 성서들이 여러 개가 되어서 우리말 해설 성서의 수가 그렇게 많아진 것이 아니다. 개신교 계통의 해설 성서는 거의 대부분 『개역 한글판』을 기본 본문으로 삼고, 거기에다가 이런 저런 해설 노트를 단 것들이다. 그 해설 노트마저도 해설 성서간에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책 제목과 그 책을 펴낸 출판사 이름뿐이다. 영어로 된 51종의 해설 성서 가운데 상당수가 여러 번역판들(versions)에 대한 해설 성서인 것을 감안할 때 『개역 한글판』이라는 본문에다가 해설 노트를 단 해설 성서가 50종이 넘는다는 사실은 가히 세계 신기록 감이다.

이 점에서는 최근 대한성서공회가 펴낸 『해설·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 1997년』이나 『굿뉴스 스터디바이블, 2001년』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이 두 해설 성서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 개신교계에 나온 해설 성서들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sup>8)</sup> 필자는 우리 나라 개신교인들이 이 두 개의 해설 성서를 참으로 진지하게 음미해 보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두 권도 『개역 한글판』을 --『굿뉴스 스터디바이블』의 경우에는 『개역 개정판』을-- 기본 본문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 보였던 여타 해설 성서들과 그 기본 골격이 다르지 않다.

현재 우리 교인들이 두루 읽고 있는 해설 성서들은 기본적으로 성서 본문이, 그 문단이나 글자나 어구 등이 무슨 뜻인지를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해설의 일차적 과제로 삼고 있다. 그나마도 이들 해설 성서가 다루고 있는 본문 해석의 내용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51종이 넘는 해설 성서가 우리에게 소개되었으나 그 모두가 특색 없는 책들이 되고 말았다. 왜 이다지도 비슷비슷한 해설 성서들이 우리 앞에 쏟아져 나오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해설 성

5) 여기에 대해서는 민영진 박사의 윗글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특히 pp. 9-22)를 참조하라.

6) "Review of Study Bibles [tables],"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1(1995), 72, 74, 76.

7) 오픈성경 편찬위원회 편, 『오픈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8). 원래 *The Open Bible* 이라는 해설 성서는 1984년 미국의 Thomas Nelson 출판사가 펴냈었다.

8) 여기에 대해서는 이 책에 실린 김창락,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터디바이블』 - 신약을 중심으로-”(pp. 56-68)와,王大일,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터디바이블』 - 구약을 중심으로-”(pp 41-55)를 보라.

서가 거둔 상업적 성공이 암시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출판사의 상업적 성공만을 위해서 해설 성서가 졸속으로 제작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 학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독자적으로 우리말 해설 성서를 펴내야 할 차례이다. 어떤 출판사의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말로, 우리 정서로, 우리 삶으로 온전히 해설해 주기 위해서이다. 『개역 한글판』을 비롯해서, 『공동번역』이나 『표준새번역』이나 『개역 개정판』이나 『표준새번역 개정판』을 기본 본문으로 삼아 우리가 집필한 해설 성서를 펴내야 한다. 말씀에 대한 뜻풀이 외에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개의 성서 본문을 독자들에게 제대로 해설해주어야 한다. 그 책임이 우리 성서학자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출판사들에게 있다.

## 2. 무엇을 다룰 것인가? 무엇을 다루지 않아야 하는가?

해설 성서는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 해설 성서에서는 무엇이 다루어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설 성서의 집필자나 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해설 성서가 독자의 독서를 돕는 장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설 성서는 독자의 눈 높이나 보폭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다루게 된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설 성서를 기획하고 제작하려면 먼저 충분한 사전 의견 조사(survey)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가령, 교회, 교단 등과 협의해서 예측 가능한 독자 집단을 설정하고 그들에게 설문 조사 방식으로 독자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를 미리 물은 다음 그 결과를 해설 성서를 편집해 가는 과정 중에 수렴하자는 것이다.

설문조사가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꼭 그런 설문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방대한 신구약성서의 어디에 자기들에게 필요한 해설이 수록되어야 한다고 대답할 수 있을지가 자못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설문조사보다는 그 동안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성서를 번역한 사람들이 성서의 독자들로부터 꾸준히 들었던 질문이나 의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를 수렴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일 수 있다. 아니면 성서 독자들이 신구약성서에서 오해하고 있다고 파악되는 구절이나, 난해하게 느끼는 구절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해설 성서를 편집하는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해설 성서는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 가장 첫째로 다룰 것은 해설 노트이다. 해설 성서의 편집과 디자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여러 해설과 안내, 설명과 주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것은 해설 노트이다. 난외주든, 난하주든, 본문 안에 들여짜기 식으로 첨부해 놓은 주든, 해설 성서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부분은 해설 노트이다. 이런 해설 노트가 있기에 해설 성서는 참고서(reference book)가 된다. 이 때 해설 성서의 독자들은 해설 노트의 내용을 “그냥 수용”(undiscriminating acceptance)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만큼 해설 노트는 해설 성서에서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해설 노트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해설 노트의 기본적인 의도는 독자들이 텍스트의 전체적인 메시지나 그 세부적인 구절, 단어, 어구 등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텍스트의 문학적,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 등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끊임 없이 성서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주제를 분명하게 표시해 주어야 한다. 해설 성서의 노트가 다루어야 할 사항은 대략 크게 세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는 텍스트의 문학적인 특징이다. 말과 글로서의 특징을 소개해야 한다. 이 때 거시적인 차원에서 텍스트의 구조(골격)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치다보면 성서 본문의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성서 독자들을 크게 돕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성서 텍스트의 거대 구조를 무시하기에 우리 독자들이 성서 본문을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둘째는 텍스트 안에 등장하는 어떤 개념이나 사항들을 밝혀주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해설 성서와 카멘타리(commentary)가 결코 똑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나아가 해설 성서가 곧장 오늘 우리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설교 집(集)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셋째는 텍스트의 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때에도 우리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자의 배경을 말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텍스트에 담긴 이야기의 배경을 말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책의 배경을 말해야 하는 것인가?

이 세 범주에 대한 검토는 해설 성서가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데 중요한 갖대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설 노트가 무엇을 다루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확인이다. 유안 프라이(Euan Fry)의 지적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 논의에 도움을 준다.<sup>9)</sup> 프라이는 해설 성서의 노트들을 읽으면서 생기는 문제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한다. 하나는 해설 성서의 노트가 성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말을 바꿔서 반복하고 마는 경우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예를 들어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마태복음 9:16에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라는 구절 밑에 다음과 같은 난하주가 있다.

(본문) “생베 조각을 낡은 곳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 하게 됨이요”

(난하주) “수축시키지 않고 이은 천 조각은 옷을 처음 빨래할 때 수축되어 그 옷을 망가뜨리게 된다.”

해설 노트는 말 그대로 해설이어야 한다. 본문의 소리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되풀이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본문의 뜻이 그렇게 애매하지 않다면 해설 성서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해설 노트는 어렵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지나칠 수 있는 성서 본문을 독자들에게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지만, 또 다른 문제는 해설 노트가 성서 본문을 “설교조로”(sermonizing) 바꿔서 이야기 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서 본문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보다는 소위 영적인 가르침을 제시해보고자 서두르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마태복음 19:28에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구절 밑에 다음과 같은 난하주가 첨부되어 있다.

마 19: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난하주. 예수가 인류의 심판자요 통치자로서 다시 올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의 고난을 나누었다면 그의 승리 또한 나눌 것이다(눅 22:28-30). 십자가는 승리의 \*길이다.

이 해설 노트에서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은 “십자가는 승리의 길이다”는 결론적 해설이다. 보기에 따라서 이런 해설은 지극히 정당한 해설로 비쳐질 수 있다. 아니면 이른바 “은혜로운”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해설은 정녕 텍스트의 기본적인 뜻보다 한 발 앞

9) Euan Fry, "Study Bibles- What's New?" *Unpublished Paper for United Bible Societies Triennial Translational Workshop* (May, 1991), 3-4.

서 나간 해설이다. 성서 본문에 대한 영적, 은유적, 암시적, 알레고리(allegory)적 해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적, 은유적, 상징적 해설 노트는 우리가 진정 피해야 할 해설 방식이다.

해설 노트 다음에 해설 성서가 두 번째로 다루어야 할 것은 성서 본문에 대한 개론적인 안내와 성서 본문의 단락들을 구조적으로 소개하는 항목(표제, 문단, 단락 등에 대한 제목이나 안내)의 배치이다. 이 때 성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보조적인 자료들을 머리말이나 부록 등에 첨부하게 된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론에 해당되는 서론적인 안내이다. 해설 성서의 개론이나 본문의 단락들에 대한 제목 등은 해설 노트와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성서의 개론은 신학교 교과서를 요약해 놓은 듯한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설 성서에 수록된 신구약 개론을 집필하는 자의 학문적 경향이 여기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해설 성서가 다루는 신구약에 대한 개론이 성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성서의 전반적인 본질을 알게 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성서 66권 각 책에 대한 소개나 안내로 이어져서 성서 본문의 전반적인 배경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김영봉 교수가 해설 성서에 첨부되는 개론은 학문적 개론서의 축소판이 아니라 “독자의 독서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독서 안내’ (reading guide)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sup>10)</sup>

### 3. 해설 성서는 주석이나 카멘타리(commentary)와는 달라야 한다

해설 성서는 일정한 줄거리가 있는 책이 아니다. 성서 본문에 대한 주석서나 카멘타리처럼 서론부터 결론에 이르는 일정한 흐름을 해설 성서는 가질 수 없다. 해설 성서의 기본적인 모습은 “참고서”(a reference book)이다. 우리는 이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으로 카멘타리는 성서 본문에 대한 서론적인 문제로 시작한다. 본문의 저자, 연대, 의도, 텍스트의 보존, 진정성(authenticity), 텍스트 해석의 역사, 배경, 내용 개요 등이 이런 서론에서 다루어진다. 카멘타리에는 어떤 본문 구절의 해석이나 어떤 주제에 관련된 해석의 문제를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난이 있다. 그러면서 카멘타리는 성서 본문의 모든 절(verse)을 하나씩 다 다루고 있다. 이런 틀 속에서 카멘타리는 절과 구절과 단어의 의미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단어의 의미와 그 뜻이 어떤 것인지가 소개되고, 본문에 나타난 이미지나 사건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해설이나 설명을 제공한다. 이 때 성서 본문의 어휘에 대한 사려 깊은 분석이 첨부됨은 물론이다.

해설 성서는 카멘타리가 하는 이 모든 작업을 다 다룰 수는 없다. 왜 그런가? 우선 그럴만한 공간(여백)이 없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설 성서가 카멘타리는 아니기 때문이다.<sup>11)</sup> 해설 성서는 카멘타리처럼 해설이나 논설, 어구풀이 등에 할애할 만한 많은 공간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공간상의 제약은 해설 성서가 무엇을 다루어야 할지를 결정할 때 그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해설 성서와 카멘타리를 구별해야 한다. 해설 성서는 카멘타리처럼 성서 본문에 대한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모조리 다 밝힐 수 없다. 해설 성서에서 카멘타리 식의 정보와 자료를 모두 기대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비현실적이다.

해설 성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은 꼭 해명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짚막한 서술이다. 다

10) 이 책에 실린 김영봉, “우리의 상황에서 나온 해설 성서가 필요하다-스터디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pp. 69-82)를 참조하라.

11) Armando J. Levoratti, "Some Difficulties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f a Study Bible," *AJL-AMRETCO*- (May, 1990), 1-14.

시 말해 해설 성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최소한 몇 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해설 성서의 황금률과도 같다.<sup>12)</sup>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해설 성서가 커멘타리와의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첫째, 문제가 되는 구절을 중심으로 해설 노트를 작성해 가는 것이다. 구약 본문 안에, 신약 본문 안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존재하는 상충되는 기사, 숫자, 정보 등에 대한 설명이 다루어져야 한다. 또 성서 독자들이 성서를 읽어가면서 느끼거나 발견할 수 있는 어려운 구절들에 대한 해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sup>13)</sup> 이런 문제는 성서 안에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구약의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 사이에는 인물이나, 사건, 숫자적인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록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예, 삼하 8:4와 대상 18:4; 삼하 10:18과 대상 19:18; 삼하 24:1과 대상 21:1; 삼하 24:9와 대상 21:5; 왕상 4:26과 대하 9:25; 비교, 스 2:3-64와 느 7:8-66). 해설 노트는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이런 문제에 대한 해설은 정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지나치게 본문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풀이할 것이 아니라, 또는 성서 본문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굳이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설혹 우리가 그 답을 다 모른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해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그런 문제의 해결에 어느 하나의 해설을 정답처럼 주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몇 가지 해설을 동시에 제공하고 그 취사 선택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 놓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sup>14)</sup>

해설 성서는 텍스트의 중요한 의미를 풀이해 주어야 한다. 또 텍스트가 불분명하거나 애매할 때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보충설명도 해 주어야 한다. 정치 사회 문화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독자들의 오해를 살만한 본문 상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하거나 가능한 대안(alternative)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다가 필자는 하나 더 첨부해서 우리 해설 성서의 노트에 번역본(version)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본문상의 문제나, 번역상의 문제도 제대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해설 성서는 말 그대로 성서를 해설하는 책이다. 성서는 하나이지만, 성서를 해설하는 책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신앙공동체의 역사를 통시(通時)적으로 더듬어 볼 때 제일 크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신앙공동체가 정경으로 사용한 책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는 사실이다. 주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 공동체가 정경으로 삼았던 셉투아진트(LXX)부터 시작해서 아랍어 타르굼, 페쉬타, 라틴어 성서에 이르기까지 현대어 이전의 번역 성서 만해도 정경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다. 현재 우리는 이런 모든 성서들을 공시(共時)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여러 성서들이 모두 다 신앙공동체에서 각각 정경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수용되고 고백되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 옛 번역 성서들의 본문이 원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번역본들도 서로 다르다. 이 성서들이 모두 각자의 신앙공동체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졌지만, 그것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이독(異讀)이라는 본문상의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해설 성서에는 바로 이 서로 다른 번역본이 일으키고 있는 본문 비평적인 문제가 쉬운 말로 풀이되고 밝혀져야 한다. 우리말 성서도 어차피 번역성서의 대열에 끼여 있는 까닭이다. 그럴 경우 해설 성서가 성서 본문에다가 제시하는 여러 대안적인 설명과 함께 해설 성서의 노트는 풍요한 정보를 성서의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창이 될 수 있을

12) *Ibid.*, 6.

13)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책에 수록된 민영진,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pp. 24-34)를 보라. 또 민영진, 『성경 바로 읽기』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9)를 참조하라.

14) 비교, John Ellington, "Study Bibles and the Conservative Audience," *Unpublished Paper for UBS Translation Workshop* (1987), 1-25, 특히 21-22.

것이다.

#### 4. 독자를 위한 해설 성서를 만들어야 한다

해설 성서의 근본적인 의도는 독자들이 성서를 이해하는 일을 돕는 데 있다. 해설 성서의 설명과 노트에 제공된 정보는 반복되거나 길게 장황해질 필요는 없다. 해설 노트는 독자들이 성서 본문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해설 노트의 집필자는 독자들을 성서의 세계관으로 초대하는 초청자의 역할을 맡으면 된다.

해설 성서를 구성하려고 할 때 꼼꼼 생각해야 할 원칙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책이 독자를 위한 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해설 성서들이 있다. 해설 성서는 독자를 위한 책이다. 독자는 여러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연령별, 성별, 계층별, 직업별, 신앙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목회자를 위한 해설 성서가 있을 수 있고, 평신도를 위한 해설 성서가 있을 수 있다. 기독교인을 위한 해설 성서가 있을 수 있고, 타종교인을 위한 해설 성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보다 해설 성서다운 해설 성서를 기획, 출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독자층을 위한 해설 성서를 제작할 것인지부터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먼저 결정되어야 독자의 눈 높이와 독자의 보폭 등에 따라서 해설 성서가 무엇을 해설해야 할지, 해설 성서의 항목(agenda)을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해설 성서들은 성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 대한 배려에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다. 처음 성서를 읽어 가는 자들은 어떤 질문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것인가를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교리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성서 본문 자체 내에서 발견되는 기록상의 차이이거나, 아니면 독자의 상식(독자의 세계관)과 어긋나는 성서적 보도일 것이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창세기 2:17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온다. 그러나 아담이 정작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저질렀지만(창 3:7), 그는 당장 죽지 않았다. 그는 도리어 930세를 살았다(창 5:5). 여기에서 독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날 죽게 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이나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아무런 해설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의 교인들이 많이 읽고 있는 보수적인 입장의 해설 성서 중 하나인 『뉴 톰슨 관주 주석 성경』(성서교재간행사, 1985)에는 창세기 2:17의 난하주에 다음과 같은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방종에 떨어져 거룩한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되리라는 경고요 대비라고 보아야 한다.<sup>15)</sup>

『뉴 톰슨 관주 주석 성경』의 난하주는 창세기 2:17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았다. 이것은 보수적인 성서해석이 대체로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를 소중하게 갈무리하는 경향을 벗어나고 있다. 이

15) 『뉴 톰슨 관주 주석 성경』은 1983년 미국의 존더반(Zondervan) 출판사에서 나온 *The Thompson Chain-Reference Bible*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그 실제 대본에 있어서는 이 책의 머리말에도 나와 있듯이 *The Thompson Chain-Reference Bible*과 *The Open Bible*(Thomas Nelson Publishers, 1984)을 주대본으로 관주와 주제별 항목을 정리하고, 그외 외국의 보수적인 주석과 성경 6종, 그리고 8종에 이르는 국내의 저명 신학자, 목회자가 쓴 주석서와 성구사전 등을 해설의 대본으로 참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이 방대한 해설 성서에도 지금까지 나온 다른 해설 성서들처럼 누가, 어느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번역하였는지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해설 성서는 창세기 2:17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오래 살았다는 기사 사이에서 독자들이 느끼는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2:17을 이른바 “영적으로”(spiritualized) 읽었다. 이런 방식의 해설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해설 노트일까라는 질문은 여기에서 필자가 다루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필자는 이미 앞에서 해설 노트의 성격을 규정할 때 소위 영적인 해석이나 우화적인 해석은 해설 성서가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렇기에 우리는 창세기 2:17에 대한 이런 식의 설명이 성서 본문의 뜻을 참으로 잘 대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해설 성서는 창세기 2:17과 창세기 3:7; 5:5를 더불어 읽은 독자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을 예측하면서 거기에 나름대로 해설 노트를 제공하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독자를 위한 해설 성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만약 이 해설 성서가 초신자 계층을 겨냥한 것이라면, 그 해설 성서는 독자층과 독자들의 눈 높이의 고저(高低)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나온 *The Learning Bibl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 대한 평가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잘 지적해 주고 있다.<sup>16)</sup>

독자를 위한 해설 성서를 기획할 때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기독교인을 위한 해설 성서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인을 위한 해설 성서만을 보아 왔다. 그러나 보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비기독교인을 위한 해설 성서도 만들어서 배포해야 한다.<sup>17)</sup>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비기독교인을 위한 해설 성서가 만들어졌다. 우리 나라 상황에서도 불교도를 위한 해설 성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타종교와 대화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설 성서나, 비종교인들을 위한 해설 성서도 필요하다면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케넷 토마스(Kenneth J. Thomas)의 제안은 이 점에서 우리 눈길을 끈다.<sup>18)</sup>

케넷 토마스는 비기독교인을 위한 해설 성서의 제작에는 다음 몇 단계가 요청된다고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는 기독교를 처음으로 알게 된 자를 위하여 그들이 쉽게 관심을 갖거나 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성서 본문이나 성구를 선별해서 제공한다. 예를 들어 건강, 평화, 축복, 용서, 정의 등을 다룬 본문들이 이런 단계에서 적합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의 성서에 적극 반응하는 자들을 더 잘 양육하기 위한 조치로 그 독자의 배경을 고려하여 성서적 개념을 파악하게 하는 성서 본문들을 의도적으로 구상해서 편집한다. 유일신 하나님, 율법, 심판, 은총, 용서, 사랑 등의 성서적 개념이나 하나님, 창조, 계시, 영생 등이 이 단계에서 소개하기에 적당하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비로소 성서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독자들을 위한 스터디 노트를 첨부한 성서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케넷 토마스는 해설 성서가 성서에 질문을 던지는 초신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묻고, 어떤 대답을 들어야 했으며, 그 뒤 무엇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혔는지를 아는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이 단계에서 케넷 토마스는 사복음서에 대한 해설 성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본다. 타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 깊이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전 성서에 대한 해설 성서를 공부하고 익히게 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종교인을 위한 해설 성서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인들의 세계관이다. 케넷 토마스의 말을 빌리면 타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느끼는 거리감은 옛 텍스트와 그들이 살고 있는 현대적

16) 이 책에 실린 소기천 교수의 “말씀과 삶의 조화: 『러닝 바이블-현대인을 위한 영어 성경』은 어떤 책인가”(pp.97-105)를 보라.

17) 이 책(『성경원문연구』 제9호)에 실린 민영진,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pp. 38-39)를 참조하라.

18) 케넷 토마스(Kenneth J. Thomas)는 UBS의 번역 컨설턴트(consultant)이다. Kenneth J. Thomas, “Study Bibles for Religious Audiences,” *The Bible Translator* 47/2 (1996), 207-211.

인 상황 사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타종교인들이 기독교와 성서에 대해서 갖는 거리감은 성서의 세계관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과 다르다고 하는데서 오는 거리감이라는 것이다.<sup>19)</sup> 단순히 기독교적인 개념이나 용어를 다른 종교인들에게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의 세계관이 사용하는 용어를 빌어서 기독교적인 개념과 용어를 설명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타종교인을 위한 해설 성서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비판을 변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리어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나 관심사를 활용해서 성서를 해설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타종교인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고, 무엇을 잘 모르고 있는지를 조사한 후, 거기에 근거해서 해설 성서가 다루어야 할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를 작성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해설 성서의 노트나 설명은 평이하고 쉽고 정확해야 한다. 전문적인 용어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적당한 말로 풀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꿔 말하면서도 해설 성서의 노트가 모든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수용할 만한 정보이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제작해야 할 해설 성서에는 이미 성서와 기독교에 대한 신앙과 지식을 상당한 정도로 갖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예를 들면, ‘어떻게 성경공부를 해야 할까’와 같은 제목으로 성경공부 방식을 돕는 에세이를 제공하거나, 히브리 시의 특성에 대한 소개,<sup>20)</sup> 복음서의 문학적 유형에 대한 소개, 성서의 “역사 지리”(Historical Geography)와 고고학적 자료 등에 대한 해설을 소개함으로써 성경공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upgrade) 해설 성서도 만들어 보아야 한다.

대개 해설 성서는 문단에 대한 소개 외에도 난외주나 난하주 형식으로 첨부하는 노트 외에 다음과 같은 설명들을 수록하게 된다. 개론, 어구사전, 찾아보기, 관주, 어휘 해설 사전, 지도, 도표, 특별한 논문이나 해설, 외경에 대한 안내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그런 해설문을 소개하는 방식도 반드시 연역적인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독자들이 성서 본문의 어느 대목을 읽다가 만나게 되고 겪게 되는 궁금증을 통해서 귀납법적 형식으로 그와 관련된 해설을 제공하는 방식도 유효하리라고 본다. 가령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빠졌을 때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셋인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합성을 지르게 되는 대목(단 3:19-25) 사이에서 외경에 나오는 “다니엘 추가서”의 기도문을 소개해 보는 방식은 어떨까? 룻기나 에스더서 뒤에 유딧 이야기를 배열해서 읽게 해 보면 어떨까?

연역적인 방식으로 해설 노트를 진행해 가는 해설 성서는 대체로 “해석적인 노트”(interpretative notes)를 독자들에게 미리 제공하는 일에 충실하다. 그러나 모든 해설 성서가 이런 식을 따라야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해설 성서를 통해서 개인이나 그룹의 성경공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려는 독자들을 위해서라면, 성경공부를 위한 배경적인 자료만을 알도록 한 후, 각자가 성서본문을 읽고 공부해가면서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나 노트를 뒤에 가서 제공해도 되리라고 본다. 그래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기쁨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면 된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취하든, 기억할 것은 해설 성서의 노트나 자료는 정녕 “독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19) *Ibid.*, 210.

20) 류호준 교수는 이 책에 실린 “『현대영어성경』 본문에 기초한 스티디 바이블(러닝 바이블)에 대한 소개 및 평가”(pp. 83-96)에서 *The Learning Bible*의 기본 본문인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 히브리 시의 특징을 살려 번역하여 인쇄한 것을 지적하면서 장차 우리말 성서(우리말 해설 성서)도 이 점을 적극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5. 해설 성서는 교회를 위한 봉사이다

해설 성서는 오랜 준비와 세심한 주의, 철저한 저술과 편집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과학적인 작업이다. 그렇지만 해설 성서가 존재하는 자리는 교회를 위한 봉사이다. 해설 성서가 단순히 그것을 기획하고 집필한 출판사나 저자의 것이 아니라, 또는 단순히 그것을 읽고 수용하는 독자의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해설 성서가 우리 교회에서 차지하게 될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해설 성서는 전문적인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동시에 신앙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해설 성서를 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참조하지 않으면 안 될 신학적인 문제, 성서해석학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이 책에 수록된 김창락 교수와 김영봉 교수의 글이 바로 이런 문제를 적극 제시하고 있다. 김창락 교수는 우선 이렇게 말한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이 신약성서의 각 문서에 대하여 개론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은 참으로 소중하다.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역사비평적 연구의 공통적 결과를 수용하여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합치한다. 이 둘에서 우리는 나머지 모든 해설 성서가 성서의 각 문서에 대하여 제시한 정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기를 들면 현재 형태의 모세 오경을 형성한 배후에 이른바 J, E, P, D라고 하는 자료층이 존재했다는 것, 현재 형태의 이사야서는 약 400년에 걸쳐서 쌓인 여러 전승층들의 편집으로 형성되었다는 것, 공관복음서의 성립에 대하여 이른바 두 자료설을 인정하는 것, 바울의 서신을 진정 서신과 후기 바울 서신으로 구분하는 것 등등이다. 성서에 대한 역사비평적 연구의 불모 지대인 우리 나라의 성서 연구의 풍토에 이 두 해설 성서가 참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sup>21)</sup>

물론 김창락 교수는 어떤 입장에서 성서를 해석해야 바람직한 해설 성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다만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을 검토해 보았을 때 이 두 권이 지금까지 출판된 다른 해설 성서에 비해서 우리 나라의 성서 연구 풍토에 참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 평가 이면에는 성서의 역사비평적 해석이 해설 성서 집필에 창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각인되어 있다. 한편 김영봉 교수는

문제는 한국판 해설 성서를 내려 할 경우에 더 심각할 수 있다. 성서를 번역하는 데에도 신학적 입장을 숨길 수 없었다면, 성서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하다. 그렇다면, 기획하는 쪽에서는 어떤 입장을 택할 것인가? .....보수적 입장을 택할 경우 진보적 입장에서 보면, 비판 이전의 시대로 퇴보하는 일이 되므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반면, 진보적 입장을 택할 경우, 교회의 신앙을 해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보수적 성향의 목회자들의 목소리가 우세한 한국 교회의 상황을 두고 볼 때, 이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런 문제를 두고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 두 종류의 해설 성서를 기획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그러므로 독자에게 어느 하나를 강요하지 말고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문제를 아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적 입장을 공표한 해설 성서와 보수적 입장을 공표한 해설 성서를 따로 뉘뉘로 써, 신학적 다양성을 그대로 끌어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제안이다...<sup>22)</sup>

21) 이 책에 실린 김창락,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신약을 중심으로”(pp. 56-68)를 보라.

22) 이 책에 실린 김영봉, “우리의 상황에서 나온 해설 성서가 필요하다- 스타디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pp. 69-82)를 보라.

위에 언급한 이 두 교수의 평가와 제안은 해설 성서를 제작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해설 성서는 말 그대로 성서를 해설하는 책이다. 성서를 해설하는 책은 해설하는 자의 관점과 함께 그 해설을 듣는 독자들의 반응을 어쩔 수 없이 고려해야 한다. 필자는 성서해석이라는 과제 앞에서 우리 교계가, 우리 학계가 보수적인 진영과 진보적인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현실을 애써 무시하지 않는다. 다만 성서해석의 자리를 이런 식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태도를 우려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도 비(非)성서적이지 않다. 누구도 반(反)그리스도적이지 않다. 역사비평 이후에 적극 진행되어 온 성서해석의 공시적(共時的), 무시적(無時的), 반시적(反時的) 경향은<sup>23)</sup> 통시적(通時的) 전통의 성서해석과 함께 오늘날 우리 성서학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지적 유산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의 전통이란 비단 성서해석에 얽힌 관점의 차이만이 아니라 신학적, 도덕적, 교리적, 사회참여적 차원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 성서해석에 있어서도 접근 방식에서만 아니라 내용 파악에서도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조와 진화에 대한 견해, 성서 각 권의 저자와 연대 결정에 대한 견해, 성서와 과학의 관계 설정에 대한 견해, 성서 안에 서로 상충되는 기사가 있는 것에 대한 입장 등이 바로 그런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는 현상이다. 성서 본문의 저자와 연대 문제에 관련된 견해 차이도 성경 66권 전부를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경우 오경과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서 특히 그런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음의 예는 무엇이 해설 성서의 성격을 다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서를 열심히 읽는 독자들은 성서 이야기나 성서의 글 가운데 서로 상충되는 사항을 만났을 때 아주 궁금해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해설 성서의 노트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가령 ‘누가 골리앗을 죽였는가’와 같은 질문은 여러 사람들이 제기하는 물음이다. 우선 이 사건과 관련된 성서적 증언부터 들어보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삼상 17:50-51).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 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은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호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베를 채 같았더라 (삼하 21:19; 비교 대상 20:5).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사무엘상 17:50과 관련된 단락 요약, 난하주, 그리고 사무엘하 21:19의 난하주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삼상 17:50의 단락 요약) 삼하 21:19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다. 거기에 따르면 골리앗을 죽인 자는 다윗의 용사 중의 한 사람인, 야레의 아들 엘하난이다. 어떤 사람들은 엘하난이 다윗의 개인적인 이름이었다고 본다.

(삼상 17:50 난하주) 삼하 21:19에 따르면(단락 요약을 보라), 골리앗을 죽인 자는 야레의 아들 엘하난이다.

(삼하 21:19의 난하주)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은 ....죽였는데. 히,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 하난은 가드 골리앗을 죽였는데”. “야레오르김”은 “야일”로도 번역될 수 있다. 삼상 17장에 의하면, 골리앗을 죽인 자는 다윗이다. 대상 20:5의 저자는 사무엘상과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호미를 죽였다고 전하는 사무엘하 사이의 모순을 피하고 있다(대상 20:5를 보라).

23) 공시적(共時的), 무시적(無時的), 반시적(反時的)이라는 용어는 시미안 요프레 위음, 박요한 영식 옮김, 『구약성서 연구방법론』 성서와 함께 총서 1 (서울: 성서와 함께, 2000), 5-8에서 인용한 것이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은 사무엘하 21:18-19에 대한 해설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적고 있다.

...히브리어 본문 19절에서는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삼상 17장과 어긋난다. 이 때문에 더러는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윗의 승리로 간주되었으리라 추측하기도 한다. 대상 20:5에서는 엘하난이 죽인 사람을 '골리앗의 아우 라호미'라고 함으로써 이 같은 긴장을 해소하려 한 듯하다. 이를 따라 개역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에는 본디 없는 '의 아우 라호미'를 여기에 작은 글씨로 적어 넣은 듯하다.

반면 『뉴톱슨 관주 주석 성경』의 사무엘하 21:19의 난하주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골리앗의 아우 라호미)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아우 라호미'가 생략되어 있다. 이 본문만으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기사와 모순되게 된다(참조, 삼상 17:49, 50). 그런데 대상 20:5의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아우 라호미'라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나오는 '골리앗'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성서해석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수용하는 『굿뉴스 스테디바이블』과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의 해설은 이 문제를 성서 본문의 전승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서기관 오류나 파손된 본문이라는 입장에서 본문끼리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솔직하게(!)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성서해석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뉴톱슨 관주 주석 성경』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지 않는다. 대개 성서해석의 보수적인 입장은 보통 성서의 문자적 해석을 해석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소개한 예와 같은 문제를 만나면, 기존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본문의 이차적인 의미를 본문의 뜻으로 앞세우려고 한다. 성서본문에 아무런 오류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신앙적 견지가 앞선 결과이다. 사무엘하 21:19에 대한 『뉴톱슨 관주 주석 성경』의 해설이 바로 이런 노력을 대변하고 있다.

성서 안에 상충되는 기사에 대한 해설 성서들끼리의 서로 다른 해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 필자는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다름"을 우리 한국 교회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려고 한다. 필자는 우리 사회와 교회가 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확일적으로 바뀌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 하나 됨 속에서의 다양성!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하나 되는 삶의 밑그림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우리가 제작하는 해설 성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무슨 소리인가? 한 권의 해설 성서에 모든 다양성을 다 반영하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24)</sup> 하나의 해설 성서에는 그 책 고유의 개성과 특성, 해석학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여러 해설 성서들이 각각 우리 교계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다양성과 하나 됨을 동시에 갈무리하게 되는 수확을 덤으로 얻게 되지 않을까?

해설 성서는 참고서이다.<sup>25)</sup> 이것은 독자들이 성서를 읽다가 참조할 만한 사항을 만났을 때 그 때마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해설 성

24) 비교, Armando J. Levoratti, "Some Difficulties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f a Study Bible," 9-13.

25) 이 책에 실린 류호준, "『현대 영어 성경』 본문에 기초한 스테디 바이블(러닝 바이블)에 대한 소개 및 평가"(pp. 83-96)도 해설 성서가 성서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 도구이지 결코 성서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는 결코 교과서가 아니다. 해설 성서의 저자나 집필자는 자기 독자들이 해설 성서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모든 해설을 읽어왔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개론이나 서론적 안내를 읽은 독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해설상의 안내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필요한 구절에 대한 해설과 해석만을 얻으려고 하는 독자도 있을 수 있다. 게다가 해설 성서의 독자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해설 성서에 접근하고 있다. 그렇기에 하나의 해설 성서가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동원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해설 성서와 해설 성서끼리는 서로 보완적이어야 한다. 이 말은 해설 성서의 집필자나 독자들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이다. 모든 해설 성서는 서로 다 보완적일 수밖에 없다. “보완적”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것끼리 합쳐져야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해설 성서의 독자는 성서 본문에 압도되어야지, 본문을 해설해 놓은 해설에 압도당해서는 안 된다. 독자는 이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설 성서의 해설 노트가 성서 본문보다 커 보여서는 안 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는 세례 요한의 말은 성서 본문과 해설 성서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교과서는 성서이고 해설 노트는 참고서일 뿐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우리말 해설 성서가 외경에 대한 해설도 수록해야 한다고 말하려고 한다. 해설 성서가 성서를 해설하는 책이라면, 차체에 외경에 대한 자료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감출수록 궁금증이 커진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발간하는 해설 성서에서만큼은 신약약 중간기 문헌에 대한 소개가 첨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 만약 외경을 해설 성서에 소개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러면서 외경을 정경과 구분되는 정경적 위치를 표시해 놓기를 원한다면, 신약 다음에 부록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사이에 끼워 놓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본다. 외경은 이미 동방 정교회와 가톨릭 교회에서는 정경에 버금가는 책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해설 성서가 이런 외경을 소개한다면, 그것은 우리 개신교회 독자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것도 우리 해설 성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 가운데 하나이다.

# ‘마르헤페트’를 ‘신들의 싸움’ 신화로 읽기

## - 하느님의 바람이 물 위에 내리꽂다 -

이환진\*

### 1. 들어가는 말

수천 년 동안 읽어진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는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는 본문이다. 1장 1절을 종속절로 읽을 것인가 독립절로 읽을 것인가 하는 논쟁부터 시작하여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근대 이전의 유대교와 기독교 성서학자들은 하느님이 혼돈(chaos)을 창조했다고 이해해 왔다. 그러나 근대 이후 학자들은 하느님이 혼돈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곧 혼돈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주장의 한가운데에 창세기 1장 2절이 서 있다.

나 역시 이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본인의 관심은 고대 시리아-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싸움” (theomachy) 신화를 배경으로 1장 2절이 이 배경을 반영하는 구절이라고 읽는 것이다. 2절 하반절을 한글성서 역본들은 이렇게 읽고 있다.

하나님의 신선이 수면水面 위에 운행運行하시느니라. (개역)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공동번역)  
하나님의 영은 물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표준새번역)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표현은 “하나님의 신”과 “운행한다”는 부분이다. “하나님의 신”은 히브리어 루아흐 엘로힘(רוח אלהים)을 옮긴 말이고, “운행한다”는 말은 마르헤페트(מרמהפת)를 옮긴 말이다. 우선 루아흐는 성서 속에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된다. 『개역』이 읽은 것처럼 “신”이나 “영”이란 뜻도 있고, “바람, 기운, 열, 숨” 등 여러 뜻으로 사용된다. 여기 창세기 1장에서는 “바람”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바벨론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쉬에서 바람은 바알이 티아맛을 제압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집트 우주 기원론에도 바람이 물을 공격하는 얘기가 등장한다. 나중에 이 바람은 아문Amun이라는 신이 된다.

히브리성서 내에서도 바람은 하느님의 피조물로 등장한다. 150일간의 홍수가 끝난 뒤 하느님은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와 식구들 그리고 그 밖의 짐승들을 기억하시고 물을 거둬들였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8장에 등장한다. 7:24-8:3을 읽어보자.

<sup>28</sup>물이(מים) 백오십 일간 땅 위에 차 있었다. <sup>1</sup>하느님은 노아와 모든 생명 그리고 그와 함께 배 안에 타고 있던 온갖 짐승들을 생각하셨다. 그리고는 바람이(רוח) 땅을 휩쓸게 하셨다.  
물이(מים) 그때서야 빠졌다.

\* 뉴욕대학교 예술과학대학원 히브리유다학과 박사과정.

\*\* W. F. Albright, “Contributions to Biblical Archaeology and Philology,” JBL 43 (1924), 368. E. A. Speiser, Genesis. AB 1. Double Day: Garden City, NY, 1964, 5. M. P. Deroche, “The ruach ‘elohim in Gen 1:2c: Creation or Chaos?” in L. Eslinger & G. Taylor (eds.), Ascribe To The Lord: Biblical & Other Studies in Memory of Peter C. Craigie. JSOTS 67. Sheffield: JSOT Press, 1988, 308-309.

<sup>2</sup>깊음의 샘물들(מַעֲיִנַת הַחַיִּים)과 하늘의 홍수 창문들이 닫혔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멈췄다.

<sup>3</sup>물이(הַמַּיִם) 물에서 계속 물러갔다. 백오십 일이 되었을 즈음 물이(הַמַּיִם) 줄어들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부분으로 창 1:2와 비슷하게 물과 깊이와 바람이 등장한다. 특별히 바람이 땅을 휩쓸었다는 표현(창8:1)은 비슷한 신학적 사고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바람과 물의 싸움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볼 수 있다. 이렇게 바람이 물을 이긴다는 얘기는 출애굽기 14장에도 등장한다. 모세가 이끄는 히브리인들은 갈대바다에 이르러 움싸달짝을 못한다(21-22절).

<sup>21</sup>이때 모세는 바다(הַיָּם) 위에 그의 팔을 쭉 폈다.

그러자 밤새 야훼는 강한 동풍(רוּחַ קָדִים עֹזָה)으로 바다(הַיָּם)를 말리셨다.

그리고 바다(הַיָּם)를 마른 물으로 바꾸었다.

물(הַמַּיִם)이 쪼개졌다. <sup>22</sup>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הַיָּם) 한가운데를, 물을 지나갔다.

여기서는 물보다는 바다가 동풍과 싸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대신 물이 쪼개졌다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다. 미리암은 출 15장에서 이러한 바람과 바다(물)의 싸움 모티브를 장엄한 한 편의 노래로 표현한다. 출 15:8은 “님의 콧김으로 물은 싸이네”(וּבְרוּחַ אַפְיֶךָ נִעְרַמוּ מַיִם)라고 노래한다. 콧김이라고 읊긴 말이 바로 “코의 바람”이다. 히브리 성서에서 가장 오래된 미리암의 노래는 사실 이 모티브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이다. 이렇게 바람과 바다(물)의 싸움은 창조 이야기에든 출애굽 이야기에든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 2. 지금까지의 본 용어 연구

지금까지 모든 성서역본들이 마르헤페트라를 움직씨를 “감싸다” 또는 “떠다니다”로 읽어왔다. 오늘날 영어성서 가운데 『새영어성서(NEB)』(1989)가 아직도 이러한 이해를 고집하고 있다.

The earth was a vast waste, darkness covered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hovered over the surface of the water

이 낱말은 피엘형 분사로 어근은 𐤀-𐤇-𐤂(רָחַח)이다. 『칠십인역』을 위시하여 모든 역본들이 “감싸다” 또는 “떠다니다, 배영하다”로 읽어왔다. 특별히 궁켈의 제안대로 세계를 크나큰 알로 생각하고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읽어온 것은 신화적 배경을 도외시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읽기는 창세기 1장의 문맥과 용어의 쓰임 그리고 신화적 배경에 어울리지 않는 이해이다.

20세기말에 이르러 이 이론은 많은 도전을 받아왔다. 여기에 편승하여 1977년에 한국 신구교 연합역본인 『공동번역』이 이 낱말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반영하였다. 곧 『공동번역』은 창 1:2를 이렇게 읽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One: From Adam To Noah. Trans. I. Abraham. Jerusalem: The Magness Press, The Hebrew University, 1978, 24-25.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이 가운데 마지막의 “기운”을 “바람, 영, 혼, 얼이라고도 옮길 수 있음”이라는 주를 달았다. 앞서 언급한 히브리어 루아흐의 다양한 뜻을 잘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인역본이라 할 수 있는 『새유대출판공회역(NJPS)』(1985)은 이 낱말을 “휘몰아치다”(to sweep over)로 옮겼으며 미국 개신교 공인역본인 『새개정영어표준역(NRSV)』(1989)도 이 읽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1-2절).

When God began to create heaven and earth -  
the earth being unformed and void, with darknes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and a wind from God sweeping over the eater - (NJPS)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earth was a formless void and darkness covered the face of the deep,  
while a wind from God swept over the face of the waters. (NRSV)

『새유대출판공회역』은 『새개정표준역』과는 달리 히브리어 마르헤페트가 피엘 분사형인 점을 잘 반영하여 “sweeping over”라고 바람이 계속적으로 휘몰아치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동사의 쓰임이 히브리성서 내에서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우가릿어 아낫 주문(KTU 1.108)에 등장하는 우가릿어 동어원 同語源 동사 𐤀-𐤆-𐤍(rhp) 역시 공격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동사를 단지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고만 읽을 수는 없다.

### 3. 고대 시리아-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싸움’ 신화

폭풍신과 바다신의 싸움, 곧 ‘신들의 싸움’(theomachy)은 우가릿 바알 신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여섯 개의 토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신화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토판 제 4란(KTU 1.2 iv)이 바알과 얌(바다)의 싸움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신화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극적인 장면만을 읽기로 한다(KTU 1.2 iv 28-32).

말려버리시오, 전사 바알이여! (bt laliyn b[ʾ])  
말려버려요, 구름을 타시는 이여! (bt lrbk ʾrpt)  
정말 군[주 얌]은 우리의 포로입니다.  
[정말] 판관 나하르는 우리의 포로입니다.  
그러자 바[알은] ...로 나갔다.  
전사 바알은 그를 말려버렸다.  
얌이 정말 죽었구나 (ym l mt).  
바알이 왕이 될 것이다..... (bʾlm yml[k ]).

이 바알 신화는 바알의 왕권 쟁취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신화이다.\* 마지막 행에 나오는 “바알이 왕이 될 것이다”는 표현은 “바알이 다스릴 것이다”로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앞

\* Mark S. Smith, The Ugaritic Baal Cycle. Volumn 1: Introduction with Text, Translation and Commentary of KTU 1.1-1.2. SVT 55. Leiden: Brill, 1994, 361.

행의 “얌이 정말 죽었구나”라는 말은 바알이 얌을 완전히 제압한 것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한 말이다.

그러나 이 모티프는 마리(Mari)에서 발견된 토판에 두 번 등장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기원전 24세기 경 아카드 시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이 토판을 학자들은 Mari A 1968이라고 이름붙인다.\* 내용은 이렇다.

a Ba ra aK ti-am tim qu-ra-dum a-zum ti-bi  
 4tispak a Ba a ra aK ti-a<sup>f</sup>m<sub>1</sub>-t[im] 'a-zum te-bi i-lum lugal dingir-[

아버지시여! 바다의 물결을 막으시는 일을 하시는 이여!  
 격노하시는 전사시여! 공격하소서!  
 아버지 티슈팍이시여! 바다의 물결을 막으시는 일을 하시는 이여!  
 하느님, 신들의 왕이시여...

“바다의 물결을 막는 일을 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티슈팍이 바다 신인 티아맛과 싸우는 폭풍신인 것을 알 수 있다. 기원전 17세기의 토판으로 누르-신Nur-Sin이 지르리-림Zimri-Lim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와 비슷한 모티프가 등장한다(ARM A 1968).

lu-t[e-e]r-ka a-na gis-[gu-za e a-bi-ka]  
 u-te-er-ka gis-tukul-[mes] sa it-ti te-em-tim  
 am-ta-ah-su ad-di-na-ak-kum

아다드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그대를 그대 부친의 왕좌에 되얌혀 놓았다.  
 그리고 내가 티아맛과 대적한 팔을 그대에게 내리노라.  
 나는 그대를 내 승리의 기름으로 기름부었다.  
 아무도 그대를 대적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아다드는 바알의 아카드식 표현이다. “티아맛과 대적한 팔”이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관심 갖는 표현이다. 아다드가 티아맛과 싸웠다는 말은 앞의 토판과 마찬가지로 ‘신들의 싸움’ 신화의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 두 토판은 모두 ‘신들의 싸움’ 신화소神話素(mytheme)를 간직하고 있는 토판이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신화는 에누마 엘리쉬로 알려져 있는 ‘바벨론 창조신화’이다. 이 신화의 역사적 배경은 학자들마다 다르나 대개는 기원전 2천년대 중후반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S. Dalley 1989:228-230)\*\*\* 바알 신화는 바알의 제한적 왕권을 말하고 있지만 에누마 엘리쉬에는 마르둑의 전적인 왕권을 그리고 있기에 바알 신화보다 더 후대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 신화의 네 번째 토판은 이렇게 되어 있다(iv 135-146).\*\*\*\*

\* J.-M. Durand, “Le mythologeme du combat entre le dieu de l’orage et la mer en Mesopotamie” Mari 7 (1993), 41-61쪽, 특별히 43 쪽.

\*\* A. Westenholz, “Old Akkadian School Texts,” Archiv fur Orientalforschung 25 [1974-7], 95-110 쪽, 특별히 102쪽의 MAD i 192 참조.

\*\*\* S. Dalley, Myths From Mesopotamia: Creation, The Flood, Gilgamesh and Oth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228-230.



벨(마르둑)은 시체를 조사하며 쉬고 있다.  
 아주 능숙한 솜씨로 시체 덩어리를 나누었다.  
 그는 티아맛을 말린 물고기처럼 잘라냈다.  
 그 반쪽으로는 펼쳐놓아 하늘을 만들었다.  
 가죽을 펼쳐놓아 시간으로 삼았다,  
 티아맛의 물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는 하늘을 둘러보려고 가로질렀다.  
 그리고 누디뫼드의 처소인 압수와 대칭되게 조정하였다.  
 벨은 압수의 외모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에쉬갈라의 복제품인 에쉬라를 세웠다.  
 그가 지은 에쉬라, 곧 에쉬갈라와 하늘에  
 그는 아누와 엔릴과 에아의 성소를 세웠다.

이 부분에 나오는 벨(belum)은 바알의 바벨론식 표현이다. 마르둑을 벨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쏘킬드 야콥슨에 의하면 마르둑이라는 이름은 수메르어로서 “아마르”(amar)와 “우투”(utu) 그리고 “우쿠”(uku)로 분해할 수 있는 이름이다. “아마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우투”는 “소”라는 뜻 이외에 “폭풍”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리고 “우쿠”는 두 낱말이 결합될 때 뒤에 붙는 어미이다. 따라서 마르둑은 “폭풍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이라는 것이 야콥슨의 견해이다.\* 이 마르둑은 티아맛의 시체 한 쪽으로 하늘을 펼친다. 또한 뒷부분에는 그의 시체 다른 한 쪽으로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것으로 우리는 폭풍의 신과 바다의 신의 싸움을 잘 읽어 볼 수 있다. 이 ‘신들의 싸움’ 신화는 아카드어로 되어 있는 “라부Labbu”라는 신화와 “안주Anzu”라는 신화에도 등장한다(ANET 111-113, 514-517). 라부는 사자 또는 뱀이라는 뜻으로 폭풍신과 바다신과의 싸움 신화의 변형이다. 그리고 헷족 신화인 ‘울리밀쿠 Ullimilku’에도 이 모티프가 등장하며, 이집트 신화인 ‘아스다롯과 바다’에도 언급된다(ANET 17-18).

#### 4. 히브리성서에 반영되어 있는 ‘신들의 싸움’ 신화소(神話素)

히브리성서의 야훼는 엘보다는 바알의 모습에 가까운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폭풍신인 야훼의 모습을 우리는 히브리 성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시편 74편이다. 12-17절을 읽어보자.

<sup>12</sup>하느님은 태곳적부터 나의 임금님  
 온 누리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  
<sup>13</sup>님은 힘으로 바다(ים)를 물러가게 하시는 이  
 물(ים) 속 여러 괴물(תנינים)의 머리를 깨부수시는 이  
<sup>14</sup>님은 리위야단(ליויתן)의 여러 머리를 바수시는 이  
 들판에 사는 이들의 먹이가 되게 하시는 이

\*\*\*\* L. W. King (ed.), *Enuma Elish: The Seven Tablets of Creation or The Babylonian and Assyrian Legends Concerning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of Mankind*. Vol. I: English Translations etc. London: Luzac and Co., 1902, 76-77.

\* T. Jacobsen, “The Battle Between Marduk and Tiamat,” *JAOS* 88 (1968), 108.

<sup>15</sup>님은 샘물(מעין)과 시냇물(נחל)을 쪼개시는 이  
 님은 힘센 강(נהרות איתן)을 말리시는 이  
<sup>16</sup>낮도 밤도 님의 것  
 님은 해가 다니는 길을 내신 이  
<sup>17</sup>님은 온누리의 경계를 세우신 이  
 여름도 겨울도 님이 만드셨으니

신들의 싸움 모티브가 창조와 뒤엉켜 있는 시이다. 물의 이미지인 바다, 샘물, 시냇물, 힘센 강 그리고 바다 속 괴물인 타닌, 리워야단을 제압하시는 야훼의 승리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12절은 이 점을 간결하게 표현한 구절이다. “임금”이라고 하면 다스림, 제압을 뜻한다. 그리고 하반절 “이기에 하시는 이”(פעל ישועות)는 승리하시는 이, 곧 승리자(victor)라는 뜻이다. 곧 창조는 바다로 대표되는 물 그리고 물 속에 사는 괴물들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라고 시편 74편은 고백한다. 창세기 1장 2절과 일맥상통하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다. 14절에 나오는 “들판에 사는 이들의 먹이가 되게 하시는 이”라는 구절 가운데 “들판에 사는 이”(לציינים)라는 표현이 사실 모호하다. 무슨 뜻인지 분명치 않다. 하지만 모세가 바위를 터뜨려 생수를 내듯 물을 제압하고 괴물을 쪼개야만 생명을 가져오는 먹이를 내게 한다는 점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또아리튼 뱀을 터뜨려야만 그곳에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말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사야 63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에스겔 32장에서도 암시적으로나마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욥 26장도 이와 같은 전통에 속해 있는 부분이다. 욥은 2-3절에서 수아 사람 빌닷에게 힘도 깨달음도 없으면서 무슨 말참견이냐고 따진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한다.

<sup>5</sup>르바임이 아랫세상에서 몸부림친다.  
 물(מים)과 그 속에 사는 것들도 몸부림친다.  
<sup>6</sup>스올은 그 앞에서 발가벗었구나.  
 아바돈은 덮개도 없어.  
<sup>7</sup>북쪽을 허공虛空(תהו) 위에 펼치신 이  
 땅을 무無(בלימה)에 걸어두신 이  
<sup>8</sup>물(מים)을 님의 구름에 담아 두신 이 -  
 구름이 밑으로 쪼개지지 않아.  
<sup>9</sup>구름 펼쳐 님 앉으신 보좌를 가리우신 이  
<sup>10</sup>줄을 수면(פני-מים) 위에 깊숙이 새기신 이 -  
 빛과 어둠이 만나는 그 곳까지.  
<sup>11</sup>님이 호령하시니 하늘 기둥 흔들흔들  
<sup>12</sup>님은 힘으로 바다(ים)를 잠재우신다.  
 재주부려 라합(רב)을 깨부신다.  
<sup>13</sup>바람(רוח)으로 님은 하늘을 잠잠케 하신다.  
 손으로 또아리튼 뱀(נחש ברח)을 찍어 꿰뚫으신다.  
<sup>14</sup>이 모든 것도  
 님 하시는 일 살짝 보는 것일 뿐  
 님을 알아보는 산들바람에 불과할 뿐  
 님 하시는 엄청난 일 누군들 알아보리 -

욥의 이 고백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물과의 싸움인 창조사건이 죽음과 결부되어 있는 점이

다. 5절과 6절에 “물과 그 속에 사는 것들”이 “망령亡靈”이라고 보통 알려진 르바임과 스올 그리고 아바돈과 함께 등장하기 때문이다. 곧 “물”이 아랫세상을 뜻하는 용어들과 함께 쓰인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이 가운데서 아바돈은 “망각妄覺” 또는 “잊혀짐”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다(시 88:12). 아무튼 12-13절은 신들의 싸움 모티브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며 특별히 하느님의 바람이 하늘을 잠잠케 한다는 표현이 첨가되었지만 이는 창 1장 2절의 하느님의 바람이 물을 공격하는 장면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 77편 또한 ‘신들의 싸움’ 모티브를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편이다. 이 시편에는 “물”과 “깊음”과 “바다”와 “큰 물”을 제압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17-21절).

17 물(מים)이 님을 바라봅니다, 하느님!  
 물(מים)이 님을 바라봅니다. 몸서리치는군요.  
 어이구, 깊음(תהומוֹת)도 요동칩니다.  
 18 구름이 물(מים)을 쏟네요.  
 하늘이 우르렁거리네요.  
 어이구, 님이 쏘시는 화살이 마구 날아가는군요.  
 19 님의 천둥소리가 마차바퀴 구르는 소리처럼 울리는군요.  
 온 누리에 번쩍거립니다.  
 온 세상이 흔들거립니다, 마구 흔들거립니다.  
 20 바다(ים)를 님이 제압하시는군요.  
 님의 길이 큰 물(מים רבים) 위에 나있군요.  
 님의 발자취 헤아릴 길 없어라.

하느님의 원수인 “물”이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한 시이다. 여기서는 “깊음”이 물과 동일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깊음이 짝말(paired word)로 등장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 20절에서 야훼가 바다를 제압한다는 표현이 또한 님의 길이 큰 물위에 나있다는 표현과 나란히 등장하여 대구를 이루는 것 또한 눈여겨 보아야할 부분이다. “님의 길”이라고 옮긴 다르케카(דרכך)는 “길, 도道”라는 뜻의 데레크에 이인칭 인칭대명사 어미가 덧붙은 형태이다. 그런데 길이란 뜻의 히브리어 데레크는 “밟다, 짓밟다”는 뜻의 다라크(דרכך)에서 온 말이다. 곧 밟다는 뜻에서 발전하여 데레크라는 명사는 “밟음, 짓밟음, 지배, 힘”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욘 40:19, 26:14).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힘, 지배를 나타내는 말이다. 곧 미리암의 노래(출 15)처럼 큰 물을 짓밟으시는 전사 하느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구절이 20절 하반절이다. 마지막 절인 21절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가축 떼처럼 님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님의 안내를 받았다”는 덧붙임이 그것이다. ‘미리암의 노래’(출 15장)를 연상케 하는 해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편에서 물이나 큰 물 또 바다와 깊음은 모두 하느님 엘의 적이다. 우가릿 바알 신화에서는 바다(얌)가 바알의 주요 원수로 등장한다(KTU 1.2 iv).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바벨론 창조신화 에누마 엘리쉬에도 티아맛(“깊음”)을 마르дук이 살해하고 그 시체로 하늘과 땅을 짓는 이야기가 등장한다(iv 93-103). 모두 같은 모티브라고 말할 수 있다.

이사야 51장에도 이와 똑같은 모티브가 등장한다. 바벨론 이사야로 알려져 있는 제3 이사야에 들어 있는 이 모티브 역시 야훼가 바다괴물인 라합과 타닌 그리고 바다를 말리시고 제압하는 장면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자.

9 깨소서! 깨소서!  
 야훼님 팔뚝이여!

힘을 옷 입으소서!  
 깨소서,  
 태곳적 날들처럼,  
 머나먼 옛날 그때처럼 -  
 님의 팔뚝은 라합을 꿰뚫지 않으셨던가!  
 타닌을 찌지 않으셨던가!  
<sup>10</sup>님은 팔뚝으로 바다(ים)를 말리지 않으셨던가요 -  
 엄청난 깊음의 물(מִי הַחַיִּים רַבָּה)을.  
 바다 깊숙한 곳(מֵעַמְקֵי יָם)에 길을 내지 않으셨던가요?  
 하여 몸값 주고 사신 이들을 건너게 하지 않으셨던가요?

바벨론 이사야는 갈대바다의 사건을 바벨론 포로공동체의 해방과 연결시킨다. 바벨론 제국을 바다괴물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63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에스겔이 32장에서 이집트를 바다괴물과 동일시 한 점과 비슷하다. 라합과 타닌이 바다괴물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과 같다. 10절에서 야훼가 바다를 말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점은 시편 77편과도 같은 궤도 선상에 서있는 것이다. 여기서 바다는 엄청난 깊음의 물과 또한 짝말로 등장한다. 그리고 바다 깊숙한 곳에 길을 냈다는 것 역시 깊숙한 바다를 제압하는 야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욥기 26장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출 15장)와 같은 얘기이다.

이외에도 성서 곳곳에 “신들의 싸움” 모티브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사야 19:5; 시 92-93편, 106:9; 욥 9:8, 욥 38장 등이 그 대표적인 본문이다. 신약성서의 묵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천사장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도 이 모티브의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 5. 언어학적 근거

우가릿 제의 본문 가운데 KTU 1.108이라고 불리는 본문이 있다. 이 본문은 우가릿 왕족 망자(亡者) 제의에 속해 있는 본문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우가릿 문헌에서 망자의 혼으로 알려져 있는 라피우마가 이 본문의 앞 부분과 뒷 부분에 등장한다. 죽은 왕을 “영원한 왕이신 라피우마여”라고 부르고 있는 점이다(KTU 1.161 참조). 이 본문의 뒷부분은 죽은 왕인 라피우마가 우가릿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문이다. 라피우마는 히브리어 르바임, 곧 망자에 해당되는 낱말이다(이사야 14:9). 이러한 점 때문에 스페인의 우가릿 학자 델 올모 레페는 이 본문을 죽은 왕을 신격화하는 조상제의에 속해 있는 본문이라고 본다.\* 이 본문 가운데 6-10행에는 아나티 등장한다. 아마도 아나티 이 조상제의문에 등장하는 이유는 바알과 같이 바다(야무)와 강(나하르) 그리고 죽음(모투)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전사의 모습으로 바알신화(KTU 1.1-6)에 등장하기 때문에 언급된 것으로 짐작된다(KTU 1.10 참조).

그리고 힘센 아나티 (물/술을) 마신다.  
 왕권을 쥔 여군주가,  
 통치권을 쥔 여군주가,  
 높은 하늘에 계신 여군주가,  
 땅을 다스리는 여군주가.  
 아나티 날개로 난다.

\* G. Del Olmo Lete, *Canaanite Religion According to the Liturgical Texts of Ugarit*. Transl G. E. Watson. Bethesda, Maryland: CDL Press, 1999, 185-6.

높은 하늘에서 내리꽂는 이(rhpt [b sm]m rm).  
엘의 송아지를 먹는 이,  
뿔에서 .....을 마시는 이.

이 가운데에서 아낫은 날개를 달고 있는 신으로 등장한다. KTU 1.10의 두 번째 난 10-14행에는 아낫이 날개를 달고 있는 강한 여신으로 나온다(ii 10-23).

성처녀 아낫은 날개를 펼쳤다.  
그는 그의 날개를 펼쳤다.  
날개로 멀리 날랐다.  
들소가 북적대는 샤마크 해변을 향해.  
그때 전사 바알이 눈을 들었다.  
그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바로 성처녀 아낫을 본 것이다.  
바알의 자매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이를.  
그에게로 서둘러 달려가  
그의 발치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바알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자매님, 만수무강하소서!  
그대의 힘있는 뿔이, 성처녀 아낫이여,  
그대의 힘있는 뿔이 바알에게 기름붓기를!  
하여 바알이 그 힘차게 나르는 힘으로  
그들에게 기름부을 수 있기를!”

여기서 아낫은 앞의 조상제의문(KTU 1.108)과 같이 힘을 지닌 신으로 등장한다. 그 힘은 날개를 달고 힘차게 나르는 모습으로, 또한 뿔을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뿔은 성서에서 그리고 시리아-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서 모두 힘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성서로 돌아가자. 우선 “모세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신명기 32장을 보자. 모세는 늘그막에 죽을 때가 가까워오자 야훼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갖다놓고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장로들을 불러모아 “하늘이여 귀기울이라. 내 입을 열리라. 대지여, 내 하는 말 들어보라”로 시작하는 노래를 부른다. 이 가운데에서 10-12절을 읽어보자.

<sup>10</sup>거친들 거기서 그를 찾아내시는 님  
웅웅대는 빈들(𐎒𐎗𐎕) 바로 거기서  
그를 에워싸시는 님  
그를 지키시는 님  
그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님  
<sup>11</sup>둥지를 짓는 독수리처럼  
새끼들 향해 내리 꽂으시는(𐎒𐎗𐎕) 님  
날개 활짝 피시어 붙잡으시는 님  
날개 깃으로 나르시는 님  
<sup>12</sup>야훼님 홀로 이끌어 주시니  
그 어떤 다른 신도 그 편이 아니니라

여기서 모세는 야훼가 새끼를 보호하는 독수리처럼 동지를 향해 내리꽂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예레미야도 23장에서 같은 동사를 사용하여 뼈마디마다 몸 속에서 마구 공격당하는 격정적인 신체 변화를 그리고 있다. 물론 여기서 이 낱말이 모호한 뜻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다. 램 23:9을 읽어보자.

속에서 내 마음이 산산히 부서졌어요.  
내 뼈마디마디가 이미 부서져 내렸어요(רָפוּ).  
비틀거리는 술주정뱅이가 되었어요, 저는.  
술에 빠져 꼼짝 못하는 술꾼이 되었어요, 제가요.  
님 때문이죠  
엄청난 님의 말씀(רַב־רִי קִדְשׁוֹ) 때문이죠.

사실 “내 뼈마디마디가 이미 부서져 내렸어요”라고 옮긴 두 번 째 행은 그 뜻이 분명치 않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원인은 바로 야훼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은 문자적으로 옮기면 “거룩한 말씀들”인데, 이 가운데 “거룩한”이라는 일차적인 뜻을 지닌 히브리어 꾸밈씨 카도쉬(קָדֹשׁ)는 “힘, 능력, 지배”라는 뜻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이다.\* 따라서 야훼의 힘찬 말씀을 받고 몸과 마음이 산산히 부서져 내린 예언자의 고뇌를 라하프(רָחַף)라는 움직임씨를 통해서 읽을 수 있다.

## 6. 문헌의 구조적 근거

창 1:1-2은 6일간의 창조를 요약한 말이다. 1절은 종속절로 읽어 “땀 처음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내실 때”라고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땅은 비어있고 혼돈스러웠다”라는 선언이 나온다. 곧 하느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땅은 존재해 있었다. 그래서 땅의 성격을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2절 상반절이다. 그 다음 이런 말이 등장한다.

וַחֲשַׁךְ עַל־פְּנֵי תְהוֹמוֹת  
וְרוּחַ אֱלֹהִים מְרַחֶפֶת עַל־פְּנֵי הַמַּיִם

어둠은 깊음의 얼굴 위에 드리워 있다.  
하느님의 바람은 물의 얼굴을 향해 내리꽂는다.

이 하반절은 대구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대구법은 (a1)-(b1)-(c1) :: (a2)-(b2)-(c2)이라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히브리어의 구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어둠(a1) - 위에 [드리워 있다](b1) - 깊음의 얼굴(c1)  
하느님의 바람 (a2) - 향해 내리꽂는다(b2) - 물의 얼굴을(c2)

어둠(a1)과 하느님의 바람(a2)이 대구를 이루고, 깊음의 얼굴(c1)과 물의 얼굴(c2)이 마찬가지로 대구를 이룬다. 곧 “어둠”과 “하느님의 바람”이 반드시 동일시되지는 않지만 같은 기능을

\* Baruch A. Levine, “The Language of Holiness: Perceptions of the Sacred in the Hebrew Bible,” in M. P. O’Connor and D. N. Freedman (eds.), *Backgrounds For The Bible*.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87, 248-9.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곧 하느님의 공격무기가 바로 “어둠”(אֲדָמָה)과 “바람”(רוּחַ)이라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깊음의 얼굴”(c1)과 “물의 얼굴”(c2)도 대구를 이룬다. “깊음”(אֲדָמָה)과 “물”(הַמַּיִם)은 히브리성서에서 종종 같은 뜻을 지닌 짝말로 등장한다. 수식어인 “얼굴”은 같은 말인 파님(\*פָּנִים)의 구문형(פָּנִי)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위에 (드리워 있다)”는 요소(b1)와 “향해 내리꽂는다”(b2)라는 요소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히브리어 전치사 알(עַל)이 성서 곳곳에서 “에 대항하여”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성서 히브리어와 성서 아람어에서 존재동사인 하야(הָיָה) 또는 하바(הוּבָה)가 전치사 알과 결합하여 “하야/하바 + 알”이라는 구조로 등장할 때는 “...를 공격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쓰인다.\* 창세기 42:36과 에스라 4:20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은 자식들을 잃고 고통스런 상황에서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는다.

그대들은 내게서 모든 자식들 빼앗아 갔소.  
 요셉도 없소.  
 시므온도 없소.  
 벤야민도 빼앗아 가지 않았소?  
 내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소(עָלַי הָיָה כִּלְנוּהָ).

마지막 부분을 바룩 레빈 교수는 Everything turns against me!로 옮긴다.\*\* 곧 모든 일이 신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풀어서 옮긴 것이다. 이렇게 위의 관용적 표현은 적대 또는 반대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아람어 표현은 더 적극적으로 이 뜻을 드러낸다. 사마리아의 르흠 사령관과 심새 서기관이 성전을 재건하는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에 대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보낸 회신에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에스라 4:18-20 『\*표준새번역』).

<sup>18</sup>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sup>19</sup>그것을 듣고서 조사해 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 왔으며, 그 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sup>20</sup>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 곳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הוּוּ עַל־יְרוּשָׁלַם), 유 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기원전 8세기의 문헌으로 학자들이 자리매김하는 데이르 알라 새김글 첫째 란(Deir 'Alla I)에는 요단 동쪽 길르앗의 예언자 발람의 신탁에 “어둠”이 신들의 심판 징조로 등장한다. 곧 “어둠”은 신들의 무기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6-7행).\*\*\*

궤매어라, 하늘을 짙은 구름으로 덮어 버려라.  
 하여 어둠(אֲדָמָה) 만이 있게 하여라. 광채는 없게 하여라.  
 꺾꺾 싸매어라. 반짝이는 어떤 빛도 없게 하여라.  
 하여 공포를 일으키거라.  
 [ 그리고 엄청난] 어둠(אֲדָמָה)만.  
 그리고 어떤 소리도 내지 말아라.

\* B. A. Levine, Numbers 21-36. AB 4A. New York: Doubleday, 2000, 451.

\*\* 바룩 레빈 교수의 1998년 10월 18일 강의록.

\*\*\* B. A. Levine, “The Deir 'Alla Plaster Inscriptions,” JAOS 101 (1981), 197. 같은 저자의 Numbers 21-36, 244-246.

이 장면은 요단 강 건너편 지역에서 예언활동을 하던 브올의 아들 발람이 꿈에서 본 신탁이다. 이 발람은 민수기 22-24장에 나오는 성서 속의 예언자인 발람과 같은 인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이 신탁은 꿈에 샤다이 신들(shadayin)이 회의를 열면서 샤가르-이쉬타르(Shagar-we-Ishtar) 신에게 내린 명령이다. 발람이 이 명령을 듣고 이튿날 자기를 찾아온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준 내용이다. 곧 온 땅이 칠후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버리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어둠은 샤다이 신들이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애굽기의 열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짙은 어둠 역시 하느님이 이집트를 공격하시는 최후의 무기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의 바람”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의 문학구조 속에서 평행 요소로 등장하는 “어둠”은 이렇게 하느님의 무기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 7. 나가는 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 있는 독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폭풍신인 하느님(엘로힘)의 바람이 원수인 물을 공격하고 있다(“to swoop down”)는 선언이 창세기 1장2절의 선언이다. 예레미야 51장 1절은 하느님의 바람이 바벨론을 휩쓴다는 말이 나온다.

나는 일으키리라.  
바벨론에 대항하여  
렘 카마이 주민에 대항하여  
파멸의 바람(מַרְבֵּחַ)을.

이 “(파멸시키는, 쓸어버리는) 바람”은 예레미야 51장 16절에도 다시 등장한다(13절 참조). 이 선언은 창세기 1장 2절과 연결되는 선언이라고 생각된다. 예레미야와 창세기 1장의 사제 그룹(P) 기자는 거의 동시대 인물일 것이기 때문이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 즈음에 사제 그룹(P)에 의해 쓰여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이렇게 제국 바벨론의 압제의 사슬을 끊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창조 사건과 연결시켜 고백하고 있다. 마르헤페트(מַרְבֵּחַ)는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예수말씀의 대조연구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제임스 M. 로빈슨

『예수말씀의 대조연구서』<sup>1)</sup>는 예수에게서 기인된 것으로 여겨지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제공해 주고 있다. 최소한 그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더 오래 된 수집물들은,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서 현존하는 본문 중에서 가장 오래 된 자료층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2)</sup> 그러므로 “Q는 분명히 예수의 가르침을 복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sup>3)</sup>

『예수말씀의 대조연구서』가 출판되기 이전까지, Q는 보통 예수에게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는 각각의 말씀들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만 취급되었다. 결국 Q = 자료(Quelle)였다. Q는 거의 하나의 문서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그랬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자체의 편집 의도를 가진 하나의 복음서로 취급되지 않았다.<sup>4)</sup> 더구나 Q 공동체의 구성원들(Q people), 즉 그들 자신을 언제나 예수의 제자들과 동일시하였던 갈릴리<sup>5)</sup>

1) *The Critical Edition of Q. Synopsis including the Gospels of Matthew and Luke, Mark and Thomas with English, German, and French Translations of Q and Thomas*, eds. James M. Robinson, Paul Hoffmann, and John S. Kloppenborg, Leuven, Peeters, and Minneapolis, Fortress, 2000. 본 논문은 이 책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John S. Kloppenborg, in *The Formation of Q. Trajectories in Ancient Wisdom Collections* (Studies in Antiquity and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1987, reprinted Harrisburg,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0, 171-245에 의해 분류된 여섯 개의 담론들[Q 6:20b-49; 9:57-62 + 10:2-16, 21-24; 11:2-4, 9-13; 12:2-12; 12:22-34; 13:24-30. Kloppenborg는 이것들을 여섯 개의 sapiential speeches라고 부르며, 그것들이 ‘instruction’ 장르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역자주)]를 포함하는 Q의 그리스어로 기록된 첫 번째 판본이 있었다는 견해에 대해 회의를 나타내는 주장들이 종종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들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Q 이전의 옛 전승층에 속한다는 사실이 종종 간과되어왔다. 나는 “The Q Trajectory. Between John and Matthew via Jesus,” in Birger A. Pearson (ed.), *The Future of Early Christianity*. FS Helmut Koester,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173-194, esp. 185-189에서 Dieter Lührmann, Siegfried Schulz, Dieter Zeller, Ronald A. Piper와 Hans Dieter Betz의 아주 다양한 출발점들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결과점에 주목하였다. 그때 나는 “Die Logienquelle. Weisheit oder Prophetie? Anfragen an Migaku Sato, *Q und Prophetie*,” in *EvTh* 53 (1993), 367-389의 385페이지에서 이 학자들의 이름에 Migaku Sato를 포함시켰으며, Kloppenborg 자신은 “The Sayings Gospel Q. Literary and Stratigraphic Problems,” in Risto Uro (ed.), *Symbols and Strata. Essays on the Sayings Gospel Q* (Publications of the Finnish Exegetical Society, 65), Helsinki and Göttingen, Finnish Exegetical Society and Vandenhoeck & Ruprecht, 1996, 1-66, esp. 52에서 Heinz Schürmann의 이름을 추가하였다(48페이지에 있는 여섯 개의 수집물들에 대해 참조하라).

3) Gerd Theißen and Annette Merz, *Der historische Jesus. Ein Lehrbu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45. ET: *The Historical Jesus. A Comprehensive Guid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8, 29.

4) Alan Kirk, *The Composition of the Sayings Source. Genre, Synchrony, & Wisdom Redaction in Q* (NTS, 91), Leiden, Boston, and Köln, E. J. Brill, 1998.

5) Q 운동(Q movement)의 장소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 갈릴리 가설—로마와의 전쟁으로 인해 시리아에까지 흩어졌기 때문에 시리아도 또한 포함될 수 있다—은 주로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된 교회 조직과 그리스도론의 특징들이 Q에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Judaism, Hellenism, Christianity. Jesus’ Followers in Galilee until 70 C.E.,” in Vittorio Mathieu (ed.), *Ebraismo Ellenismo Christianesimo* (Archivio di Filosofia, 53, 1), Padova, Cedam, 1985, 241-50, esp. 244에 있는 나의 간략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거의 완벽하게 갈릴리를 우회하여 표현하였던 사실 이래로 항상 그래왔다. 예를 들어 행 1:8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갈릴리의 교회는 지나쳐 가는 일반화된 서술문 안에서 단지 한 번만 언급될 뿐이다(행 9:31):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들어선 교회는 안정이 되어 터전을 튼튼히 잡았다.” 예수의 말씀들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 다양한 종교 경험 가운데 주된 현상이었던 그러한 예수 운동에 대해 사도행전은 아무 것도 드러내 주는 것이 없다. 따라서 『예수말씀의 대조연구서』는 Q 본문 자체 뿐 아니라, Q 이전의 수집물들, Q 안에 있는 내용들의 삶의 정황(*Sitz im Leben*), 그리고 예수에게 들릴 수 있는 말씀들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더 실질적인 점에 있어서 Q를 단지 한 가설에 불과한 것으로 쉽고 대수롭지 않게 거부하는 것도 만일 『예수말씀의 대조연구서』를 책상에 펴놓는다면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태도가 될 것이다. Q 본문을 밝혀내는 과정과 최근의 Q 연구의 흐름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 의견들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페터스 프레스’와 ‘포트리스 프레스’에 의해 Q 본문이 출판된 것과 때를 맞추어서, 『예수말씀의 대조연구서』의 출판을 축하하며 국제성서학회(SBL)가 특별분과를 2000년에 개최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된 Q 연구의 발전 과정은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 1. 이야기 복음서들과 말씀 복음서들

Q가 *도마복음서*와 비슷하게 거의 말씀 복음서인 반면에, 정경에 포함된 복음서들은 모두 이야기 복음서들이다. 말씀 복음서보다 이야기 복음서를 선호하게 되는 한가지 이유는, 이야기 복음서들이 예수의 “공생애” 기간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더 잘 보여주는 반면에, 말씀 복음서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는 예수의 “공생애”의 외적인 단계들과 그의 “메시아 자의식”의 내적인 발전 단계들을 추적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마가복음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1901년에 윌리엄 브레데는 예수의 공생애가 예수 자신의 행적과 의도에 대한 회상들이 아니라 오히려 마가의 “메시아 비밀”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재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up>6)</sup>

확실히 19세기말까지 공관복음서의 1년 “공생애”가 요한복음의 3년 “공생애”를 압도하였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끝까지 옹호하는 학자들은 공관복음서 이야기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공세를 취하였다. 그것은 1917년 슈미트가 베를린 대학에 제출한 교수자격논문<sup>7)</sup>이 계기가 되었는데, 그 논문에서 슈미트는 공관복음서 이야기를 아주

한 설명을 보라:

예수 운동은, 이 전승이 선교를 행했다고 전하고 있는 고라신, 벳새다, 가버나움(Q 10:13-15) 등의 특정한 장소 이름들에 의해 판단해볼 때 명백히 갈릴리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는 이 장소들이 그 메시지를 배척하였다는 사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Q는 야고보에 대해서도 베드로에 대해서도(그 둘은 모두 갈릴리를 떠났다)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열 둘 가운데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열 둘 또는 사도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어느 제자의 이름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반대의 가설을 위해서는 이 책 안에 있는 M. Frenschkowski의 글을 보라. 그는 예루살렘과 켈라로의 이주에 관해 주장하면서, 켈라를 Q의 마지막 편집 장소로 간주한다.

6) William Wrede, *Das Messiasgeheimnis in den Evangeli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1. ET: *The Messianic Secret*, Cambridge and London, T. and T. Clarke, 1971.

효과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각 단화(pericope)들에 대해 하나씩 분석한 후, 그의 기념비적인 책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예수의 역사에 대한 가장 오래 된 개요는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가복음 안에 있는 전승들이 불균형하다는 사실은 가장 오래 된 예수 전승이 어떠한가를 보여준다: 연속적인 보도가 아니라 각각의 이야기들을 함께 모아놓은 것인데, 그것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주제적인 관점에 따라 배열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실제 여정—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은 우리가 거의 재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들을 배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태를 따를 수밖에 없다. 또는 심지어 우리는 마태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데, 마태도 여전히 너무 많은 것을 마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발전하고 있는 생애 이야기라든지 예수의 역사에 대한 연대기적 개요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예수의 생애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각각의 이야기들, 즉 단화들만이 있는데, 그것들은 전체 문맥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sup>8)</sup>

결과적으로 볼 때,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의 순서—그것이 이야기 복음서들이 말씀 복음서들보다 선호되는 주된 이유였다—는 그 자체가 역사적이 아니다. “단화들의 순서로부터 예수의 인격의 발전단계를 읽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sup>9)</sup>

그러나 마태와 누가도 마가복음의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다. Q 7:22에 언급된 치유의 예들을 보여주기 위해 마 8-9장은 마 11:5절 앞에 나오는 치유들의 순서를 바꾸었다<sup>10)</sup>: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피부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구절에 맞추어 치유들을 채워 넣기 위해, 마태는 마가와 Q로부터 치유 이야기들을 가져와 두 번 반복되는 단락들(doublets)을 만들었다: 눈먼 바디매오의 치유(막 10:46-52 병행 마 20:29-34)는 마 9:27-31에서 반복되었으며, 병어리 귀신의 축출(Q 11:14-15 병행 마 12:22-30)은 마 9:32-34에서 반복되었다. 두 경우 모두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편집에 의해 반복되었다는 것이 덜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서 기자가 신학적인 필요에 따라 이야기들을 들추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궁극적으로 이사야에 근거를 두고 있는<sup>11)</sup> Q가 열거하고 있는 모든 치유들의 예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마 12-28장에서 마태는 복음서의 나머지 부분을 위해 오히려 마가의 비역사적인 순서를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 누가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야기를 차례대로

7) Karl Ludwig Schmidt, *Der Rahmen der Geschichte Jesu*, Berlin, Trowitzsch, 1919.

8) Schmidt, *Rahmen* (n. 7), 317.

9) Theissen and Merz, *Der historische Jesus* (n.3), 25. ET: *The Historical Jesus* (n. 3), 6.

10) Ulrich Luz, “Die Wundergeschichten von Mt 9-9,” in Gerald F. Hawthorne and Otto Betz (eds.), *Tradition and Interpretation in the New Testament: FSE*. Earle Ellis, Grand Rapids, MI, Eerdmans, and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1987, 149-165. Luz, “Fiktivität und Traditionstreue im Matthäusevangelium im Lichte griechischer Literatur,” in *ZNW* 84 (1993) 153-177.

11) Heinz-Wolfgang Kuhn, “Jesus,” in Lawrence H. Schiffman and James C. Vanderkam (eds.), *Encyclopaedia of the Dead Sea Scrolls*, Oxford University Press, vol. 1, 2000, 404-08, esp. 407:

마지막 때가 곧 도래할 것에 대한 예수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인 마 11:5-6(병행 눅 7:22-23)은 4Q521에 병행구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쿨란 본문은 오직 미래에 대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으로부터 추정될 수 있는 말씀 자료(Q)의 본문에서 예수는 미래의 종말론적인 구원—그는 그 구원을 이미 현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을 묘사하기 위해 이사야서(35:5-6; 29:18-19; 26:19; 61:1)의 말씀들을 사용한다.... 그 쿨란 사본(4Q521)은 반드시 쿨란 공동체로부터 기인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예수의 말씀과 4Q521 배후에는 구원의 때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공통의 유대교 전승이 있을 것이다.

역으려는”(눅 1:3) 누가의 의도와 “확실함”(눅 1:4)을 보여주려는 그의 의도는 역사 편찬의 정확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정확성에 관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밝혀졌다.

이처럼 말씀 복음서보다 이야기 복음서를 선호하는 것은 비역사적인 여정—이야기 그러나 역사가 아닌—에 대한 선호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지만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말씀들보다는, 비록 역사적인 순서에 따른 것은 아닐지라도 각각의 이야기들을 많이 연결하는 것이 선호되었을 것이다. 즉 예수도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만 했던 것이 아니라 행동도 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Q도 예수를 단지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으로만 제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Q도 예수를 이야기 복음서들이 보도하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으로 제시한다: 귀신축출자(exorcist)로서의 그의 역할은 바알세불 논쟁을 불러일으킨 귀신 축출(Q 11:14-15)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신앙을 통해서 치유를 베푸는 사람(faith healer)인 예수의 역할은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사건(Q 7:1-10)에서 잘 드러난다.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오실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Q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행하는 것을 보고 들으라고 요청했으며, 또한 Q는 그 내역을 제시했다(Q 7:22). 사실 그 내용이 아주 광범위하여 마태는 그것을 문서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다(위를 보라). 예수가 누구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설교를 제시하기에 앞서 그의 치유 사역들을 먼저 보도하는 것이 말씀 복음서라는 사실은 정말 묘한 것이다. 더구나, 고라신과 벳새다에서 “기적들”이 행해졌다고 Q 10:13은 보도한다. 그리고 선교 지침(Mission Instructions)에서는 예수의 치유 능력이 제자들에게 계속 이어졌음을 분명히 하면서, 그들에게 병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을 명령한다(Q 10:9). 이처럼 귀신축출자와 신앙을 통해서 치유를 베푸는 사람인 예수의 역할은 이야기 복음서들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처럼 Q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귀신축출과 신앙 요법에 의한 치유를 또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람도 Q의 예수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이다. “그러나 내가 귀신을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왔다”(Q 11:20). 하나님의 평화가 머물고 있는 집에서,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도달했다’ 하고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Q 10:9).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예수의 말씀을 제자들은 믿었으며, 그 메시지는 Q 운동에 있어서 여전히 선포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야기 복음서들에서 발견되는 기적적인 치유 이야기들을 말했으며, 그리고 때때로 정말 놀랍게도 기적적인 언어로 말하곤 했다. 그렇게 과도한 치유 이야기들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올바른 대답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Q에서 예수가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만일 복음서들에 있는 귀신축출과 신앙 요법에 의한 치유들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Q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예수의 “공생애”를 이해하는 데 Q가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 복음서들에 있어서, 예수를 귀신축출자나 신앙 요법에 의한 치유자로 제시하는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극적인 장면들도 현저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급식 이야기들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전제, 즉 그 이야기들의 신학적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곳은 무엇보다도 Q라

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말씀을 예수는 반복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라는 청원 다음에 지금 이 세상에서 그것이 뜻하는 바인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청원이 곧바로 뒤따라 나온다(Q 11:2-3).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예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또는 다시 그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더더욱 주시지 않겠는가!”(Q 11:11-13).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으며, 공간에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히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Q 12:22b, 24, 29-31). 그리고 선교 지침에서는 일꾼들이 음식을 얻게 될 것이 보장되고 있다: “너희는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 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도달하였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Q 10:7-9). 이처럼 Q의 예수에 의하면, 음식은 치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있게 될 것이다. 예수는 금욕주의적인 삶의 방식—비록 고대에 있어서는 그것이 존경을 받았으며, 예수의 스승인 세례 요한은 그것을 모범적인 예로 보여 주었지만—을 모범적인 예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음식을 먹었으며,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 “사람의 아들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보아라,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다! 세리와 죄인과 단짝이다!’ 하고 너희가 말한다”(Q 7:34). 수천 명을 먹이는 예수를 - 또는 그가 말하듯이 하나님을 -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Q에는 기적 이야기 자체는 없다(단지 우리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신앙 요법에 의한 치유와 귀신 축출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양식비평학적으로 볼 때, 그것들은 전혀 기적 이야기들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특히 물 위를 걷는 것, 어떤 사람이 가져온 빵과 생선으로 수천 명을 먹이는 것과 같은 그런 가장 극적인 자연 기적들은 Q에 나오지 않는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적들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예수가 그것들을 글자 그대로 행했던 사실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야기들은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Q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로부터 생겨난 것인데, 그 말씀들은 초대 교회에서 계속하여 믿어지고 선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Q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일 수 있다. 사실 정경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의 이유와 오늘날의 이유는 동일한 것이다: 마가복음의 수난 이야기, 그 다음에는 마태와 누가복음의 유아기 이야기들과 부활 이후 출현들의 단계를 거치는 케리그마의 발전 과정은 예수의 말씀들을 완전히 대체하였으며, 2세기의 사도신경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심지어 예수의 “공생애” 그 자체마저도 이미 대체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외우고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예수의 “공생애”와 말씀들에 대해 어떤 것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예수의 “공생애”와 모든 말씀들을 제외시킨 이 신조의 발전 단계가 그 이유였는데, 정경에 어떤 것이 포함될지는 그것에 의해 결정되었다.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 복음서들은 정경에 포함되었다. 비록 마가와 요한복음은 탄생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에큐메니칼적인”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유대 그리스도교와 이방 그리스도교가 모두 인정되었던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깨어져 버렸다. 그것은 성공적인 이방 그리스도교가 성공적이지 못한 유대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배척하여 결국 더 이상 그리스도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대 그리스도교의 가장 오래 된 복음서가 정경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현대에 있어서 성탄절과 부활절의 세속화와 상업화가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것처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장식들이 아니라 본질인 것이다. 만일 그 본질이 사실상 천사들이 캐롤을 부르고 또 돌을 옮겨놓는 것 이상의 것이며, 미래의 하늘나라에서 양식을 먹는 것 이상이라면, 아마 Q가 정말로 케리그마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Q에 따르면, 겉으로 보이는 모든 반대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우리를 내보내시며,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의미를 주시면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나는 케리그마—사실 그것은 Q에 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에 대해 볼트만(Rudolf Bultmann)이 유사한 설명을 언급해 준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나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나의 케리그마 해석에 의하면 예수가 케리그마 안에서 부활했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되는 것이다. 나는 이 명제를 받아들인다. 그것이 정당하게 이해된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것은 케리그마 자체가 종말론적 사건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예수가 정말로 케리그마 안에 현재한다는 사실과, 케리그마 안에서 청중을 관련시키는 것이 그의 말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때에는 부활한 자의 존재 방식에 대한 모든 사변과 빈 무덤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과 모든 부활절 전설들은, 그것들이 역사적 사실로서의 어떠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든지, 또 그것들이 그 상징적인 양식에 있어서 진실이라 하더라도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케리그마 안에 현재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활절 신앙의 의미인 것이다.<sup>12)</sup>

Q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해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모든 것들 즉 예수의 끔찍한 죽음—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돌보신다는 사실에 대한 예수의 모든 보증의 말씀을 소멸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반대로 돌아서서 그 죽음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해서 선포했는데(마치 세례 요한의 끔찍한 죽음 후에 예수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들의 선포에 있어서 예수 자신이 여전히 말하고 있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진실이라고 그들은

12) Rudolf Bultmann, “Das Verhältnis der urchristlichen Christusbotschaft zum historischen Jesus,” in SHAW.PH, Jg. 1960, Abh. 3, Heidelberg, Winter, 1960, 1962<sup>3</sup>, 27. ET: “The Primitive Christian Kerygma and the Historical Jesus,” in Carl E. Braaten and Roy A. Harrisville (eds.), *The Historical Jesus and the Kerygmatic Christ*, Nashville, Abingdon, 1964, 15-42, esp. 42.

선포했다.

예수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그들의 중심적인 선교에 있어서 Q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예수의 부활—비록 부활에 관한 언어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이라 할지라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실행했던 것이다. Q에 있어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의 언어를 사용했다. 바울은 그 예수의 언어를 직접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 인해 그는 케리그마의 언어—그 안에서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이 일어났던 것이다—를 선호했다. 우리 자신들도 전통적으로 바울의 언어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해석자들인 우리의 진정한 임무는 그 갈라져나간 언어의 심층부로 내려가 진정한 의미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언어가 사실이라면 바울의 케리그마적 언어도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 질 것이다.

## 2. Q의 편집

20세기 후반부에 주된 관심 분야로 떠오른 새로워진 Q 연구는 기본적으로 1968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제출한 뤼어만(Dieter Lührmann)의 교수자격논문인 '어록자료의 편집'<sup>13)</sup>에 기초를 두고 발전하였다. 간단히 말해 그의 논문은 Q가 단순히 예수의 말씀들의 중립적인 "수집물"이 아니라, 특정한 관점—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신명기적 관점(deuteronomic view of Israelite history)<sup>14)</sup>—을 가지고 그 본문에 그 관점을 집어넣었던 어떤 "편집자"에 의해 함께 엮어진 말씀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밝히려 했다. 이러한 신명기적 관점은 바벨론 포로기 때 발전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도록 허락하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엄청난 불행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불충실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이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예언자들을 거부하면서 언약에 불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연적인 징벌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경적 역사관은 Q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해 다시 적용되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거부하였고, 지금은 예수를 거부하며 또한 Q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 예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는 "이 세대(this generation)"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한계점에 도달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징벌이 필연적으로 내려질 곳이 바로 "이 세대"인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그 자신, 즉 Sophia를 예수가 인용하고 있는 Q의 한 단락에서 이러한 신명기적 역사관이 가장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 본문이 누가복음(11:49-51; 13:34-35)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두 부분이 Q에서도 나누어져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마태복음에서는 나란히 나오는데, 아마 Q에서의 위치도 그렇게 나란히 있었을 것이다.<sup>15)</sup> 이 전체 구절은 유대 지혜 문학에 속

13) Dieter Lührmann, *Die Redaktion der Logienquelle* (WMANT, 3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14) Lührmann은 그의 Heidelberg대학 동문인 Steck의 1965년 박사학위 논문에 기초를 두고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Odil Hannes Steck, *Israel und das gewaltsame Geschick der Propheten. Untersuchungen zur Überlieferung des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bildes im Alten Testament, Spätjudentum und Urchristentum* (WMANT, 2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7.

15) James M. Robinson, "The Sequence of Q. The Lament over Jerusalem," in Rudolf Hoppe and Ulrich Busse (eds.), *Von Jesus zum Christus. Christologische Studien*. FS Paul Hoffmann (BZNW, 93), Berlin and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8, 225-260.

하는 어떤 분실된 본문의 발췌문인 것처럼 보여진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는, 명백히 Sophia를 인용하면서, 그 자신에게는 맞지 않지만 Sophia 자신에게는 맞는 그러한 일들을 Sophia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Sophia는 성경의 역사의 시작 때부터 계속하여, 즉 아벨의 때부터 사가라의 때까지(이러한 표현은 Q에 있어서 이상한 것인데, 비록 세례 요한, 예수, 그리고 Q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지는 않지만<sup>16)</sup>), 예언자들을 보내고 있었으며<sup>17)</sup>, 때때로 예루살렘에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실로, 이처럼 예루살렘에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예수 자신의 “공생애”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 Enoch 42에 있는 유대교의 Sophia 신화에서처럼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반복적으로 다가오다가 이스라엘로부터 최종적으로 철수하면서 끝마침하고 마지막 때에 예수로서 돌아오게 될(Q 13:35b) Sophia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차적으로 기독교로 화(化)한 유대교의 지혜 문헌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sup>18)</sup>

또한 Q의 편집자의 이러한 심판적인 신명기적 경향은 “이 세대”에 대한 빈번한 언급에서도 발견되는데, 그것은 Q에 여덟 번이나 나온다(7:31; 11:29에 두 번, 30, 31, 32, 50, 51).

이와 같이 Q의 이러한 편집층은 상당히 심판의 성격이 강한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이 세대”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사실, 동일한 주제로 시작되고 끝나는 문서로 Q가 편집된 것은 이러한 심판의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Q는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의)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것이라는 위협(Q 3:8)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Q 11장에 있는 “이 세대”에 대해 선언되는 심판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는 동안 이방인들은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에서 와서 족장들과 함께 종말론적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Q 13:29, 28)이라는 말씀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Q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Q 22:28, 30)이라는 말씀으로 끝난

16) 마태와 누가는 이러한 결핍을 감지하여, 마 23:34절은 “십자가에 못박고”를 첨가했으며, 눅 11:49절은 “사도들”을 첨가했다.

17) Sophia에게서 기인한 것으로 돌려진 이 말씀은, 지혜와 예언 두 가지를 Q의 배타적인 두 장르로 제시하는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 주장은 Richard A. Horsley, “Logoi Profêtôn. Reflections on the Genre of Q,” in *The Future of Early Christianity* (n. 2), 195-209에서 제시되었다. 그렇게 서로 배타적인 두 장르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작품인 다음을 보라: “Welche biographischen Kenntnisse von Jesus setzt die Logienquelle voraus? Beobachtungen zur Gattung von Q im Kontext antiker Spruchsammlungen” (n. 15), 5-6.

18) Frans Neirynck, “Rec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Q,” in J. Delobel (ed.), *Logia. Les paroles de Jésus - The Sayings of Jesus* (BETL, 59), Leuven, University press - Peeters, 1982, 27-75, esp. 66-67:

Q에 있어서 화 선언들(woes)은 이 세대에 반대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나서 (눅 11:49-51) 예루살렘 말씀으로 이어졌을 것이다(13:34-35)... 13:34-35a와 35b 사이의 현저한 차이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λένω ὑμῖν(눅 13:35b δέ / 마 23:39 νάψ)이라는 말로 도입되는 마지막 문장은 전승의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첨가된 것이라는 가설은 옳다. 눅 11:51b는 11:50절의 반복이며 확증이다: v ai λένω ὑμῖν(마 23:36 ἄμην λ. ὑ.)에 의해 도입되는 ἐκζητηθήσεται (ἵνα ἐκζητηθῆ) ἀπὸ τῆς νενεᾶς ταύτης는 11:49-51절의 결론이며 또한 11:39-51절에 있는 화 선언들의 전체 수집물의 결론이다. 11:51b의 기능은 선교 담론(mission discourse)의 결말 부분에 있는 λένω ὑμῖν 말씀의 기능과 비교된다: 예수의 사절들(envoys)을 거부했던 도시와 마을들에 대한 심판의 위협(10:12절 τῇ πόλει ἐκεῖνη를 10:10-11a와 비교하고 11:51b를 11:49-51a와 비교하라)과 그 뒤에 나오는 예수의 사역을 거부하였던 도시와 마을들에 대한 비난인데, 10:13-15절에서는 갈릴리의 마을들이며 13:34-35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다.

또한 Kloppenborg, “The Sayings Gospel Q” (n. 2), 18-24를 보라.



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판에 관한 주제는 Q의 편집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뿐 아니라 사실상 옛 수집물들(archaic collections) 안에 있는 중심적인 특징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예수의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또 그것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심적인 특징들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신학과 그의 윤리 사이의 상관관계는 예수의 종말론에 대한 그의 신학과 윤리의 관계보다 훨씬 더 명백하게 드러난다.<sup>19)</sup> 왜냐하면 Q에 있는 옛 수집물들에서는 “중간 윤리”라든지 “임종의 회개” 같은 것은 명백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sup>20)</sup> 오히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윤리 사이에 명백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Q 6:36-38):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전적으로 자비로워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줄 것이다.

여기서 예수는 명백히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모델인 것이다. 그는 이것을 몇 번이고 반복한다: 그는 돌보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빛진 사람들의 빛을 삭쳐 준 것처럼, 우리의 빛을 삭쳐 주실 것”으로 기대했다(Q 11:4). Q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매일의 용서를 기대하는 것처럼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요구받는다. “만일 하루에 일곱 번 [너의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너도 또한 일곱 번 그를 용서하여야 한다” (Q 17:4).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중심 호소는 하나님의 품행에 근거를 둔 것이다(Q 6:35):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시기 때문이다.

Q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계시만큼 중요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예수가 쿰란의 종교의식적인 감사찬송(Hodayot) 형식을 이용한 것으로, 즉 하나님께 가장 명백하게 감사를 드린 것으로 묘사한 것은 이러한 점을 잘 드러낸 것이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들을 현인들과 학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이들에

19) Hans Conzelmann, “Jesus Christus,” in RGG<sup>3</sup>,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vol. 3, 1959, 634, 637:

예수는 가르침의 어떤 체계도 구상하지 않았다. 반대로, 언뜻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가르침과 종말론, 종말론과 윤리가 비교적 따로따로 떨어진 방식으로 서로 나란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놀랍다.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철저 종말론적” 해석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은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지배 그 자체가 전개된 곳에, 세상의 임박한 종말에 대한 전망이 결여되어 있다. 세상은 단순히 피조물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살핌의 영역으로 나타난다.

ET: *Jesu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3, 51, 58.

20) Albert Schweitzer의 견해에 있어서도 그런 것은 없는데, 최소한 파루시아의 지연에 의해 취소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의미에 있어서의 그런 것은 없다. Erich Gräßer, “Noch einmal: ‘Interimsethik’ Jesu?” in ZNW 91 (2000) 136-42를 보라.

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Q 10:21).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고자 선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기”(Q 10:22) 때문이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함으로써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방식은 더 이상 Q의 편집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인내는 분명히 다 끝난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기보다는 징계하시며 예루살렘을 파괴하시고 계시기 때문인데,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가르친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옛 수집물로 인식되어 왔던 Q의 그 부분들은 편집자에 의해 무시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Q의 옛 수집물과 마지막 편집 사이의 편집비평학적인 구별은, 원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그 태도가 근거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상호관계의 관점과 관련하여 뛰어만이 Q의 두 편집층 사이를 대조시켰던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신학적이며 윤리적인 관점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다. 어떤 문서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일관되게 전개되지 않는 곳을 찾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서의 본질적인 메시지와 관련한 내적인 비평이 바로 루돌프 볼트만이 말했던 이른바 내용비평(material criticism)<sup>21)</sup>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 전반적인 문제점을 우리의 최고의 이상들에 관한 인간의 통상적인 모습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전승사에 있어서 성서의 잘 알려진 편집층의 필연적이지만 부적절한 결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Q의 두 주된 편집층들, 즉 옛 단락들(archaic clusters)과 마지막 편집층 사이의 본질적인—신학적이며 윤리적인—긴장 관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sup>22)</sup> 끝없이

21) Rudolf Bultmann은 내용비평(Sachkritik)의 개념을 그의 서평인 “Karl Barth, ‘Die Auferstehung der Toten,’” in *TBI* 5 (1926) 1-14, reprinted in Bultmann, *Glauben und Verstehen. Gesammelte Aufsätze*,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1933, 38-64(이곳에서 인용했음)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Karl Barth의 고린도전서 주석인 *Die Auferstehung der Toten. Eine akademische Vorlesung über 1. Kor. 15*, München, Chr. Kaiser, 1924에 대한 비평적인 서평에서, Bultmann은 Barth가, 바울이 때때로 그 자신의 규범적인 신학적 통찰을 일관되게 이끌어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을 단순히 회피하기 위하여, 유지될 수 없는 주석적 입장을 반복하여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하였다(39-40, 44, 52, 57; ET 67, 72, 81, 86):

물론 이 개념은 주석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단지 **문제 제기**로서만 사용될 수 있다. 문제제기로써 그것은 바울 자신으로부터 얻은 **비평적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비평적 기준은 개별적인 서술 문들을 해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주석은 또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내용비평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된 것이다. 그러므로 바르트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그 주된 주제를 자신의 해석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하였는지가 질문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ET: Robert W. Funk (ed.), *Faith and Understanding*, London, SCM, and New York, Harper and Row, 1969; reprinted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66-94, esp. 67. Barth의 책의 영어 번역인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New York, London, and Edinburgh, Fleming H. Revell, 1933은 불행하게도 너무 부정확하여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이다. Barth의 입장은 Bultmann의 서평에 있는 인용들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 서평의 영어 번역이 정확한 것이다.

22) Peter Kristen이 “Nachfolge Leben. Drei Modelle von Kreuzesnachfolge in Q und Markus,” in Stefan Maser and Egbert Schlarb (eds.), *Text und Geschichte. Facetten theologischen Arbeitens aus dem Freundes- und Schülerkreis. Dieter Lührmann zum 60. Geburtstag* (MThSt, 50), Marburg, N. G. Elwert, 1999, 89-106, esp. 98에서, Jens Schröter의 책 *Erinnerungen an Jesu Worte. Studien zur Rezeption der Logienüberlieferung in Markus, Q und Thomas* (WMANT, 76),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7, 468-469가 Q 12:22b-31과 같은 편집 이전의 수집물을 너무 쉽게 배척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Auch Jens Schröter akzeptiert keine literarischen Vorstufen in Q und sieht die “unterschiedlichen rhetorischen Ausrichtungen in den Redekompositionen” als “zusammengehörige Aspekte einer Perspektive.” “Gerade das Nebeneinander von Instruktionen, Drohworten und eschatologischen Verheißungen” sei “für Q charakteristisch”, eine

용서하시며 따라서 놀랍게도 선한 사람뿐 아니라 악한 사람도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으로서의 돌보시는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비전은, 한 세대 후에는 시야에서 사라졌던 것 같다. 그것은 유대 전쟁의 참혹한 경험의 결과 때문이었는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상당한 심판적인 징계로 이해되었다.

Q의 편집에 있어서, “이 세대”,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 대한 심판은 지금 이 세상에서 Q 공동체의 구성원들 자신들에 의해 수행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심판의 날에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것은 바울이 롬 12:14, 19절에서 신 32:35절을 인용하면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된 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또한 히 10:30절도 신 32:35절을 인용하며 주석을 붙인다(히 10: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Q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원수를 사랑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그 하나님은 원래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었는데, 그분은 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취주시며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추구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였다(Q 6:35-36).

탁월한 고전 학자였던 딜(Albrecht Dihle)은 고대에 널리 퍼져 있던 보상과 보복에 대한 상식적인 정의를 초월하는 극적인 범위를 상세하게 전개하였다<sup>23)</sup>:

...나사렛 예수의 선포 그리고 그것에 연결된 초대 그리스도교의 신학은, 윤리적 질서를 위한 근거로서의 그러한 보복의 개념을 또는 그 윤리적 질서의 한 요소로서의 그러한 보복의 개념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Q의 편집은 다시 한 번 Q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하였다. 그러나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을 이해하였는데, Q의 마지막 문구가 표현하듯이(Q 22:30절에 있는 Q의 “마감 말(*explicit*)”) 마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심판자 하나님처럼 생각하였다. 보복적인 정의를 확고히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대로부터의 관점이 다시 드러남에 따라, 하나님의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본성에 대한 예수의 기본적인 통찰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사상사에 대한

---

Beschreibung, die für die Endgestalt des Spruchevangeliums zutreffend erscheint, nicht jedoch für seine erkennbare literarische Vorstufe Q<sup>1</sup>. Sicher stehen die Anweisungen in Q 10,2-16 und 12,22-31 “unter der Perspektive der nahen basileiva”, wie Schröter feststellt, doch zeigen Q<sup>1</sup> und Q<sup>2</sup> gerade signifikante Unterschiede in bezug auf das, was das Gottesreich ist. Während Q<sup>1</sup> die basileiva als eine gegenwärtig mögliche alternative Lebensordnung betrachtet, wird sie in Q<sup>2</sup> als eine erin zukünftige, deutlich abgrenzbare Größe beschrieben, die mit dem zum Gericht kommenden Menschensohn verbunden ist.

23) Albrecht Dihle, *Die Goldene Regel. Eine 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der antiken und frühchristlichen Vulgärethik* (SAW, 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esp. chapter V, Prinzipielle Überwindung des Vergeltungsdenkens, b) Christentum, 72-79, esp. 72. 나의 서평 JHP 4 (1966) 84-87을 보라.

예수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여—플라톤의 전통과 유일하게 견줄 만한 것인데—에 주목하도록 만든 사람이 신학자가 아닌 고전학자라는 것이 정말 기이하기만 하다. 결국, 윤리적 행동의 근거에 있어서 신론에 이러한 기본적인 전이—Q 안에 편입된 예수의 말씀들의 옛 수집물들과 한 세대 후의 Q의 편집사이에서 발생했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은 신학자들의 임무이다.

### 3. Q 안에 있는 오래 된 수집물들

우리는 예수 자신의 말씀들에 돌아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해 Q 안에 삽입된 오래 된 수집물들에서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오래 된 수집물의 가장 명백한 예는 다음과 같은 단락(cluster)일 것이다: 까마귀와 백합꽃처럼, 걱정하지 말아라(Q 12:22b-31). Q에 있는 이 단락보다 더 오래 된 형태의 말씀은 도마복음의 말씀 36 속에 담겨 있다. 분명히 이러한 오래 된 형태의 말씀은 나그 함마디(Nag Hammadi)에서 발견된 4세기의 콕터 본문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고, 오히려 훨씬 더 초기의 것이며 더 긴 P. Oxy. 655의 그리스어 본문에 더 잘 보존되어 있다. 현저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도마복음의 말씀 36의 이러한 본래적인 본문이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발견되는 필사가의 실수—따라서 그 실수는 『예수말씀의 대조연구서』에 복원된 것처럼 그 두 복음서들의 Q 원형에도 이미 현재하고 있었다—를 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난 세기를 통해 학자들 대부분이 이차적인 첨가물로 인정해 왔던 다른 특징들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Q 안에서 이미 그것들은 잘 짜여진 Q 수집물에 끼어들어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차적인 특징들은 P. Oxy. 655에서 그것들이 없다는 사실에 의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Q에 있는 필사가의 실수는 마태와 누가복음 배후에 있는 Q 원형이 이 말씀에 대해 기록된 그리스어 본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기록된 말씀들—마태와 누가에 의해 공유된 Q의 사본보다도 더 오래 된—에 대한 가장 오래 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24)</sup>

Q에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또 다른 수집물들은 이 가장 오래 전에 기록된 수집물과 내용에 있어서 현저하게 비슷하며, 그것들도 역시 아주 옛것들이다: 주의 기도(Q 11:2b-4), 그것에 대한 주석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Q 11:9-13), 그리고 마태가 다른 오래 된 수집물들을 그 안에 끼워 넣었던 취임 설교 그 자체(Q 6:20-49). 이처럼 우리는 예수가 무엇을 말하려 했던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오래 된 자료의 상당히 넓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적인 신명기적 관점과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수집물들이다.

24) James M. Robinson and Christoph Heil, "Zeugnisse eines schriftlichen, griechischen vorkanonischen Textes. Mt 6, 28b a\*, P.Oxy. 655 L1-17 (EvTh 36) und Q 12,27," in ZNW 89 (1998) 30-44; Robinson, "The Pre-Q Text of the (Ravens and ) Lilies. Q 12:22-31 and P. Oxy. 655 (Gos. Thom. 36)," in *Text und Geschichte: Facetten theologischen Arbeitens aus dem Freundes- und Schülerkreis. Dieter Lührmann zum 60. Geburtstag* (n. 26), 143-180; Robinson, "A Written Greek Sayings Cluster Older than Q. A Vestige," in HTR 92 (1999) 61-78; 그리고 Robinson, "Excursus on the Scribal Error in Q 12:27," in *The Critical Edition of Q* (n. 1), xcvi-c. 또한 그 책의 면지에 있는 Codex Sinaiticus와 P. Oxy. 655의 관련 구절들의 사진들을 보라. Jens Schröter, "Vorsynoptische Überlieferung auf P. Oxy. 655? Kritische Bemerkungen zu einer erneuerten These," in ZNW 90 (1999), 265-272에 관해서는 Robinson and Heil, "Noch einmal: Der Schreiberfehler in Q 12,27," in ZNW (근간)에 있는 비판적인 논평을 보라.

물론 예수는 Q의 이러한 핵심부분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다른 많은 말씀들을 말했고 다른 많은 일들을 행했으며, 그것들의 일부는 다른 복음서들(또는 Q의 다른 부분들)에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대부분은 영원히 분실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핵심부분의 모든 것들이 확실히 예수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까마귀와 백합꽃과 같이 걱정하지 말라는 오래 된 수집물 속에 있는 이차적인 첨가들이 그렇다(위를 보라). 그러나 Q의 가장 오래 된 핵심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수집물들을 그 중심에서 빼놓고 예수를 묘사하는 것은 그만큼 불충분한 것이다.

학자들은 복음서들의 본문으로부터 예수의 전기와 그의 진정한 말씀들(*ipsissima verba*)을 간단히 모두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순진함을 양식비평의 결과로 인해 모두 잃어버렸다. 그러나 예수가 무엇을 말했는가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sup>25)</sup> 양식비평가들 가운데 가장 회의적이었던 Rudolf Bultmann 자신이 이러한 변증법을 강조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가 그 메시지를 전하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도적인 개연성에 따르면 그가 실제로 그러하였다.... “예수”라는 이름을 인용부호 안에 넣고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현상에 대한 약어로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그러한 비판적인 신중함을 항상 염두에 두어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여기서 우리의 기본적인 관심거리이다.<sup>27)</sup> 확실

25) 이 책 안에 있는 A. Järvinen, “Jesus as a Community Symbol in Q”가 기여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6) Rudolf Bultmann, *Jesus* (Die Unsterblichen. Die geistigen Heroen der Menschheit in ihrem Leben und Wirken mit zahlreichen Illustrationen, 1), Berlin, Deutsche Bibliothek, n. d. [1926], 13. bis 14. Tausend,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51, 16:

비록 단지 상대적인 정확성만을 가지고 그 층들의 경계가 구분될 수 있을지라도, 이러한 비판적인 분석에 의해 가장 옛 층이 결정된다. 물론 이 가장 옛 층의 말들 그대로가 실제로 예수에 의해 말해졌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이 가장 옛 층의 내용도 이미 우리가 더 이상 추적할 수 없게 된 복잡한 역사적 과정의 결과일 수도 있다. 물론 예수가 정말로 실존했는가라는 의심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이를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 그 첫 번째 뚜렷한 발전단계가 가장 오래 된 팔레스틴 공동체에 의해 대표되는 그 역사적 운동의 배후에 예수가 창시자로서 있다는 사실은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사실적인 그의 모습과 그의 메시지를 보존하였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예수의 인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실정은 침울하고 또는 절망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도 지니고 있지 않다. 공관복음서의 가장 옛 전승층 안에 담겨 있는 사상들의 복합체가 바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것은 우선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승의 한 단편으로서 우리를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역사와 해후하게 된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가 그 메시지를 전하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도적인 개연성에 따르면 그가 실제로 그러하였다.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밝혀진 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기록 안에서 말해지고 있는 것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나는 다음의 서술에서 예수를 선포자라고 말하지 않아야 할 어떤 이유도 발견하지 못한다. “예수”라는 이름을 인용부호 안에 넣고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현상에 대한 약어로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T: *Jesus and the Wor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4, reprinted 1958, 13-14.

27) 널리 대중화된 나의 강의에서 이러한 변증법—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명백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Helga Melzer-Keller가 나의 입장에 대한 풍자적인 모습을 그리게 만든 것에 대해 나는 후회한다. Helga Melzer-Keller, “Frauen in der Logienquelle und ihrem Trägerkreis: Ist Q das Zeugnis einer patriarchatskritischen, egalitären Bewegung?,” in Stefan H. Brandenburger and Thomas Hieke (eds.), *Wenn Drei das Gleiche sagen - Studien zu den ersten drei Evangelien. Mit einer Werkstattübersetzung des Q-Textes* (Theologie, 14), München, Lit, 1998, 37-62, esp.

히 Q 안에 있는 예수의 말씀들은 마가에 의해 정형화된 더 좁은 의미로 케리그마화하지 않았다.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매우 두드러진 역할을 하여 마가복음이 단지 긴 서론을 지닌 수난 이야기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Q의 본문에 남긴 Q 공동체 구성원들의 흔적은 명백하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Q의 편집자가 “이 세대”에 대한 신명기적 역사관을 적용하였던 경우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심지어 그 가장 오래 된 단락들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용되면서 잘 구성된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sup>28)</sup> 이것이 인정된다면, 이 가장 오래 된 전승층이 사실상 예수가 말했던 것을 반영하고 있을 “압도적인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던 볼트만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4. 사회적 현실로서의 예수의 공생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말씀(*ipsissima verba Christi*)에 도달했다고 결코 주장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우리가 예수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상당히 확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아마도 Q의 마지막 편집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오래 된 수집물인 이른바 선교 지침(Mission Instructions; Q 10:2-16)일 것이다. 예수가 열 둘 (또는 이른 둘) 앞에 서서 그러한 취지로 말했다고 감히 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실질적인 선교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변화들에 맞추기 위해 선교 지침은 부단히 전승을 개정하고 최신의 것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선교 지침은 아주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실행되었으며 또 의심할 여지없이 이미 예수 자신이 본을 보여주었던 선교 활동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고 비교적 분명한 모습을 제시한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그 선교 지침의 가장 오래 된 전승층을 해석하기 위해 옛 말씀 수집물들을 이용한다면,<sup>29)</sup> 우리는 갈릴리 선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점에 있어서는 Q의 본문이 이야기 복음서의 양식으로 고쳐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고(Q 3:21-22), 세상적인 실존을 되찾으려는 유혹을 거부한 후(Q 4:1-13), 예수는 나자라(Nazara Q 4:16)로 돌아갔으며, 단지 자신의 과거와 단절할 만

37: “... die hier pauschal vorgenommene unkritische Übertragung jeglicher Redenstoffe aus Q auf den sogenannten ‘historischen Jesus.’” 물론 지지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거부하는 반면에, 그녀는 상당히 옳게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말한다: “... kann eines nicht zweifelhaft sein: Dass der Trägerkreis der Logienquelle Aussprüche Jesu von Nazaret in großer Zahl weitertradierte und der Jesusgruppe zeitlich und soziologisch noch sehr nahe stand. Die Logienquelle läßt also immerhin Rückschlüsse auf den ‘historischen Jesus’ und das Profil seiner Nachfolgegemeinschaft zu.” 그녀와 나는 사실상 이러한 변증법의 두 측면에 관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28) John S. Kloppenborg, “The Sayings Gospel Q and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HTR* 89 (1996) 307-44, 특히 그의 칭호가 규정되고 있는 단락인 “Invention and Arrangement,” 326-329, esp. 326:

나는 이러한 용어들을 “위조”라는 통속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엄격히 수사학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수사학적인 의미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증과 관련되어 자료들을 찾아내고 정리하는 지적인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저작물로서 Q는 마지막 편집에 있어서나 그것의 더 작은 요소로서의 수집물의 단계에 있어서 창작의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다.

29) Lief E. Vaage, *Galilean Upstarts. Jesus’ First Followers According to Q*,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4의 기본적인 결점이 바로 Q 자체의 이러한 문맥을 간과한 점이다. 나의 비판적인 서평, “Galilean Upstarts. A Sot’s Cynical Disciples?,” in William L. Petersen, Johan S. Vos, and Henk J. de Jonge (eds.), *Sayings of Jesus. Canonical and Non-Canonical*. FS Tjitze Baarda (NT.S, 89), Leiden, New York, and Köln, E.J. Brill, 1997, 223-249, esp. 243-49를 보라.

쿰의 시간만을 가진 후 가버나움으로 옮겨갔다(Q 7:1). 이곳이 바로 일차적으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에 있는 해수면 보다 훨씬 낮은 가버나움, 그 뒤의 산 속에 격리되어 있는 고라신, 그리고 동쪽으로 요단 강 건너 빌립의 더 안전한 영토에 있는 벳세다를 포함하는 순회 구역을 위한 본부가 되었다(Q 10:13-15).

그러한 순회 구역에서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는 어떤 인간적인 보호 수단도 없이 시작하였다. 그는 식량을 넣을 여행용 자루도 없었으며, 돈도 - 무일푼으로 - 전혀 없었으며, 신발도 지팡이도 없었고, 말 그대로 어떤 도움도 없는 무방비의 상태였다(Q 10:4). 종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그의 모습은 그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옷차림도 아니었고 견유학파의 복장도 아니었다.<sup>30)</sup> 그러나 그것은 Q 의 또 다른 옛 수집물들에 반영된 그의 메시지에 비추어볼 때 이해가 된다: 까마귀나 백합꽃이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음식이나 옷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Q 12:22b-30). 오히려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배에 순응하여야 한다(Q 12:31).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기도하며, 따라서 양식을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한다(Q 11:2b-3). 사람들에게 빵과 생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Q 11:9-10).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빵과 생선대신 돌이나 뱀을 주시지 않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상 자비로우신 아버지로서 다스리실 것을 신뢰한다(Q 11:11-13). 그것이 현실에서 믿을만한 것으로 확인 되려면, 철저한 신뢰에 대한 그러한 종류의 메시지는 대안으로서의 물질적인 보호 수단에 대한 그러한 종류의 철저한 포기를 요구한다.

선교 지침의 경우에 있어서, 그 지역의 회당(그 당시에 갈릴리에는 건물로서의 회당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에 가야 한다고 예수가 주장하지도 않았고, 산 위에서나 평지에서 또는 호숫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잘 드러난다. 오히려 선교 지침은 집들을 향하고 있다(Q 10:5, 7).<sup>31)</sup> 그들은 이 밭에서 저 밭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걸어다녔으며, 그 집의 문을 두드리러 자신들이 온 것을 알렸다. 집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 그들은 “살롬!” 하고 소리쳤다(Q 10:5b). 만일 그 집의 가장에 의해 받아들여져 통상적인 환대가 제공된다면, 그들은 그를 “평화의 아들”이라고 명명하였다(Q 10:6a). 왜냐하면 첫 인사의 살롬에서 “수행적인 언어(performative language)”로서 하나님의 평화가 수여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문에서 거절당하면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나 그의 제자들과 함께 떠날 것이며(Q 10:6b), 그들이 문을 두드리게 될 다음 집에 다시 권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받아들인 집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사실 그 집에 있는 동안 집주인에게 명백하게 말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Q 10:9b).

하나님의 통치는 환대 그 자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 환대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아들여졌으며, 세례 요한이나 그 당시의 다른 “성자들”이 행했던 것과 같은 음식에 대한 금욕주의적인 제한 없이 음식이 제공되는 대로 먹었다. 이러한 것은 여행 용품을 전혀 가지고 다니지 않았던 것이 금욕주의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

30) James M. Robinson, “Building Blocks in the Social History of Q,” in Elizabeth A. Castelli and Hal Taussig (eds.), *Reimagining Christian Origins*. FS Burton L. Mack,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87-112, esp. 87-90.

31) James M. Robinson, “From Safe House to house Church. From Q to Matthew,” in Michael Becker and Wolfgang Fenske (eds.), *Das Ende der Tage und die Gegenwart des Heils. Begegnungen mit dem Neuen Testament und seiner Umwelt*. FS Heinz-Wolfgang Kuhn (AGJU, 44), Leiden, E.J. Brill, 1999, 183-199.

려 그러한 인간적인 필수품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문서화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옛 수집물들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그 집에서 제공되어 먹고 마셨던 음식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까마귀들을 위해 그렇게 하시듯이 이미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제공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돌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 집 자체에서 필요한 것들도 또한 이루어진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들에게까지도 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Q 10:9). 치유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 행해지는데, 그 치유에 관여한 사람이 예수이든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든지에 상관없이(Q 11:19),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것이다(Q 11:20). 사실 그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이해는 하나님의 통치의 “종말론적인” 차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전하였던 자신의 메시지 안에서 예수가 그렸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표현인 것이다. 이처럼 Q는 예수가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행했던 것에 관련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즉, 그가 사실상 거기서 “공생애”를 가졌다는 것을 Q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 집의 한 명이 방랑하는 사역자(itinerant worker)가 되려는 결단은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예수는 고향 나자라를 떠났을 뿐 아니라, Q에서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의 가족들과 어떤 관계도 갖고 있지 않았다. Q에는 심지어 가족 연분을 단절할 것을 명백히 요구하는 말씀들도 있다: 예수는 아들을 아버지로부터, 딸을 어머니로부터, 며느리를 시어머니로부터 갈라내려고 왔다(Q 12:53).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미워해야만 한다(Q 14:26). 자신의 가족을 미워하고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극단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비록 이 “미워함”이 가족들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완곡하게 이해되었다 하더라도(마 10:37), 그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하며 집에서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예수가 그렸던 삶의 방식의 중심은 확실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었다(Q 6:27).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 잘 설명되듯이(Q 6:28),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며,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최상의 존재 가치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내려 주시기 때문이다(Q 6:35).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헬라-로마 세계에서 영웅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칭호로서 사용되던 것에서 차용해온 그리스도론적인 칭호로서 단순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평화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같이 예수 운동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칭호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단지 행복을 기원하는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뺨을 돌려대고, 속옷까지 벗어주고, 십 리를 같이 가 주고, 결코 돌려달라는 말 없이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Q 6:29-30).

Q의 교훈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단지 몸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Q 12:4).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잃어야만 하며(Q 17:33), 정말로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Q 14:27). 이러한 Q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며(Q 10:2),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은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운동에 있어서 조금 이 그 맛을 잃게 되면 밖에 내버려져야만 했다는 것(Q 14:34-35)은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이론은 여하튼간에, 실제로는, Q 운동은 소멸하여 사라졌다. 그러나 그것의 자



취는 복음서 기자 “마태”의 지도력 하에 있었던 이방 그리스도교회 안으로 흡수되었다. 마태에 의해 그 본문, 즉 말씀 복음서 Q는 보호되었으며, Q에서 우리는 역사적 예수에 대해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지게 되었다.

번역 : 소기천